

마산고등학교, 1960년 3월 15일

김용실·김영준 열사를 재발견하다



‘마산고등학교, 1960년 3월 15일’
편찬위원회

마산고등학교총동창회

마산고등학교,
1960년 3월 15일

김용실·김영준 열사를 재발견하다

편찬위원회

위원장: 김정대(31회 / 경남대 명예교수)
위 원: 서익진(32회 / 전 경남대 교수)
위 원: 안형호(32회 / 전 마산고 교장)
위 원: 정성기(36회 / 경남대 교수)
간 사: 최영찬(44회 / 총동창회 사무총장)

1판 1쇄 인쇄 2022년 6월 10일

1판 1쇄 발행 2022년 6월 15일

펴낸이 '마산고등학교, 1960년 3월 15일' 편찬위원회

펴낸곳 마산고등학교총동창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도로 419(오동동) 대흥빌딩 4층

tel, 055-242-7871 fax, 055-242-7872

누리집 <http://www.mago.or.kr/>

편집·인쇄 (주)경남신문사 출판국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0번길 3 경남신문사

tel, 055, 210, 6174 fax, 055, 210, 6170

ISBN 979-11-977516-2-2(03090)

© 마산고등학교총동창회

비매품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표지 설명

배경 사진은 1960년 4월 12일 제2차 3·15의거 때 마산고등학교 학생들의 단체 시위 장면. 김주열 군의 시체가 발견되자 마산고 학생 대부분이 교문을 박차고 나와 각종 구호를 외치며 마산경찰서로 향했다.

엠블럼은 21회 제갈선광 동문의 '영원히 꺼지지 않는 촛불'. '315'라는 숫자와 원을 불꽃 모양과 네 가지 색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마산고등학교, 1960년 3월 15일

김용실·김영준 열사를 재발견하다



‘마산고등학교, 1960년 3월 15일’
편찬위원회



마산고등학교총동창회

차례

권두시	07
발간사	09
축사	11
사진으로 보는 ‘마산고등학교, 1960년 3월 15일’	14
제1장 머리말	55
제2장 혁명적 3·15의거의 사회·역사적 배경	65
1. 왜, 한국-마산에서 민주 혁명이 일어났는가?	65
2. 1960년 봄 민주혁명	69
3. 일제의 야만, 마산 ‘오동동 경무대’의 부패와 독재	77
4. 강력한 항일 정신과 열린 야당 도시의 호국·자유·정의 정신	81
제3장 동량지재(棟梁之材), 민주 발전의 초석 되다	91
- 김용실 열사편 -	
1. 들어가며	91
2. 김용실 열사의 생애	95
2.1. 가계(家系)	96
2.2. 학력	102
2.3. 성품	103
3. 의거의 현장에서	111
3.1. 2·28의거와 전국 학생 시위	111

3.2. 마산 학생들의 거사 모의	113
3.3. 탈취 당한 할머니의 투표권	116
3.4. 친인척들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다	119
3.5. 민주의 꽃, 무학초등학교 앞에서 스러지다	122
3.6. 시신은 ‘빨갱이’ 누명을 쓴 채 도립병원에	131
4. 나오며	138

제4장 청운의 꿈은 허공의 메아리가 되었지만 143

– 김영준 열사편 –

1. 가계(家系)	144
1.1. 아버지 김도해(?~1950.01.07.)	144
1.2. 어머니 주경옥(1908.03.18.~1981.05.28.)	145
1.3. 큰형님 김영식(?~1949.10.)	148
1.4. 작은형님 김영필(1936.03.11.~2003.05.25.)	151
2. 학력	154
3. 산화	160
4. 화상기	169

제5장 마산고 학생들의 3·15의거 참가기 175

1. 3·15의거 이전의 마산고등학교와 그 학생들	176
2. 3·15의거, 마산고의 주역들	179
3. 그들은 왜 3·15의거에 참가했던가?	182

차례

4. 투쟁의 현장에서	188
5. 고문과의 투쟁	206
6. 제2차 의거, 또 다시 거리로	222
7. 투사들의 후일담	230
8. 마무리 글	237

제6장 맺음말

241

참고 자료	246
부록: 중·고교 국사 교과서의 3·15, 4·19 관련 서술의 변화	248
발문	254

초혼

- 마산고 교정에 세운 의거의 영령 김용실·김영준 양군의 비문을 쓰고 -

이석¹⁾

오늘부터 두 젊은이 가는
시계는 영영 멎었지만
나무 그늘에 교복을 입고
죽음으로 바꾼 삶으로
머리털이 희끗희끗하는 날
무슨 말을 속삭일 것인가

생각하면 아득한 날로
산야에 산화한 어린 화랑(花郎)이 있고
시시(時時)의 불의를 굴복시켜
떨어진 꽃들의
붉고 맑은 입김이 있어
너와 나 우리들의 오늘이 있고
빛나는 언어를 다듬어
노래를 부른다
당신들의 죽음이
어찌 나만이 안타까우라마는
부끄럽지만 내 또한 시를 쓰는 죄업(罪業)으로

모든 아픔이 내 가슴 안에 모여와
무거운 바닷물처럼 출렁인다

어찌하여 당신들이 죽었는지
참으로 꿈만 같다
나는 스물두 살 홍안(紅顔)에서
이제껏 십삼 년
나의 젊음의 피가
여기 교정에 녹아 있어
마고(馬高) 묵은 가족으로
당신들과 함께 이곳을 베고 산다
영원히 변치 않을
나의 사랑의 터에
두 푸른 빛나는 영혼
여기 보금자리 떠나는
어린 새들에게
크고 우렁찬 뱃 울음을
당신들은 끝없이 심어가리라

1) 이석(1927~2000) 시인은 3·15의거 당시 마산고 국어 교사로 재직했던 분이다(1948~1962). 본명은 이순섭. 마산고 출신이 아니면서 누구보다 마산고를 사랑했던 교사이자 시인이었다. 마산고 교정에 들어서 있는 '김용실·김영준 군 민주의거 추념비'의 비문을 쓴 분이 바로 이석 시인이다.

명문이어라, 의로움이어라! 그대, 자랑스러운 마고인이어라!



박원철(총동창회장 / 33회)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랫동안 기다려 온 일상 회복이 차츰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세계적인 감염병 유행 속에서도, 2년 가까운 질곡의 시간을 잘 이겨 내신 동문님들께 이렇게 글로써 인사드립니다.

올해, 자랑스러운 우리 마산고등학교는 개교 86주년, 총동창회 창립 56주년을 맞이하여, 두 열사 선배님의 추모 책자를 발간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960년 3월 15일의 부정 선거에 항거하다 산화한 두 열사 선배님의 의로움을 담아, 3·15의거 62년 만에 발간된 책자이기에 그 의미는 더욱 크다 하겠습니다.

3·15의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주춧돌을 놓은 고귀한 의거였습니다. 아니, ‘혁명’이었습니다. 서슬 시퍼런 당시 자유당의 부정 선거에 맨주먹으로 맞서 싸운다는 것은 목숨을 내던진다는 각오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의거에 수많은 마산 시민이 동참하였고, 또 자랑스러운 마산고등학교 선배님들이 뜻을 함께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두 분 선배님이 산화하였습니다. 이 추모 책자는, 청운의 큰 뜻을 조국의 민주화와 맞바꾸신 두 분 선배님이

신 19회 고 김영준 선배님과 21회 고 김용실 선배님, 그리고 당시 의거의 현장에서 불의에 항거한 숭한 선배님들의 거룩한 애국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발간된 것입니다.

우리 마산고등학교는 우수한 두뇌들을 배출하여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한 인재를 많이 배출한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그 기저에 이렇게 불의에 항거하는 의로운 정신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점이 참으로 자랑스롭습니다. 선배님들의 거룩하고 올곧은 정신, 희생정신이 면면히 이어져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후배들은 저마다 그런 정신으로 이 나라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들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이 책이 탄생하기까지, 1여년 동안 헌신하신 편찬위원님들의 노고도 기억하겠습니다. 김정대(31회) 편찬위원장님, 안형호(32회)·서익진(32회)·정성기(36회)·최영찬(44회) 편찬위원님들과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학적은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마고인입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6월 1일

만고에 푸르를 그 이름, 마산고여 영원하라!



임채환(마산고 교장 / 39회)

2021년 3월 2일, 개교 85주년을 맞이하는 모교 제35대 교장으로 취임하였다. 부임 첫날, 감개무량한 심정으로 교문을 들어서다가 오른쪽 담벼락 플래카드에 가려진 추모비가 5평 남짓한 작고 초라한 공간에 세워진 모습을 보고 눈물이 왈칵 차올랐다. 왼쪽으로 옮겨 등나무 십터와 나란히 모셔야겠다고 다짐하며, 추모비에 목례하고 80여 년 창공을 벗어나 마산 시내와 우리 학교를 내려다보고 우뚝 선 히말라야시대를 잠시 우러르며 교장실로 들어섰다.

3월을 지나면서 총동창회 집행부를 만나 동문 계시대를 요청하였더니 선뜻, 제27대 박원철 총동창회장님께서 사재로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감사한 마음으로 납죽 받아 만든 계시대 맨 위에는 31회 김정대 선배님께서 지어 주신 ‘-이어라’ 문패를 달았다. 동문 계시대 1호 플래카드는 ‘안일환 동문(39회) 청와대 경제수석 임명’이었다. 「3·15의거 김영준·김용실 열사 추모 동산」 조성은 마침 27대 총동창회에서 진행하는 홍상 제작 및 책자 편찬 사업과 맞물려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학교에서는 추모비 이전과 기반 공사를 하고, 동창회에서는 홍상 제작, 비문, 두 분 열사의 행적 입간판을 맡기로 하였다. 비문 뒷면에는 새로운 글귀를 새겨 ‘1960.7.15.(금)의 옛 글귀와 ‘2022.3.15.(화)’의 새 글귀가 함

깨하게 되었다. 마치 19~21회 선배님들과 82~84회 후배님들이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이다. 전방 벽에는 총탄 흔적과 함께 21회 제갈선광 선배님께서 기부하신 ‘혼불’ 엠블럼이 24시간 꺼지지 않고 두 열사를 지키고 있다. 추모비 뒤편 광장은 운동장 쪽에서는 3계단을 오르고, 등나무 십터 쪽에서는 15개의 징검돌을 밟으면 입장할 수 있도록 하여 3·15를 표현하였다. 광장에는 화강석을 깔았고, 맨 앞줄에는 ‘마산고등학교 출신 3·15의거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으신 12분의 이름을 새겼다. 방문객들이 보고 “마고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희생된 줄은 몰랐다.”며 깜짝 놀란다. 김주열 열사만 돌아가신 줄 알았단다. 광장은 26개의 테두리 경계석이 388장의 바다 화강석을 에워싸고 있다. 마치 우리 동문들이 12 유공자와 시위에 참여한 선배님들을 빙 둘러싸고 있는 형국이다. 둘레에는 영산홍·장미가 의혈처럼 붉고, 무궁화·금목서·황금측백이 4계절 열사 곁을 환히 비추고 있다. 뜨거운 여름에는 느티나무가 그늘을 만들어 준다.

작년부터 추모비 공사를 시작한 이래로 운동부의 대회 실적이 좋다. 일반 학생들도 7년 만의 침묵을 깨고 SNU에 합격하겠다는 의지가 높다. 정성으로 꾸민 우리들의 작은 노력에 열사 선배님들이 화답이라도 하는 듯 도와주시는 것 같다. 『마산고등학교, 1960년 3월 15일』 책자 발간 소식에 가슴이 뭉클하다. 거의 새로운 내용들을 발굴하여 기록한 박사학위 논문이다. 519명의 재학생, 33,872명의 동문, 1,044,390명의 창원 시민 모두의 자부심이 될 것이다.

메일이 왔다. 17회 강병중 회장님께서 모교 후배들에게 장학금 5,000만 원을 줄 테니 빨리 명단을 보내라고 하신다. 너무 자주 주신다. 작년에 1.2억을 주셨는데, 모교 사랑 끝이 없으시다. “회장님! 존경합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얼른 보내드려야겠다. 행복하다. “만고에 푸르를 그 이름, 우리의 자랑스러운 마산고여 영원하라!” “단~결!”

2022년 5월 30일

마산고등학교, 1960년 3월 15일

김용실 · 김영준 열사를 재발견하다

사진으로 보는

‘마산고등학교, 1960년 3월 15일’

■마산고등학교 전경



마산고등학교는 1936년 4월 11일에 5년제 마산공립중학교로 출발했다. 한국인(40%)과 일본인(60%) 학생이 함께 공부한 최초의 공립학교라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2022년 올해로 개교 86주년을 맞는 마산고등학교는 숱한 인재를 길러 낸 명문 고교인 동시에 일제강점기, 6·25전쟁, 3·15 의거 등에서 항일, 구국, 민주 수호를 위해 수많은 희생을 치러 낸 의로움의 산실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2001년 6월에, 21세기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옛 본관 건물 등을 헐고 새 건물을 짓기 시작하여, 2002년 7월 31일에 최첨단 시설을 갖춘 현대식 4층(지하 1층) 건물의 새 본관 건물이 들어섰다. 암적색 벽돌이 아름다운 건물로 평가받고 있다. 건물 뒤로 고운대(학봉)의 우아하면서도 늙름한 자태가 보인다.



고운대(학봉)에서 본 마산고등학교 전경.

■ 3·15의거 김영준·김용실 열사 추모 동산



2022년 3월 15일, 3·15의거 제62돌을 맞아 1960년 3월 15일의 부정 선거에 항거하다 산화한 두 열사 김영준(19회) 동문과 김용실(21회) 동문을 추모하는 동산을 만들었다. 중앙에 '3·15의거 김영준·김용실 열사 추모 동산'이라는 제목의 새로운 추도비를 제작(기존 추념비의 이면 활용)하고, 좌우로 두 분 열사의 흉상을 세우는 한편, 오른쪽에 두 열사의 행적을 압축적으로 정리한 안내판을 세웠다. 담장에는 마산고등학교 학생들의 3·15의거 참여를 상징하는 엠블럼을 붙여 역사적 의미를 더하고 있다. 추도비의 비문과 안내판의 안내문은 김정대(31회) 동문이 초안하고, 배종길(21회)·제갈선광(21회)·안형호(32회)·김장희(32회)·서익진(32회)·정성기(36회)·윤철희(36회)·임채환(39회)·최영찬(44회) 동문 등으로 구성된 비문 검토위원의 10여 차례에 이르는 회의를 통해 확정된 것이다. 엠블럼은 21회 제갈선광 동문 작품이고, 두 열사의 흉상은 조용태 작가가 제작한 것이다.



19회 김영준 열사 흉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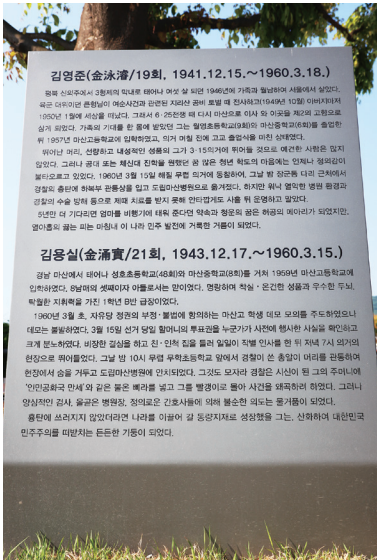


21회 김용실 열사 흉상.





3·15의거 김영준·김용실 열사 추모 동산 추모비.



김영준 열사와 김용실 열사의 행적을 압축적으로 정리한 안내판.



엠블럼 '영원히 꺼지지 않는 혼불'. '315'라는 숫자와 원을 불꽃 모양과 네 가지 색으로 형상화한 것임.

- 붉은 원: 두 열사의 영혼
- 3색 불꽃: 두 열사의 뜨거운 혼불을 감싸며 떠 만드는 형상
- 녹색: 3학년 김영준 열사의 명찰 색
- 적색: 1학년 김용실 열사의 명찰 색
- 청색: 마산고의 색



이전 추념비의 내용.

김용실·김영준 군 민주 의거 추념비

무릇 민족의 역사 있는 곳에 민족의 정기 끊임없이 흐르니 이 나라의 역사와 함께 정의의 발현은 연면 부절하였다. 단기 4293년 3월 15일 제4대 대통령 및 제5대 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정권은 그들 독재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부정과 불법이 극도에 이르렀다. 주권을 빼앗긴 국민은 입이 있으나 말을 못하는 판에 참다못한 우리 마산의 학생들은 누적된 분노를 이 고장에 폭발시켰으니 김용실 군과 김영준 군은 그때 민주 선봉에 섰다가 독재의 총탄에 쓰러진 우리 학교의 두 젊은 꽃이었다. 김용실 군은 4276년 12월 17일 창원 진동에서 김기우 씨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마산중학을 거쳐 1학년 B반의 급장으로 있던 모범 학생이었다. 무학국민학교 앞에서 두부 관통상 총상을 입고 도립병원에 옮겨졌다가 그날 하오 10시 열일곱의 젊은 피는 한 알의 밀로 땅에 떨어졌다. 그리고 김영준 군은 4274년 12월 15일 신의주에서 김도하 씨의 3남으로 태어나서 홀어머니의 손으로 마산중학을 거쳐 금년 봄에 우리 학교를 졸업하였다. 시청 앞에서 총상을 입고 도립병원 냉동방에 버려졌다가 18일 하오 9시 열아홉의 젊은 피는 마침내 이 나라 민주 발전에 거룩한 거름이 되었다. 이제 민주 혁명이 이루어진 날 전체 학생과 동창회, 사친회가 정성을 모아 군들을 추념하여 여기 새기노니 굽어보는 함포만은 의혈이 스며 산호가 붉다.

단기 4293년 7월 15일 학생 일동과 동창회, 사친회, 교직원 일동은 삼가 세우고 교사 이순섭, 이훈경은 이 글을 짓고 쓰다.

그리고 서기 1992년 4월 19일 제19회, 제21회 동창 일동이 재건립하다.



새 추모비의 내용.

3·15의거 김영준·김용실 열사 추모 동산

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의 부정 선거에 항거하여, 3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를 전후하여 마산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이다. 대한민국 최초의 유혈 민주 항쟁인 이 의거는 4월혁명으로 발전해 이승만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3월 15일의 제1차 의거 때 경찰이 쏜 총탄에 아홉 명이 숨졌고 수많은 중·경상자가 속출하였다. 4월 11일, 김주열 님의 최루탄이 박힌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 떠오르자 11일~13일에 다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격노한 시민들은 마산고를 비롯한 8개 고교생들, 해인대(경남대 전신) 학생들과 함께 독재 정권 타도까지 외쳤으니, 이것이 혁명적인 제2차 3·15의거다.

두 차례 의거에 적극 참여한 마산고 학생들은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때 선배들이 보여준 항일·호국 정신을 이어받은, 불의와 독재에 눈감을 수 없는 피 끓는 젊은이들이었다. 제1차 의거에서, 갓 졸업식을 마친 김영준 님(19회)과 1학년 8반 급장 김용실 님(21회)이 산화하고 여러 명의 중상자가 나왔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 준다.

두 분 열사님이 가신 지 62돌이 되는 오늘, 우리는 님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모교 양지바른 자리에 새로이 추모 동산을 만들어, 꽃다운 젊음을 조국의 민주화와 맞바꾼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이를 영영 세세 전하고자 한다.

2022년 3월 15일, 마산고등학교·마산고등학교총동창회



흰 천에 가려 있는 추모비, 두 열사 흉상, 안내판.



제막 직전의 모습.



김정대(31회) 동문이 추모 동산을 소개하고 있다.



제갈선광(21회/오른쪽) 동문이 엠블럼을 설명하고 있다.



21회 동문들의 기념촬영.



행사 주최 측의 기념촬영.



19회 동기회 헌화(이종철 동문).



21회 동기회 헌화(박필근 동문).



박원철(33회/오른쪽 맨 앞) 총동창회장의 헌화.



임채현(39회) 마산고등학교장, 백지훈 마산고등학교학생회 부회장의 헌화.



주임환(뒷줄 오른쪽) 3·15의거기념사업회장의 헌화.



최형두(40회/오른쪽) 국회의원, 허성무 창원시장의 헌화.



박흥기 3·15의거무학초등학교총탄교문·담장복원추진위원장의 헌화.



이전의 추념비. 이번에 조성한 추모 동산 맞은편에 있었다. 당시 공간은 5평 남짓하였다.



임채환(39회) 교장이 새 추모 동산으로 조성될 곳의 예상되는 공간 정리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2021.10.22.



추모 동산 기초 공사.



이전 추념비를 옮기는 과정.



뒤에서 본 추모 동산.이전의 추념비 비문이 보이고 그 아래는 마산고 출신 3·15의거 국가유공자 열 두 분의 이름을 새긴 화강석 바닥돌 등으로 장식했다.



국가유공자 열두 분: 강대인·한경덕(이상 12회), 정현팔(15회), 김영준(19회), 김정세·박문달·박광규(이상 20회), 김용실·서기흥·송정명·김무신(이상 21회), 박광수(22회).



새 추모비와 흉상 제작을 위한 기초 설계도.



조용태 작가의 작업실에서.

■제61주년 3·15의거 기념 김용실·김영준 열사 추모식



2021년 3월 15일에 제61주년 3·15의거 기념일을 맞아 김용실·김영준 열사 추모식을 모교에서 조촐하게 가졌다. 박원철(33회/위 사진) 총동창회장과 김장희(32회) 3·15의거기념사업회장이 기념사와 축사를 하고 있다. 기념식을 마치고 관계자들은 교장실에 모여 추모 동산을 만들고 추모 책자를 발간하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 제62주년 3·15의거 기념식



2022년 3월 15일, 추모 동산 개원식(開園式)에 앞서 제62주년 3·15의거 기념식을 마산고등학교 강당에서 성대하게 가졌다.



박원철(33회) 총동창회장의 기념사. 박원철 회장은 김영준·김용실 열사 추모 동산 조성과 추모 책자 발간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최형두(40회) 국회의원의 추모사. 2021년 6월 29일에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3·15의거 특별법」)」이 국회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의거가 일어난 지 61년 만에 3·15의거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본격적인 진상 규명과 조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인 바로 최형두 동문이다.



임채환(39회) 마산고등학교 교장의 축사. 임채환 교장은 기존의 추모비를 옮기는 일, 새로운 추모 동산을 만들기 위한 기반 조성 공사 등에 혼신의 힘을 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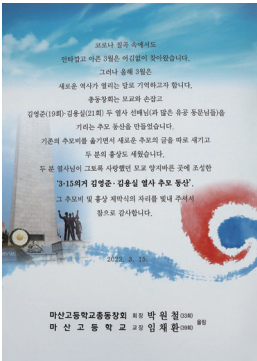
정영순 시인의 추도시 '동백으로 피는 3·15' 낭송(왼쪽부터 지미자 시 낭송가, 정영순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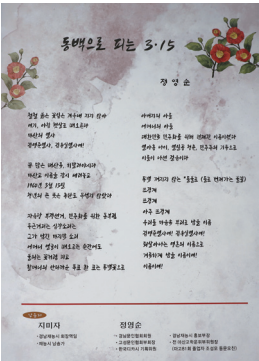
이날 기념식은 개식사, 국민익례, 경과보고, 내빈 소개, 추도 시 낭송, 기념사·추도사·축사, 3·15 의거 기념 노래 제창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허성무 창원시장, 박성원 마산시의원, 주임환 3·15의거기념사업회장, 박흥기 무학초등학교총장교문·담장복원추진위원장, 김영달 3·15의거희생자유족회 사무국장, 조용태 작가, 정영순 시인, 지미자 시 낭송가 등 내빈, 19회·21회 동문들을 비롯한 다수의 동문들(재경·재부 동창 회원 포함), 모교 재직 교사 및 재학생 등 모두 200여 명이 참석하여 뜻깊게 기념식을 진행하였다.



‘3·15의거 김영준·김용실 열사 추모 동산’ 추모비 및 두 열사 흉상 제막식 안내 리플릿 표지.



리플릿 속의 박원철 총동창회장님과 임채환 교장의 공동 초대사.



리플릿 속의 정영순 시인이 쓴 조시(弔詩) ‘동백으로 피는 3·15’.

■ 편찬위원회 개최(네 차례) 및 증언 듣기(여섯 차례)



제1차 편찬위원회 개최(2021.07.06., 총동창회 사무국), 5명의 편찬위원과 김장희(32회) 3·15의거기념사업회장, 박원철(33회) 총동창회장, 임채환(39회) 마산고등학교장이 함께 참석하였다.



제1차 증언 듣기(2021.10.01., 총동창회 사무국), 21회 김형철·배종길·제갈선광·조남규 동문들로부터 소중한 증언을 들었다. 특히, 같은 집에 살았던 김형철(오른쪽 첫 번째) 동문으로부터 김영준 열사 관련 증언을 들은 것은 아주 큰 수확이었다.



제2차 편찬위원회 개최(2021.12.21., 총동창회 사무국). 초고를 검토하며 앞으로의 일정을 논의하였다. 김장희 회장, 박원철 회장, 임채환 교장도 자리를 함께하였다.



제2차 증언 듣기(2021.10.27., 총동창회 사무국). 21회 박종근 동문(오른쪽 뒤에서 두 번째)으로부터 의사촌 동생 되는 김용실 열사에 대한 소중한 증언을 들은 것은 무엇보다 큰 수확이었다.



제3차 편찬위원회 개최(2022.04.26., 총동창회 사무국). 이날 회의에는 출판사 측 관계자 3명(오른쪽)도 참석하여 출판 관련 논의도 하였다.



제4차 증언 듣기(2021.11.12., 총동창회 사무국). 19회 홍중조 동문(왼쪽 첫 번째)과 3·15의거 당시 도립마산의료원 간호사였던 정성자 님(오른쪽 두 번째)으로부터 소중한 증언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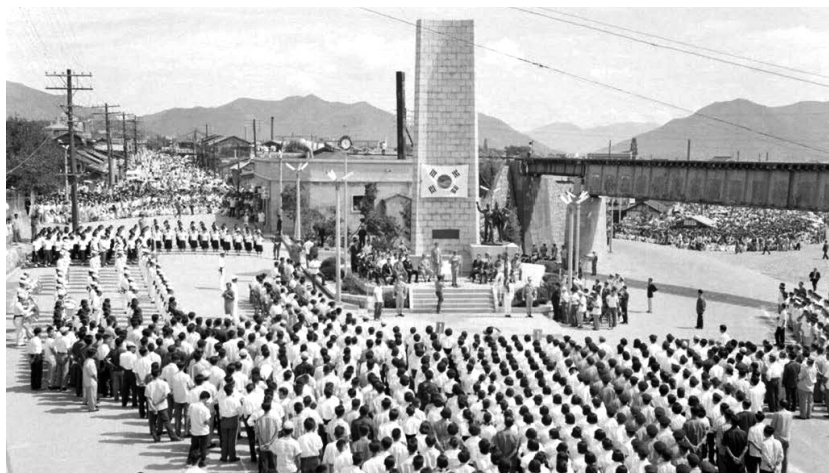
■ 3·15의거 기념탑



1962년 7월 10일에 세워지고 9월 20일에 준공식을 가진 3·15의거 기념탑 및 거기에 새겨진 글.

“저마다 뜨거운 가슴으로 민주의 깃발을 올리던 그날 1960년 3월 15일! 더러는 독재의 총알에 꽃이슬이 되고 더러는 불구의 몸이 되었으나 우리들은 다하여 싸웠고 또한 싸워서 이겼다. 보라, 우리 모두 손잡고 외치던 의거의 거리에 우뚝 솟은 마산의 얼을. 이 고장 3월에 빛발친 자유와 민권의 존엄이 여기 영글었도다.”

*빛발치다: 빛발이 눈부시게 뽀뽀하다.



3·15의거 기념탑 준공식(1962.09.20)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3·15의거 기념탑 준공식을 갖고 있다.

/국가기록원/

■ 3·15의거 기념회관



1962년 3·15의거기념사업추진회가 3·15의거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산시 신포동 2가 48-2번지에, 대지 495평, 연건평 382평 규모로 신축에 들어가 1963년에 완공한 건물이 3·15의거 기념회관이다. 그러나 1965년 이후에는 극장으로 임대되어 용도가 바뀌어 버렸다. 2층으로 된 시멘트 건물의 앞쪽은 세모꼴로 된 12개의 기둥이 건물을 받치고 있는 특이한 모양으로 건축되었다. 12는 3·15의거 때 희생된 열두 분 열사를 상징한다. 건물이 낙후되어 1990년대 말에 헐리었다. /양해광/

■ 3·15아트센터



3·15 의거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 7월 8일에 착공하여 2008년 5월 20일에 개관한 문화 예술 공연장이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2동, 창원NC파크와 MBC경남 인근에 위치해 있다.

■국립3·15민주묘지



3·15의거 때 희생된 영령들의 넋이 잠든 곳이다. 1967년에 당시 마산시 구암동 아산에 소규모로 조성되었으나,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1998년 3월에 대규모 면적을 확보하여 본격적인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여 2003년 3월에 준공식을 가졌다. 사진은 국립3·15민주묘지에 들어선 '민주의 문'과 그 상징 조형물인 '정의의 상'.



저 뒤로 유영(遺影) 봉안소가 보이는 제단. 제단 앞 조각 등으로 조성된 벽이 '정의의 벽'이다. 가운데 조각이 없는 벽에 흠터처럼 남은 것은 1960년 3월 15일 경찰이 시위 군중을 향해 무자비하게 쏜 총탄 자국을 형상화한 것이다. 실제로 이 자국은 한동안 무학초등학교 담장에 남아 있었다.



국립3·15민주묘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유영 봉안소. 봉안소에는 3·15의거 희생자 열두 분의 영정과 위패를 비롯하여 많은 유공자의 영정과 위패가 모셔져 있다.



유영 봉안소 안 김용실 열사의 영정과 위패.



유영 봉안소 안 김영준 열사의 영정과 위패.



열사들의 묘, 유영 봉안소 아래 중앙 계단 좌우로 조성되어 있다. 12열사는 맨 아래쪽에 위치한 묘역 왼쪽에서부터 조성되어 있고, 김용실·김영준 열사의 묘도 이 구역에 있다.



김용실 열사의 묘, 작은 사진은 비석에 부착된 고교 때의 사진.



김영준 열사의 묘, 작은 사진은 비석에 부착된 고교 때의 사진.

■ 3·15의거 관련 사진들 / 3·15의거기념사업회/



김무신(21회) 동문이 이마 위를 스치는 총상을 입은 채 고문을 당하는 모습. 맨 앞줄 오른쪽 머리에 붕대를 맨 사람.



총상을 입고 체포된 뒤 모진 고문을 당한 김무신 동문이 국회 조사단 앞에서 증언을 하고 있다.



1960년 4월 12일 마산에서는 8개 고교 연합 시위가 있었다. 마산고등학교 학생들의 시위 장면.



마산경찰서 담장에 올라가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는 마산고등학교 학생 대표 박문달(20회) 동문.



학생회장을 맡고 있던 박문달(맨 오른쪽) 동문이 국회조사단 앞에서 증언을 하고 있다.



1960년 3월 15일 밤에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는 치열한 공방전이 있었다. 무학초등학교 담벽에는 경찰이 실탄 발사를 했다는 숨길 수 없는 증거들이 남았다.



1960년 6월 4일, 마산상업고등학교(현 용마고)에서 마산의거 희생자 합동 위령제가 열렸다.



위령제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참석하여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1961년 3월 15일, 마산고등학교에서 3·15의거 제1주년 추도제가 열렸다.



3·15의거 제1주년 추도제에는 5만의 시민이 운집했다고 당시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추도제에서 장면 국무총리가 추도사를 읽고 있다.



추도식에 참석하여 오열하는 유족들. 맨 왼쪽이 김용실 열사의 할머니, 그 다음이 김주열 열사의 어머니 권찬주 님.



학생들을 대표하여 마산고등학교 3학년 이실(21회) 동문이 추도사를 낭독하고 있다.



세계 최대 통신사 AP통신에 의해 1961년 3월 15일 보도된, 마산고등학교에서 거행된 3·15의거 1주년 추도제 사진. 여학생들이 열두 열사의 사진을 들고 입장하고 있다. 이 사진은 국내에서는 여태껏 알려지지 않았다.

/사진 발굴: 박영주, 사진 제공: 3·15의거기념사업회/

■ 김용실 열사 가족사진 /김옥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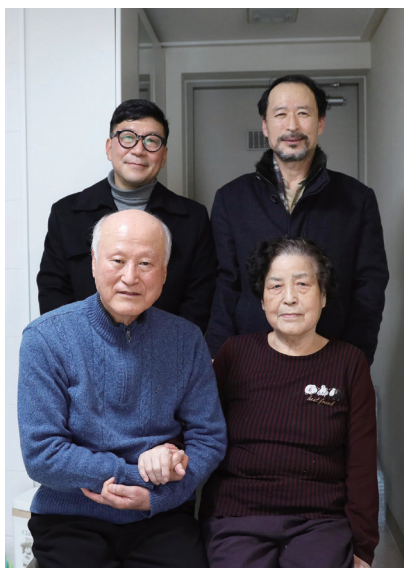
김용실 열사(뒷줄 맨 왼쪽)의 마산중학교 1학년 때의 모습. 시계 방향으로 가정교사 이상오(마산 중 6회), 큰누나, 둘째누나, 어머니, 막내 김영실(마산고 34회).



김용실 열사의 가족. 앞은 할머니, 뒷줄 왼쪽부터 큰누님 김옥주 님, 어머니 이명선 님, 아버지 김기우 님, 추산동(통영) 막내 고모님.



어머니 이명선 님.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정 의로운 여장부였다.”라는 평가를 받은 분이였다.



큰누님 김옥주 님의 증언을 듣고(2022.02.23., 울산). 앞줄 오른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김옥주 님, 제갈선광(21회) 동문, 최영찬(44회) 동문, 김정대(31회) 동문.

■ 김영준 열사 가족사진 /김옥주/



김영준 열사의 둘째형님 김영필 님과 김용실 열사의 큰누님 김옥주 님은 1960년 10월 16일에 혼인하여 부부가 되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장남 김익재(마산고 39회)와 함께한 김영필-김옥주 부부.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와 양가 부모님. 신랑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 그 자리는 어머니 주경옥 님의 양아드님이 대신했다.



김영준 열사의 어머니 주경옥 님의 회갑잔치(부산). 왼쪽부터 김옥주 님, 김영필 님, 어머니, 양아드님 내외, 어린아이는 큰손자 김익재, 작은손자 김정록(가운데).

마산고등학교, 1960년 3월 15일

김용실 · 김영준 열사를 재발견하다

머리말

제1장



김용실·김영준 열사를 재발견하다

제1장

머리말

1960년 3월 15일은 우리나라 제4대 대통령과 제5대 부통령을 뽑는 선거 날이었다. 당시 집권당이던 자유당은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래로 이승만은 줄곧 대통령 자리를 유지해 왔지만, 해가 거듭할수록 그가 국민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평가가, 대통령이 소수 권력자들 속에 묻혀 국민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점점 독재자의 길로 걸어갔기 때문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었다. 그렇다고 한 번 맞본 권력을 내려놓을 생각은 그들에게 털끝만큼도 없었다. 그리하여 자유당 관계자들은 자기들의 계속적인 권력 유지를 위해, 불법적이고 부정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3월 15일 선거에서 이길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당시 자유당 입장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은 민주당 후보 조병옥의 서거로 당선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었던 반면, 85세 노령의 이승만 대통령 유고시 차기 대통령이 될 부통령에 이기붕을 당선시켜야 할 절대적인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이기붕의 당선은 전혀 낙관할 수 없는 상태였기에 그 동안의 부정 선

거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수법을 총동원하게 되었다. 우리 현대사에 큰 오점으로 남게 된 ‘3·15 부정 선거’는 이렇게 해서 태동된 것이었다.

『마산고등학교, 1960년 3월 15일』은 이러한 3·15 부정 선거를 전제로 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날 우리나라 곳곳에서는 부정 선거를 규탄하는 많은 시위가 일어났고, 선거 이전부터도 그런 움직임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시간을 두고 많은 곳에서 시위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산을 제외한 어느 곳에서도 피를 흘리면서까지 부정 선거에 항거하는 일은 없었다. 3월 15일 하루에 유독 마산에서만 9명의 사망 희생자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부상자가 생긴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²⁾ 그때 마산고등학교에서는 2명의 학생이 산화하고 십수 명의 학생이 중경상을 입거나 경찰에 붙잡혀 모진 고문을 당하는 아픔을 겪었다. 이 수치(數値)는 당시 마산의 어떤 고등학교 학생 희생자들보다 월등히 많은 것이었다. 마산에 다른 많은 고등학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마산고등학교 학생들의 희생자가 많았다는 것은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이 책자를 펴내는 가장 큰 목적은 1960년 3월 15일에 산화한 김용실(21회) 열사와 김영준(19회) 열사를 재조명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재조명’이라는 용어를 쓰는 데는 까닭이 있다. 3·15의거라고 하면 사람들이 김주열 열사만을 떠올리는 바람에, 실제로 부정 선거에 온 몸으로 맞섰던 김용실·김영준 열사가 묻혀 버렸기 때문이다.³⁾ 특히, 김용실 열사의 활약상을 보면, 그는 3·15의거 때 산화한 꽃 중에서도 장미꽃이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제3장 참조).

2) 뒤에서 보게 되겠지만, 제2차 3·15의거까지 합치면 사망자는 12명에 이른다.

3) 부정 선거에 온 몸으로 맞선 것은 다른 열사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들 역시 김주열 열사에 묻혀 버렸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 책자 편찬의 두 번째 목적은, 3월 15일 제1차 의거에서 부정 선거를 규탄했을 뿐만 아니라, 4월 11일~13일의 제2차 의거에서는 독재 정권 타도라는 혁명적 항거에 가담한 많은 마산고등학교 투사들의 면면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김주열 열사의 그늘에 가려 다른 사망 희생자들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마당에, 부상자나 부상은 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거에 깊이 관여한 공로자들의 활약상이 어떻게 알려질 수 있었겠는가. 사망자이든 부상자이든 다른 모든 희생자들도 김주열 열사만큼 널리, 그리고 제대로 알려져야 한다는 신념으로 우리가 이 책자를 준비했다는 점을 강조해 두고 싶다.

『마산고등학교, 1960년 3월 15일』의 본문은 모두 네 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제2장 ‘혁명적 3·15의거의 사회·역사적 배경’(정성기 집필)은 3·15의거가 일어난 사회적 배경과 역사적 배경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이다. 이 부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글의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3·15의거를 ‘혁명’이라고 표현했다는 점이다. 김영삼 문민정부가 수립된 이후 마산의 3·15의거는 대구 2·28민주운동, 대전 3·8민주의거 등과 함께 ‘의거’로 불리고, 4월 19일을 전후하여 서울에서 일어난 독재 타도 항거는 4·19혁명처럼 ‘혁명’으로 불린다.⁴⁾ 어떠한 것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을 ‘혁명’이라고 하는데, 3·15의거 중 제2차 의거는 “부정 선거 다시 하자.”를 넘어 “리 대통령은 물러가라.”라는 정권 타도까지 외쳤으니, 이것은 곧 혁명의 범주에 드는 것이다.

3·15의거가 일어난 1960년은 우리나라가 일체의 굴레에서 벗어난 지 15년

4) 제6장 ‘맺음말’에서 보는 바와 같이, ‘4·19혁명’이라는 용어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하나는 서울에서 일어난 항거만을 뜻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구 2·28, 대전 3·8, 마산 3·15, 서울 4·19 등 1960년 봄에 일어난 일체의 항거를 뜻하는 것이다.

이 되는 해이고, 민족상잔의 6·25전쟁이 끝난 지 불과 7년밖에 되지 않은 해였다. 그런 나라에서 아래로부터의 유혈 항쟁이 일어난 원인을 필자는 다음과 같이 보았다. 우리에게는 5천 년 긴 역사의 고비마다 구국/의병 정신이 있었고, 일제강점기 때는 그들과 맞서 싸운 독립 정신이 있었는데, 그런 정신이 부정 선거를 자행하는 집권당의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도록 했다는 것이다. 당시 마산은 인구 15만여 명의 중소도시였다. 그때까지 다른 대도시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던 유혈 항거가 왜 이 작은 도시에서 일어나 12명의 사망자와 수많은 부상자들을 내게 했던 것일까? 바다를 끼고 있는 마산이 진취적인 고장이었다는 사실, 자신을 뽑아 준 지역민들을 배신한 정치인이 있었다는 점, 자유당 정권의 힘을 믿고 지역사회의 경제 대의를 어지럽힌 사람이 군림했다는 것, 거기에 더하여 자유당이 노골적으로 부정 선거를 획책하고 있다는 정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하늘을 찌르고도 남을 의로운 항쟁이 이곳에서 일어났다고 필자는 분석하고 있다.

제3장 ‘동량지재(棟梁之材), 민주 발전의 초석 되다: 김용실 열사편’(김정대 집필)은 김용실 열사의 일대기를 다룬 글이다. 글의 서두에서부터 필자는 “당시 마산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그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3·15 부정 선거를 규탄하다 그날 밤 10시 무렵 경찰이 쏜 총을 맞고 산화하였다.”라고 강조한다. 여기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그가 ‘확고한 신념’을 갖고 의거의 현장으로 뛰어들었다는 대목이다. 김용실 열사를 알고 연구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그는 3·15의거에서 산화한 꽃 중에서도 장미꽃이었다고. 그것은 “명량하며 착실 온건한 성품과 우수한 두뇌와 탁월한 지휘력으로 급장의 소임을 충분히 발휘하였고 운동선수로서의 단련된 심신은 희생심과 정의감이 강하였”다고 기재한 마산고등학교 생활기록부의 증언처럼, 그가 일시적인 충동이

나 호기심 등으로 의거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하고 의거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제3장의 글은 친구·선배·가족 등 주변 사람들과 여섯 차례에 걸친 증언 듣기를 통해 재구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관련하여 기존에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 김용실 열사가 부정 선거에 항의하는 시위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선거 당일 할머니(제갈련)의 투표용지가 나오지 않아 항의 차 동사무소를 찾았는데, 누군가가 그 투표권을 사전에 행사했음을 알고 크게 분노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마산고 일부 동기들은 알고 있었지만, 이번 증언 듣기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임을 이 글은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그가 의거에 동참하기 이전에 미리 친인척 집을 돌며 일일이 ‘작별 인사’를 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이번 증언 듣기를 통해 처음으로 밝혀진 것이어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김용실 열사에 얹힌 많은 얘기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읽을거리로 다가온다 하겠다.

제4장 ‘청운의 꿈은 허공의 메아리가 되었지만: 김영준 열사편’(안형호 집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나 다름없는 글이다. 그동안 김영준 열사에 대한 이야기는 지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다. 그가 마산고등학교 3학년으로서 졸업식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산화하였다는 점, 사망 지점이 신마산 장군동 다리 근처라는 점, 사망 원인은 경찰이 쏜 총이 하복부를 관통했기 때문이라는 점, 운명의 그날 밤에 바로 절명하지 않고 사흘 뒤에 도립마산병원에서 유명을 달리했는데 제대로 치료만 받았더라면 살 수도 있었다는 점, 평안북도 신의주가 고향으로 월남했지만 가계(家系)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는 점, 잘 생기고 머리 좋고 평소 말이 없었다는 점 정도만이 알려졌을 뿐

이다.

그런데 필자는 그의 가계를 정밀하게 추적하여 아버지(김도하)의 사망 연도, 어머니(주경옥)에게 양아들 부부가 여러 쌍 있었다는 사실, 그동안 거의 알려진 바가 없는 큰형님(김영식)이 조선경비사관학교(육군사관학교의 전신) 제5기였을 것이라는 점, 작은형님(김영필)의 생몰연대를 포함하여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을 밝혀내었다. 이것은 김영준 열사의 작은형님과 김용실 열사의 큰누님(김옥주)이 혼인을 하였고, 김옥주 님이 울산에서 아직 생존해 있어 여러 가지 증언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음을 필자는 밝히고 있다. 그리고 김영준 열사와 장군동 같은 집에 세 들어 살았다는 후배(21회 김형철)의 증언도 제4장 기술을 훨씬 다채롭게, 그리고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증언 듣기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면서, 더 많은 증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빈다. 왜냐하면, 1960년 그날을 증언해 주실 분들은 모두 고령이어서 무한정 시간을 기다릴 수 없기 때문이다.⁵⁾

제5장 ‘마산고 학생들의 3·15의거 참가기’(서익진 집필)는 사망자는 아니지만, 제1차 3·15의거와 제2차 3·15의거에 참가한 당시 마산고 학생 7명의 활약상을 생동감 있게 그린 것이다. 먼저, 다른 학교 학생들과 달리 마산고 학생들이 왜 그렇게 많이 열성적으로 의거에 참가하게 되었는지를 마산고 역사와 관련짓고 있는데, 이것은 제2장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다음에 제1차 의거에서의 투쟁 과정을 시간 순서로 추적한 뒤, 체포된 투사들의 고문 투쟁을 밝히고, 그런 연후 제2차 의거에서 마산고 학생 단체 시위 전개 과정을 살펴보았다. 맨 마지막에 이 과정에서 열사 가족과 투사들이

5) 이 점은 나머지 열사들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겪었던 일들을 정리해 놓았는데, 전개 과정이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 박진감이 있다.

제5장의 필자는 강조한다. 여기에 기술된 글은 기존 자료들에서 이미 밝혀진 사실들과 새로운 증언들을 바탕으로 스토리가 시공적으로 최대한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재구성하고자 노력한 것이지, 스스로 덧붙인 것은 없다고. 여기에는 21회 김무신 동문의 활약상이 두드러지게 부각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가 당시 겪었고 생각했던 바를 일기로 남겨 두었기 때문이다.⁶⁾ 기록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절감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나머지 투사들은 김정세(20회), 박광규(20회), 박문달(20회), 서기홍(21회), 송정명(21회), 황의신(21회)이다. 이들이 3·15의거에 참여하게 된 까닭을 가정 사정과 세상에 대한 불만, 대구 2·28 학생 시위 등 다른 지역 학생 시위로부터 받은 자극, 학교의 부당한 대응, 노골적인 부정 선거와 같은 네 가지로 꼽고 있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의 끝에서 필자가 열사나 투사들이 재학한 개별 학교별로 3·15의거 참가기가 나올 때 정사로서의 3·15의거사의 역사적 리얼리티가 더욱 풍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점도 주목할 대목이라 하겠다.

이 책에는 적지 않은 사진들이 실려 있다. 사진의 출처에 대해 별도의 설명이 없는 것은 편찬위원회에서 직접 찍었거나 발굴한 것이지만, 나머지 역사적 사진들은 몇 군데의 도움을 받았던 것이기에 여기에 그 점을 밝혀 두고 감사의 뜻을 표한다. 3·15의거 당시의 사진은 3·15의거기념사업회로부터 절대

6) 이 일기를 바탕으로 하여 나온 책자가 19회 홍중조 동문이 엮은 『김무신, 그 불꽃같은 삶』(2014, 불휘미디어)이다.

적 도움을 받았다. 이 사업회에서 펴낸 『3·15의거 사진집』(2010)에 실린 사진을 재촬영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던 것이다. 일부 사진은 마산문화원에서 보관하고 있던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창원향토자료전시관 양해광 관장으로 부터 입수할 수 있었다. 양해광 관장은 직접 찍은 몇몇 소중한 사진을 제공해 주시기도 했다. 서문당의 게재 허락을 받고 이 출판사에서 펴낸 『사진으로 보는 독립운동(상/하)』(1992)에서 재촬영한 일부 사진도 있다. 또 지나간 시절의 신문은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와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했음을 밝혀 둔다.

모교 총동창회 박원철(33회) 회장의 물심양면 협조에는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 모교에 임채환(39회) 동문이 제35대 학교장으로 부임하여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음도 미리 밝혀 둔다. 증언 등으로 소중한 도움을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은 ‘발문’으로 미룬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단체)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전한다.

마산고등학교, 1960년 3월 15일

김용실 · 김영준 열사를 재발견하다

혁명적 3·15의거의 사회·역사적 배경

제2장



김용실·김영준 열사를 재발견하다

혁명적 3·15의거의 사회·역사적 배경

1. 왜, 한국-마산에서 민주 혁명이 일어났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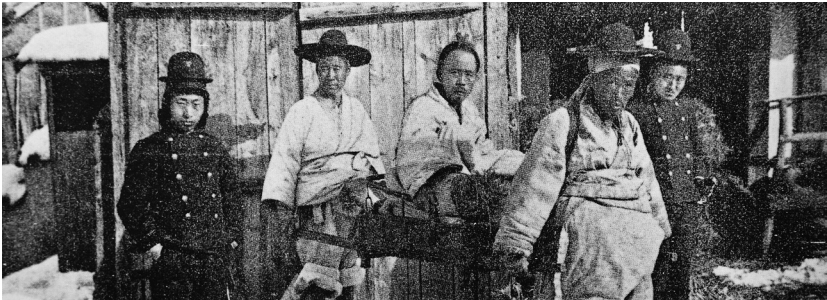
1960년 마산 중심의 3·15의거와 서울 중심의 4·19혁명은 현재 모두 국가 기념일로 되어 있다. 대구의 2·28민주운동, 대전의 3·8민주의거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4·19혁명’이라는 용어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어 상당히 혼란스럽다. ‘4·19혁명’이 대구 2·28민주운동, 대전 3·8민주의거, 마산 3·15의거와 서울 중심의 4·19혁명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4월 19일을 전후하여 서울에서 일어난 사건만을 가리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두 달여에 걸쳐 전국적인 민주 혁명 과정을 일컫는 용어로, 마치 서울에서 일어난 4월 19일 하루의 사건을 가리킨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4·19혁명’을 쓴다는 것은 분명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전체를 제대로 포괄하는 그 당시의 이름은 그나마 ‘4월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마산의 ‘3·15의거’도 4·19혁명보다 격이 낮은 것이 아니고, ‘4·19혁명의 도화선’도 아니며, 그 자체로서 3월 15일의 1차 의거, 4월 11~13일의 2차 의거를 아우르는 ‘정의로운 혁명’이요, ‘4월혁명의 몸통’인 것이다.

이러한 한국의 4월혁명, 그 중심에 있는 3·15의거라는 사회·역사적 사건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전 세계에서 그 유례가 드문 것이다. 3·15의거는 전후 아시아 민주화의 서막으로, 이후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의 정신으로, 마르지 않는 민주화 정신의 원천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많은 나라 사람들이 공산 독재 아래 신음하거나 공산 독재가 아니라도 종교적 독재, 혹은 군사적 지배 아래 신음하며 저항 투쟁을 벌이는 나라들이 많은 것을 보면 그 의미가 새삼 새롭다 하지 않을 수 없다.

1960년은 세계적으로 2차 대전이 끝난 지 15년, 일본 제국주의 강제 점령에서 해방된 지 15년이 되던 해다. 그런데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는 바람에, 한국과 북한에는 별개의 국가(정부)가 수립되고 말았다. 그 이후 6·25전쟁까지 치르고 1953년 휴전 협정을 맺은 지 불과 7년 후가 바로 1960년이다. 이러한 전후의 폐허와 절대적 빈곤 속에서 어떻게 신생 독립국들 중 유례가 없는 정치적 변혁, 즉 청년 학생들을 비롯하여 많은 시민들이 목숨까지 바치며 주도적으로 나선 거대한 반독재 민주 혁명이 일어나 성공했을까?

당시 한국은 전 세계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국가였다. 우리 스스로는 세계적으로 드물게 5천 년 역사를 가진 ‘단일 민족 국가’라 했지만 외국인들은 아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알아도 기껏해야 한국전쟁이 일어난 나라로만 알려져 있던 나라가 한국이었다. ‘코리아’라면 남한(South Korea)인지 북한(North Korea)인지 구분도 잘 안 되던 때였다. 한국을 좀 더 아는 어느 선진국 언론인이 사회주의가 아닌 남한인데, 전후의 정치적 부정부패와 독재 양상을 보면서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꽃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라는 조롱을 하던 상황이었다. 그런 점에서 1960년 한국에서 소외된 다수 주권자, 민중이 일으킨 아래로부터의 혁명은 더욱 더 놀라운 것이었다. 한국 내부의 역사를 보더라도 500년 조

선 왕조의 말기 ‘동학 혁명’의 실패를 생각해 보면 4월혁명은 수천 년 유례를 찾기 힘든 혁명적 거사라 할 수 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는가? 다양한 한류 붐 속에서 K-pop, K-food 등을 넘어서 정치·경제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면, 이 질문 또한 점점 많은 세계인들의 질문이 될 것이다.



〈그림-1〉 동학 혁명의 실패로 전봉준이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고 있다.

1894년 2월 15일, 전라도 고부군민들은 군수 조병갑의 탐욕이 많고 포악함에 항거, 동학 접주 전봉준(全琫準, 1854~1895)의 영도하에 항쟁을 시작했으나 끝내 실패하였다. 사진은 1894년 12월 28일에 전봉준(가운데)이 전라도 순창에서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는 장면이다. 그는 다음해 4월 23일, 목을 베어 높은 곳에 매다는 형벌인 효수형(梟首刑)에 처해졌다. /『사진으로 보는 독립운동, 상』, 서문당, 1992, 30쪽 참조/

또 다른 의문은 한국 사회 내부에서 왜, 어떻게 대도시 서울·부산 등이 아닌 마산에서 4월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승만 정권의 독재적 양상과 부정부패, 그리고 이에 대한 처벌을 피하고 정치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부정 선거는 전국적 현상이었다. 알려진 대로, 1960년 3월 15일의 대통령, 부통령 선거를 앞둔 각 정당들의 유세 과정에서 여당 후보 승리를 위해 이승만 정권의 부당한 선거 개입, 사전 부정 선거 소문은 광범위했다. 그리고 2월 28일 대구, 3월 8일 대전에서 학생들 중심의 시위가 일어났지만, 3월 15일 당일에는 그리 심각한 움직임이 없었다. 그런데 왜 마산에서 전국 처음으로 대표적 야당인 민주당 마산지구당이 ‘부정 선거 무효’라 과감하

게 선언하며 공공연히 가두시위를 벌였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에 호응하여 마산고를 비롯한 여러 고등학교 남녀 학생들까지 대거 시위에 참여하였으며, 이 시위대를 향하여 경찰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총까지 쏘아 이 나라 최초의 ‘유혈 민주화 운동’이 되었는가? 마산고 재학생 김용실·김영준 군은 총격에 의해 사망하였으며, 마산상고 입학 앞둔 김주열 군은 행방불명이 되었다가 거의 한 달이 지난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참혹한 시체로 발견되고 이 모습이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언론에 대대적으로 알려졌다. 4월 11일에서 13일까지 ‘3·15 2차 의거’는 경찰이 김주열을 총기로 쏘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최루탄이 눈에 박힌 참혹한 시신을 숨기기 위해서 바다에 빠뜨렸다는 것이 드러난 이상, 마산의 더 많은 고교생들이 분기탱천하여 조직적으로 일어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저항은 나의 죽음을 각오해야 하니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을까?



〈그림-2〉 1960년대 마산 전경

1960년 3월 15일은 당시 집권당이던 자유당에 의해 전국적으로 부정 선거가 자행된 날이었다. 다른 곳에서는 그러지 않았는데, 왜 인구 15만여 명의 중소도시 마산에서 12명의 사망자와 수많은 부상자들이 속출하는 유혈 항쟁이 일어난 것일까? 바다를 끼고 있는 마산이 진취적인 고장이었다는 사실, 자신을 뽑아 준 지역민들을 배신한 정치인이 있었다는 점, 자유당 정권의 힘을 믿고 지역사회의 정치·경제 대의를 어지럽힌 사람이 군림했다는 것, 거기에 더하여 자유당이 노골적으로 부정 선거를 획책하고 있다는 정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하늘을 찌르고도 남을 의로운 항쟁이 이곳에서 일어났던 것이다. /마산문화원[강신률]/

이런 크고 작은 의문들을 갖고 한국 역사 최초의 전국적인 4월 민주혁명에 대하여, 그 속의 마산 3·15의거에 대하여, 마산고등학교를 염두에 두면서 그 배경부터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기로 한다.

2. 1960년 봄 민주혁명

3·15의거 당시 어른들과 청년들은 어떤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 왔을까, 이런 의문부터 갖고 시작해 보자. 당시 10대 중후반의 중학생, 고교생들은 대체로 일제강점기 말기에 태어나 해방 전후의 혼란과 분단 시기, 한국전쟁과 휴전이라는 엄청난 격동기를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에 겪은 세대이며, 그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3월 15일 오동동 거리에서 이 선거를 부정 선거라고 용기 있게 선언하고 거리 시위에 최초로 나선 야당-민주당 사람들은 고교생들의 부모 세대로서 당시 40~50대 전후다. 이들은 1910~1920년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식민지 시기 36년을 모두 겪었고, 해방의 감격, 6·25전쟁의 참상을 경험했으며, 휴전 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지키고 체험해 온 사람들이다. 당시 전 국민들로부터 국부(國父), 나라의 어버이라 존경받다가 4월혁명으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 미국으로 망명해야 했던 이승만 대통령(1875~1965)과 주변 사람들, 그리고 당시 고교생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조선 말기 19세기 말에 태어나 망국의 설움부터 파란만장한 시대를 겪어 온 세대다.

3·15의거 당시의 한국 사회를 이해하려면 19세기 말에 태어나 자녀, 손녀와 함께 살아가는 이 삼대가 겪어 온 사회·역사적 사건들, 삶의 조건들, 사고방식, 가치관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한다. 여기다가 그 세월 동안 다양한

주변국들과의 관계, 국제적 사정도 알아야 한다. 한국사, 세계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많은 사건들이 책 속의 글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조부모, 부모들이 직접 겪은 일본 제국주의의 강제 점령, 해방과 남북 분단, 전쟁과 휴전, 전후의 이승만 정부의 부패한 독재 등이 4월혁명, 마산 3·15의거의 생생한 배경이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거칠게나마 당시 고교생들의 조부모들이 살아온 시대, 19세기 말 이후 1960년까지 한국의 근·현대사, 부분적으로 그 속의 마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조선의 봉건사회가 근대화되는 기점을 흔히 1876년 한·일 간에 성립한 강화도 조약과 이로 인한 부산, 인천 등의 국제적 개항을 꼽는다. 마산은 대한제국 시절 1899년에 국제항으로 개항되었다.(그래서 최근 2019년에 개항 120주년 행사를 가졌다.) 이 무렵에 강대국들은 서로 조선을 삼키려 하고, 조선 내부의 부패한 지배 권력은 친러시아파, 친중국파로, 더러는 친미국파, 친일본파 등으로 나뉘어서 생존을 구하면서 나라의 운명을 두고 서로 싸웠다. 그 와중에 내부 권력과 외세의 수탈에 시달리던 민중이 동학농민전쟁을 일으켰으나 패배하고 상당수 민중은 의병이 되었다.(이 시대를 배경으로 한 대표적 한류 드라마가 ‘미스터 셀샤인’이다.) 동학농민전쟁을 진압하기 위해서 중국(청나라)과 일본이 조선에 와서 서로 전쟁하여 일본이 이겼다. 이후 한반도의 전략적 중심지인 마산항, 진해항을 차지하기 위해 러시아, 일본, 영국 등이 경쟁하다가 영국,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일본이 거대 러시아에 승리한 이후 조선은 일본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다.(지금도 신마산 댕거리에는 러시아와 일본 영사관 터가 남아 있다. 진해에는 일본의 러일전쟁 승전을 기념하는 흔적이 있다.) 이 무렵, 조선 땅에서 살기 힘든 민중과 우국충정에 넘치는 일부의 선비들과 청년 시절의 이승만, 김구, 안창호 등은 미국, 중국 등으로 가서 항일운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림-3〉 1900년대 마산항 전경

천혜의 양항인 마산항을 끼고 있는 관계로 마산은 구한말 열강들, 특히 러시아와 일본의 각축장이었다. 부동항을 원하는 러시아와 대륙 진출을 꿈꾸는 일본으로서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갖춘 곳을 발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러일전쟁의 승리로 한반도를 사실상 지배하기 시작한 일본은 마산에 일본식 관공서와 중요 저택을 짓기 시작하였다. /일제강점기 마산 관련 엽서/

36년간의 일제강점기에 많은 조선인들이 만주, 러시아, 미주 등으로 이주한 반면에 많은 일본인들은 조선, 만주 등으로 이주하여 이 지역을 지배하였다. 일본 지배 권력은 조선의 기존 땅 주인들을 자기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토지 소유권을 인정해 주고, 한편으로는 일본 자본이 들어와 자신의 이익에 맞게 조선을 산업화, 도시화하면서 조선 민중을 수탈했다. 조선의 쌀을 싼 값으로 마산, 목포, 군산 등의 항구를 통해서 반출해 가고, 조선인을 속임수나 강제 징용으로 끌고 가 착취했다. 조선에 들어 온 일본인들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 서양식 학교를 세우고, 조선인들은 따로 학교를 세웠다. 3·1운동 이후 한동안 유화 정책을 펴던 일본이 나중에는 조선인의 말을 빼앗고, 역사 조작으로 조선인의 혼을 말살하여 자발적으로 일본의 정신적 노예가 되게 만들려고 했다.

그런데 조선말조차 못하게 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수탈당하며 일본이 만

든 법에 대한 복종이 강요되는 가운데, 목숨을 걸고 조선말 사전을 만들어 조선의 혼을 지키는 운동이 있었고, 항일 학생 운동, 농민·노동자 운동이 도처에서 일어났다. 마산은 대표적인 항일 운동의 거점이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에서 해외 독립 운동이 끈질기게 이어졌고, 그 중에는 미래 독립 조선의 전망을 놓고 엇갈리는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었다. 일본은 조선의 독립 운동을 혹독하게 탄압하면서, 만주 너머 중국 대륙까지 지배하려 했다. 이를 미국이 견제하자 일본은 마침내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폭격하여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더니 결국은 독일에 뒤이어 패전을 맞이했다.

패전 후 이 땅의 일본인들은 모두 황망하게 일본 땅으로 패주하였다. 마산고 재학생, 학부모인 일본인들도 마찬가지였다. 반면에 만주, 러시아, 일본 등에 가 있던 조선인들은 조국으로 밀려들었다.(아직도 그 땅에 힘겹게 대대로 거주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 스토리의 하나가 최근 국제적 화제작이 된 드라마 ‘파친코’다.) 마산은 일본에서 귀국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정착하는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였다. 그런데 조선 민중과 함께 이들 귀환 동포들은 스스로 해방 조선의 국가를 만들 수 없었다. 일본은 패전했지만, 우리 조선이 많은 항일 운동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의 군대로 일본에 선전포고하고 미국, 소련과 함께 참전하여 일본을 패망시킨 승전국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소련, 미국 등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들이 국제법과 협상에 따라 국제법적 권한과 힘을 갖고 독일, 일본이 통치하던 나라들을 분할 점령하게 됨으로써 한국도 분단을 당한 씨앗이 되었다. 독일-일본에 대항하여 공동으로 싸우던 미국과 소련이 코리아에서는 38선을 기점으로 일본군을 몰아내고 조선을 분할 점령하였다. 이에 따라 통일된 자주 독립 국가를 만들지 못하게 되고, 일본인이 주도하던 방식의 경제가 무너지고 민생은 극히 힘들었다. 전력과 자원이 빈약한 남한은 더 심각했다.

어제의 동지였던 소련과 미국은 공산주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서 점점 이념적·정치·경제적으로 적이 되어 갔다. 이 과정에서 북한에서는 소련의 지지를 받는 김일성을 앞세운 공산주의 정권이 만들어지고, 남한에서는 유엔 감독하에 자유 민주주의-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국가가 등장했다. 한국의 초대 대통령이 바로 젊은 시절 미국으로 유학하여 한국인 최초의 박사가 되고, 독립 운동을 한 이승만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 내부, 남한 내부 갈등이 매우 격심했고, 남한의 좌파는 북으로 가고, 북한의 우파는 목숨 걸고 남으로 내려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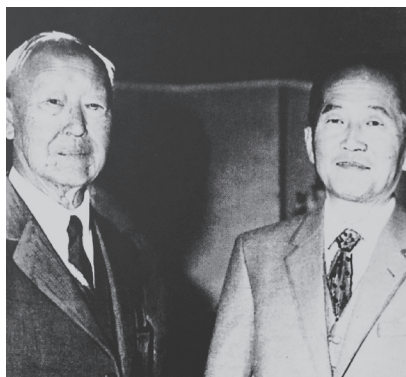


〈그림-4〉 해병대 진동리(鎭東里) 지구 전첩비
북한군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 초반에 국군은 속절없이 밀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유엔군의 도움으로 최후의 저지선인 마산-함안-창녕-대구-포항의 '낙동강 전선'에서 목숨을 건 저항을 벌였다. 그때 해병대의 진동리 지구 전투는 낙동강 전선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전세를 반전시켜 북진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소중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첩비문의 일부를 소개한다.

“(전략) 함양·진주 지구 전투에서 적 대대를 격퇴한 한국 해병대의 ‘김성은 부대’는 50년 8월 3일 진동리 서방 고사리에서 북괴군 6사단의 정찰대대를 기습 공격 궤멸시킴으로써, 창군 이래 최대의 전공을 세워 전 장병 1계급 특진의 영예를 획득하였다. 동년 8월 7일부터 미 육군 25사단을 주축으로 편성된 킨(KEAN) 특수 임무 부대가 진주 고개로 지향된 대규모 반격 작전(8월 7일~13일)을 전개하는 동안 우리 해병대는 진동리-마산 간의 보급로를 타개하고, 아반산·수리봉·서북산 일대의 적을 완전 격퇴한 후, 함안-군북으로 우회 기동하여 오봉산·필봉의 적을 섬멸하는 등, 중형무진 진동리 지구 방어를 위해 용전분투함으로써, 적 6사단의 필사적인 공세를 분쇄하였으며, 전략적 요충지 마산·진해를 지키고 낙동강 방어선을 더욱 튼튼히 구축하는 데 기여하였다. (후략)”

이러한 분단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남북한 두 개의 정부-국가는 서로를 인정하며 국민-인민을 잘 살게 하는 정치적 능력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더욱이 김일성의 북한은 거대한 오판으로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서 ‘미국 제국주의에서 남조선 인민을 해방’시킨다는 명분으로 침략 전쟁을 일으켰다.(물론 지금까지도 북한 정권은 북침 전쟁이라고 거짓 교육·선전을 하고 있다.) 파죽지세의 북한군에 계속 밀리던 한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의 도움으로 최후의 저지선, 마산-함안-창녕-대구-포항의 ‘낙동강 전선’에서 목숨을 건 저항을 벌였다. 결국 전황이 반전되어 북진을 시작하고, 38선을 넘어갔다가 중국군의 개입으로 다시 밀려와서 3년의 전쟁 끝에 겨우 승전도 패전도 종전도 아닌 ‘휴전’을 맞이하였다. 이 과정에서 아군과 적군 모두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 민족적·국제적 희생을 치렀다. 3년의 전쟁을 치르는 동안, 다시 북한 공산 정권의 탄압을 받은 사람들이 남한으로 대거 넘어오고, 다수의 좌파는 다시 월북하였다.

1953년 휴전은 남북한 사이의 휴전일 뿐만 아니라, 북한-중국(-소련), 한국-미국-유엔군 사이의 국제적 휴전이 되었다. 분단국 중에서도 독일 같은 나라가 겪지 않은 전쟁을 겪은 한반도에서는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 매우 깊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조건에서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교육·종교·문화 등 전반적으로 숨 막히는 노동당 일당 독재 체제가 강화되었다. 이런 독재 체제를 통해서 경제적으로는 주요 기업 국유화, 일본인·조선인 대토지 몰수와 무상 분배 등 ‘인민 혁명적 조치’를 실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한 국영 계획 경제 체제는 풍부한 수력 발전 전기와 자원 등을 바탕으로 일사불란한 전후 복구를 통해서 상당한 경제 성장 실적을 보였다.



〈그림-5〉 자유당의 이승만(왼쪽)과 이기붕
1960년 선거 당시 자유당 이승만 대통령 후보는 86세(1875년생)였고, 이기붕 부통령 후보는 65세(1896년생)였다. 자유당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고령인 점을 걱정하여 어떻게 하든지 이기붕 후보가 부통령에 당선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것이 부정 선거를 획책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3·15의거기념사업회/



〈그림-6〉 민주당의 조병옥(왼쪽)과 장면
당시 민주당 조병옥 대통령 후보는 67세(1894년)였고, 장면 부통령 후보는 62세(1899년생)였다. 조병옥 후보는 선거 유세 중 발병하여 치료차 1960년 1월에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러나 선거를 불과 한 달여 남겨두고, 윌트리드 육군병원에 입원한 지 23일 만에 심장마비로 사망하여 국민들은 큰 슬픔에 빠졌다. /3·15의거기념사업회/

이에 비해 남한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당과 한민당 등 야당들, 민간 언론사, 사립학교, 종교 기관, 민간 기업 등이 공존하는 자유 민주주의-시장 경제 체제가 유지되었으나 전후 경제 실패는 문자 그대로 전 세계 최악의 빈곤 국가였다. 자원은 빈약하고, 인구는 많고, 미국의 원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이었다. 북한 공산당과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내부의 공산 세력 과도 내전을 벌인 결과 좌익 세력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보도연맹' 사건 등을 통해서 좌익이 아니라 단순히 정부 비판적인 사람들, 좌우 이념도 모르고 억울하게 희생된 양민들도 대단히 많았다. 이승만 정권의 권위주의적 독재가 강화되었고 남북한 분단은 더욱 공고해졌다. 일본인들이 도주하듯 귀국하면

서 두고 간 공장, 주택 등 ‘적의 재산(敵産)’을 정부가 팔거나 관리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그리고 미국 원조 물자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부정부패도 아주 심했다. 이 과정에서 친일파도 상당수가 정치·경제 권력, 사회·문화 권력을 유지하였고, 6·25를 거치며 공산화를 막은 기여가 인정되는 면도 있어서 대단히 혼란스러웠다. 일당 독재 치하인 북한과 달리 정치적, 사회·경제적 부조리를 비판할 자유가 헌법에서부터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 그나마 장점이고 희망이었으나, 심하게 억압당하는 자유였다.

이승만은 독립 운동과 정부 수립, 북한의 공산화 시도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킨 국부(國父)로서 존경받는 면도 있었으나, 정치적 부정부패와 억압에 의한 장기 집권 시도는 야당의 반발을 초래했다. 휴전 후 ‘사사오입 개헌’이라는 무리를 통해서 장기 집권을 넘어선 종신 집권까지 가능하게 된 이승만 정부 하에서 야당의 장면 부통령이 저격당하기도 하고, 진보당 당수 조봉암이 간첩 혐의를 받고 처형당하고, 신국가보안법 강제 통과, 야성이 강한 경향신문 폐간 등으로 사회·정치적 반발을 초래했다.

임기 4년을 지나 1960년 3월 15일, 다시 대통령, 부통령 선거를 하면서 자유당은 80세가 넘는 이승만 이후를 우려하면서 이전의 부통령 선거에서 낙선했던 이기붕을 기어코 당선시키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공산당의 폭정을 비판하며 자유 민주주의의 정당성과 우월성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국민의 일부인 학생들에게 선거 유세를 듣지 못하게 일요일에도 등교를 강요하고, 투표 과정에서는 드러나게 온갖 부정 선거를 자행하였다. 이에 야당인 민주당이 3월 15일 당일 선거 무효를 선언하고 시위를 전개하고, 학생들이 대거 합류하자 총을 쏘아 사망자까지 나오는 비극이 바로 한반도 남녘의 경남 마산에서 벌어졌던 것이다.

3. 일제의 야만, 마산 '오동동 경무대'의 부패와 독재

그런데 부정 선거가 전국적으로 일어났는데, 최초로 마산 사람들이 피 흘리며 저항한 것은 마산 사람들이 전국에서 가장 불의에 항거하는 자유, 정의 정신이 투철해서 그럴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일리가 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초대 이승만 정부를 거치며 마산에서 지배 권력의 야만, 부패와 독재가 특별했다는 객관적 사정을 먼저 볼 필요가 있다.



〈그림-7〉 오동동 마산형무소

마산형무소는 부산형무소 마산 분감으로 설치된 것이다. 대한제국 시기에는 부림동에 있던 경무청(警務廳) 안에 이 시설이 있었지만, 수요가 늘어남으로써 독자적인 건물이 필요하게 되었다. 애초의 새 건물은 완월동에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전망 좋은 곳에 형무소가 들어선다

는 것은 마산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 하여 1909년 무렵에 오동동(현 동방빌딩 자리)에 건물을 신축했다. 1970년에 회성동으로 옮겨 지금까지 존치되고 있다. /마산문화원/

앞서 본 대로, 마산과 진해는 일찍이 러시아와 일본이 탐내던 전략적 요충지의 항구 도시였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을 통치하는 억압 기구 또한 일제강점기부터 상당한 규모의 경찰서(현재의 중부경찰서)와 사람들이 치를 떠는 헌병대(신마산 땃거리 인근에 지금도 건물이 남아 있다)가 있었고, 경찰서, 헌병대 등에서 독립 운동가를 고문하다가 투옥하는 형무소가 시내 오동동에 있었다.(1970년에 내서 지역으로 이전함.) 일제가 경남 도청을 진주에서 부산으로 옮겼지만, 지리적으로는 마산이 경남의 중심이며, 군사전략적 요충지 마

산·진해 항구도 있어서 이들 지배 권력 기구는 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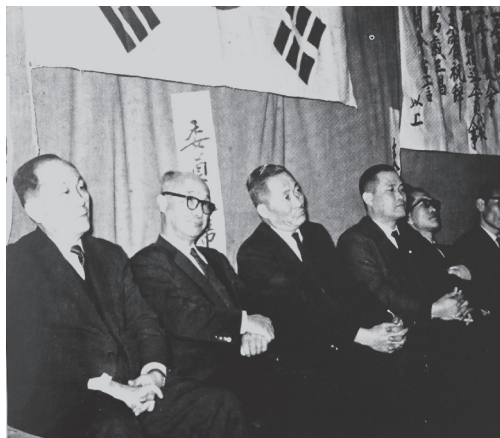
마산은 일본 지배하에서 근대화·도시화한 대표적인 지역의 하나다. 수질이 좋은 마산에서 일본인들은 간장 공장(몽고간장 등), 술 공장 등을 만들어 땅을 빼앗겨 아무 재산이 없는 사람들을 임금 노동자로 고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조선 안팎에서 판매하였다.(나중에 이때의 공장들 소유·경영권을 둘러싼 정치·경제적 부정부패가 3·15의거의 큰 도화선의 하나가 된다.)

일본과 조선은 하나라면서도 일본인과 조선인 교육은 분리하여 실시하고 갖가지 차별을 일삼던 일본이 조선에서 처음으로 조선인·일본인 자식 교육을 같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실험을 했다. 그것이 바로 5년제 마산공립중학교(지금 마산고와 마산중의 전신)인데, 여기서도 조선말을 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고 학생들의 항일 운동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여럿 있었다.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과 이후에 경찰, 군대 기구는 한편으로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자유 민주 체제를 방어하였지만, 이승만 독재를 유지, 강화하는 데 기여한 면도 강했다. 경찰과 군대에는 일부 항일 운동 세력도 있었지만, 상당수 친일파들이 남아 있어서 보도연맹 등의 사건을 거치며 깊은 원한을 사기도 했다.

이승만 정권이 독재 권력 중에서도 부패한 독재의 양상을 띠는 것은 6·25 전쟁 중에도 마찬가지였고, 임시 수도를 서울에서 대전, 대구로, 마침내 부산으로 옮긴 후에는 경남 도청이 있는 부산·경남이 자유 민주주의 수호의 마지막 보루이면서 동시에 부패한 독재적 정치·경제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 중심인물은 진영 출신으로 창원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이용범이다. 식민지 시절 일본인 토목회사 노무자였던 이용범은 해방 후 마산에서 토목건설 회사를 차렸고, 전쟁과 이후 전후 복구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토목건설 공사를 따내면서 전국적 토건회사로 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자유당에 막대한 정치 자금

을 제공하고 창원에서 자유당 공천까지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었다. 그는 이승만 대통령의 양아들 행세까지 하며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마산 오동동에 있던 그의 집은 ‘오동동 경무대’(청와대)로 불릴 정도였다. 그는 막대한 돈과 권력으로 경찰, 검찰도 주물러서 일제강점기부터 소주의 원료를 만들던 동양주정이라는 회사를 강제로 팔게 하는 악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은 자유당의 부정부패를 집약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이며, 자기 이권을 지키기 위해 3·15 부정 선거에도 깊이 관여했다. 3·15의거는 이 사람 때문에 일어났다고 흔히 얘기할 정도다.



〈그림-8〉 자유당 정·부통령 선거
마산시대책위원회 합동 결성식

1960년 2월 마산 강남극장에서는 ‘자유당 정·부통령 선거 마산시대책위원회 합동 결성식’이 열렸다. 많은 연사들이 출연하여 자유당이 승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진의 맨 왼쪽이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여 당선됐다가 자유당으로 당적을 바꾼 변절자 허윤수, 세 번째가 ‘오동동 경무대’의 주인공으로 악명 높은 이용범./3·15의거기념사업회/

이에 비해 마산 시민들은 자유당에 비판적인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은 적이 많다. 휴전 직후인 1954년에는 자유당 후보 김종신을 국회의원으로 뽑았던 마산 시민들은 1958년 선거에서는 자유당을 비판하며 ‘정의와 지조를 최고 신조로’, ‘민주정치 구현에 결사 투쟁할 것’을 굳게 맹세한 허윤수를 국회의원으로 뽑았다. 그런데 2년 뒤 정·부통령 선거를 앞둔 1960년 1월에 그는 야당에 남아서는 마산 발전을 위해 일하기 힘들다며, “역적의 누명을 쓰

는 한이 있더라도 차라리 여당에 들어가 15만 마산 시민의 복리를 위해 헌신 하겠다.”라고 말을 바꾸며 민주당을 탈당, 자유당에 입당했다. 민주당 마산시 당의 간부들조차도 상당수가 같이 탈당하고, 민주당 당원 20여 명도 민주당 의 한 파벌인 신파에 염증을 느꼈다며 집단 탈당했다. 이 변절 사태는 심해 가는 이승만 정권의 부패와 독재에 오히려 염증을 느끼며 분노하고 있던 전국 대표적 야당 도시 마산 시민들의 공적 분노를 폭발시켰다. 허윤수의 자유 당 입당은 앞서 언급한 최고의 권력자 이용범과 돈으로 공작한 것이라고, 허 윤수가 이용범에게서 거액의 돈을 받았고, 동양주정 경영권까지 약속받았으 며,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도 보장해 주기로 했다는 소문은 더욱 더 시 민 공분을 강하게 일으켰다.

이러한 소문은 동양주정이라는 소주 원료 회사의 강제 매각 사건에서 사 실로 확인되었다. 이용범은 정·부통령 선거가 임박한 1960년 2월에 부산지검 마산지청장 서득룡과 마산세무서장 서복태를 시켜 동양주정에 대한 탈세 혐 의 수사를 착수하게 했다. 그리고 3월 초에는 마침내 신마산 외교구락부(현 재 럭키사우나)라는 다방에서 동양주정 사장 지달순은 바로 허윤수와 그 추 종자 허남호에게 동양주정을 넘긴다는 각서를 써 주고 말았고, 지달순은 이 것이 특정 정치 권력의 공작에 의한 것임을 폭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민주당 탈당과 자유당 입당이라는 시민 기만으로 충격을 준 허윤수 국회 의원이 자유당 입당의 대가로 자유당과 검찰 등 권력을 이용하여 남의 회사 빼앗기의 주인공이 된 것이 확인되었다. 선거를 앞두고, 전국에서 돌도 찾아 보기 힘든 야당 국회의원의 배신과 유례가 드문 대형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 이 마산에서 터진 것이다. 여기다가 3월 15일에는 마침내 이들 추악한 권력이 국민 주권을 도둑질하고 강탈함으로써 자유 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짓밟는 3·15 부정 선거를 일으킨 것이 확인되자 그 분노가 용암처럼 솟구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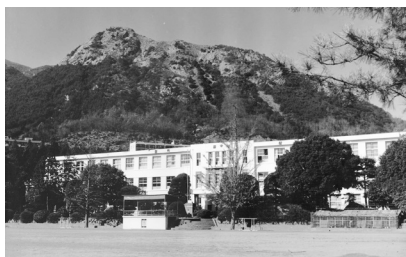
학산)가 등 뒤에 있다. 무학산은 옛 이름이 두척(斗尺)으로 태산과 북두칠성을 의미한다. 또한 앞으로는 남해의 푸른 물결이 치는 합포가 있으니 여기서 ‘청년의 큰 뜻, 자주정 정신’이 부모 세대부터 대대로 이어져 왔다(1951년 이상철 작사, 윤이상 작곡).

일찍이 구한말 조선이 일본의 강점 아래에 놓여갈 때, 마산을 매우 사랑한 유명한 언론인 장지연은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라는 글로 일본의 야만을 폭로하고 을사오적을 규탄하며 전 민중의 쫓겨난 것을 추곡하였다.(그의 묘소는 마산합포구 현동에 있다.) 1910년 일제 강점을 전후하여 농촌 지역을 ‘신마산’으로 개발하여 거주하던 일본인들이 어시장 주변 조선인 상권도 빼앗으려는 시도에 맞서서 마산 향민(港民)들이 정기 시장을 수호하려는 투쟁을 벌여서 성공했다. 이 무렵 전국에서 드물게 조선인들의 자주적 정치·교육 거점인 ‘마산민의회’를 설립하는가 하면, 수탈당하는 부두 노동자, 산업 노동자들을 교육하는 ‘노동야학’이 전국 최초로 만들어졌다. 이런 저항 정신이 밑거름이 되어 우리 역사상 최대의 민중 운동이라 할 1919년 3·1운동 당시 마산 인구 1만5천 명 중 약 1/5인 3천여 명이 참여하여 목숨을 걸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다. 오동동 감옥에서 옥고를 겪고 있는 독립운동가 석방을 요구하며 4월까지 시위를 벌였으니, ‘삼진의거’와 ‘창원읍성의거’가 전국의 주요 3·1운동의 하나로 불리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4·3 삼진의거의 팔의사 묘역(八義士墓域)이 최근 국가 관리 묘역으로 지정되었다.]

이 무렵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하였고, 마산의 항일 독립운동 세력도 우파 민족주의 운동과 소련 등의 지원을 받는 좌파 사회주의 운동으로 분화되었다. 민의소는 우파 민족주의 계열의 중심 거점이었고, 경남 지역의 지사로 상해 임시정부 경상남북도 대표였던 이교재, 진해 출신 목사로서 마산, 부산, 평양 등 전 조선지역에 걸쳐 일제의 신사 참배 거부활동을 벌이다가 옥

사한 주기철, 우리말글 보급 운동을 벌인 이은상 등이 국내외에서 활동한 지도자급 인사다.

좌파 항일 해방 운동은 마산적색노조, 마산노동연맹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고려공산청년회 마산지부 소속 멤버로 활동하다가 모스크바 유학까지 한 ‘여장군’ 김명시와 김명선·김형선 삼 남매도 유명하다. 일제하 마산고(당시 5년제 마산공립중학교) 학생들의 항일 운동도 있었으니, 이도환·서기수 동문의 저항 사건(1942), 경남학생건국회 사건(1944), 마산공립중학교 독립단 사건(1944) 등이 대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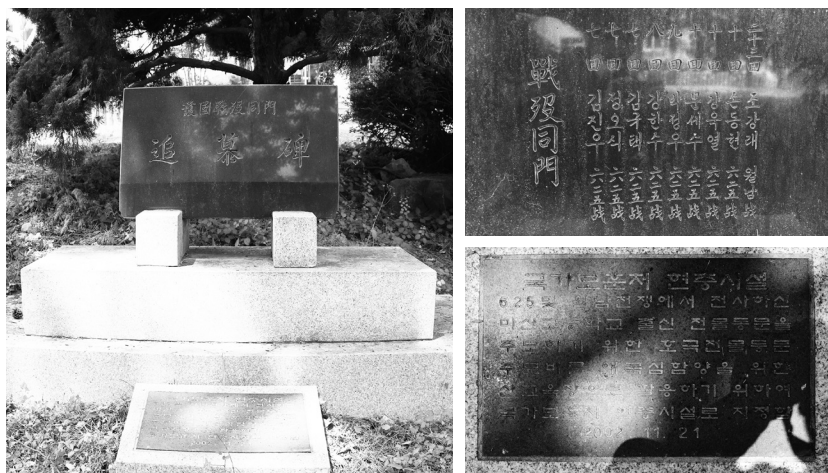
〈그림-10〉 마산고등학교 본관 건물 변천사

마산고등학교는 1936년 4월 11일에 개교를 했지만, 건물이 없어 초창기에는 완월초등학교에 더부살이를 해야 했다. 전국적으로 인재를 많이 배출한 명문 고교인 동시에, 항일·구국·민주화를 위해 피를 흘린 의로운 학교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1938년 준공 당시의 모습, 해방 이후 1970년대까지의 모습, 옛 건물을 증축한 1980~2000년대 초반의 모습, 옛 건물을 헐고 새로 지은 지금의 모습(2003년 이후).

해방이 되자, 인구 약 6만 명의 도시 마산에 기존 인구의 1/3에 해당하는 2만여 명의 해외 동포가 대거 들어왔으니 항구 도시 마산은 규모가 커진 것뿐만 아니라 인구 구성이 크게 변한 국제적 성격의 도시가 되었다. 1945~1948년 격심한 좌우 대립의 시기를 거치며 대한민국을 만드는 최초의 국회, 제헌의회 의원을 뽑는 초대 선거에서 마산 시민들은 기존 마산의 쟁쟁한 지도자가 아니라 귀환 동포 출신, 더욱이 정당 소속이 아닌 무소속 후보 권태욱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했다. 그는 1952년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재선에 성공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드문 일로, 귀환 동포들의 단결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기존 마산 시민들의 포용적이면서도 열린사회 의식으로 가능한 것이었다. 초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전국적으로 자유당 이승만의 지지표는 조봉암을 비롯한 여타 후보 지지표를 합한 것의 두 배가 넘었지만, 마산시의 경우 다른 후보들 지지표를 합하면 이승만의 표보다 훨씬 많았을 정도로 야성이 강했다. 1956년 대선인 경우, 마산시의 이승만 지지표는 22,800표 가량인데, 조봉암의 경우도 2만 표가 조금 넘는 비슷한 것이었다. 부통령 선거의 경우, 전국적으로 민주당의 장면, 자유당 이기붕에 대한 지지가 각각 401만, 380만 표인 데 비해, 마산시의 경우, 각각 약 39,800표, 5,700여 표로 야당인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이었다.

그 사이에 있었던 1950년 6·25전쟁을 맞아서 전쟁 초기에 마산은 부산 임시수도를 사수하는 낙동강 전선의 핵심 기지였다. 마산 서쪽의 창원 진동과 함안 사이에 있는 서북산, 여항산은 한국군 해병대 지원하에 유엔군-미군 25사단이 맡아서 결사항전(Stand or die) 정신으로 두 달여 동안 대전투를 벌였고, 사수한 덕분에 8월 말에 북진을 시작할 수 있었다. 공산 독재 치하에 살기를 거부하고 목숨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싸운 것은 이들만이 아니라 마산고 출신 젊은 군인들, 심지어 고교생들도 많았다.

마산고의 경우, 1950년 7월 당시 6학년(고 3. 당시 마산중·고등학교는 6년제 마산중학교였음)이었던 10기생은 전체 재학생 156명 중 참전자가 62명이나 되며, 정부의 호소를 듣고 목숨 걸고 전선에 나선 이들 중에서 3명(강옥열, 문세수, 손동현)은 꽃다운 젊음을 조국의 산하에 바쳤다.(자세한 내용은 <그림-11>을 참조하기 바란다.)



〈그림-11〉 호국전몰동문 추모비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하여 전사한 마산고 동문들을 추모하는 비석인데, 1992년 10월 23일 교내 학림동산에 세웠다. 추모비 뒷면에는 8명의 6·25전쟁 전사 동문 이름과 기수(7회 7명, 8회 및 9회 각 1명, 10회 3명)가, 1명의 월남전 전사 동문 이름과 기수(23회)가 적혀 있다. 6·25전쟁에서 당시 학생 신분이던 10기수에서 세 명의 전사자가 나왔음이 확인된다. 이 추모비는 2002년 11월 21일 자로 국가보훈처 현충 시설로 지정되었다(오른쪽 아래 사진).

전쟁 발발 후 적군에 점령당하지 않은 최전선의 마산·창원·진해는 계엄령 하에서 지역 계엄사령부 지휘하에 있었으며, 수많은 군부대들의 주둔지이자 병참기지였다.(마산고와 완월초등학교에는 미 25사단 본부가 설치되었다.) 여기에서도 한국전쟁 중 큰 비극인 ‘보도연맹 사건’이 대규모로 벌어졌다. 전국

적으로 군과 경찰, 우익 민간의 지역비상대책위원회 등은 각 지역에서 좌익 전력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사람, 그런 성향의 재소자들은 물론 좌익이 아닌 데도 이승만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까지도 보도연맹에 가입하게 해 놓고는 적군에 가담하거나 이적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재판 없이 산으로, 바다로 끌고 가서 대대적으로 학살했다. 마산은 일제하 독립운동이 강했던 지역이며, 이승만 정부에 대한 비판의식이 강한 지역이라 북한 적군에 가담할 우려가 있는 좌익 인사들은 물론 우익 독립 운동가를 포함하여 무고한 사람들도 구산면 원전(깡이바다) 앞바다에 수장하거나 창원군 북면, 창원면 남산 등에 끌고 가서 학살하고 매장했다.(이런 사실은 그 당시는 물론 이후에도 오랜 동안 입 밖에도 내지 못하다가 4월혁명이 성공한 뒤 전국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으며, 희생자가 대단히 많았던 마산 출신의 노현섭은 억울하게 희생된 유족들의 전국 모임 회장이 되어서 활동했다. 3·15의거 당시 김주열의 시신이 바다에 떠오른 것도 6·25 당시 시신을 돌에 매달아 바다에 수장한 야만적 관행이 되풀이된 결과다. 이들 중 억울한 죽음은 5·16 이후 다시 묻혔으며, 1987년 민주화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과거사 진상 조사를 하면서 그 실체가 드러나고 정부의 사과 조치가 있었다. 마산·창원·진해의 경우 적어도 1,700여 명이 희생되었다.)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의 이런 비인간적 행위는 한동안 우익 자유당 집권 세력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자유당 김종신 후보가 휴전 후 1954년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것이 대표적인 예의 하나다. 그러나 정부의 부정부패가 심해짐에 따라 자유당 지지가 점점 약해지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높아져 1958년 선거에서는 시민들이 김종신을 대신해서 민주당의 허윤수 후보를 큰 표 차이로 뽑았다. 이웃 창원군의 경우에는 갑, 을 두 지역에서 모두 자유당 후보를 선출한 것과 대비된다. 그런데

이 허윤수 의원은 앞서 본 대로, 시민들을 배반하여 민주당을 버리고 자유당에 입당하여 3·15의거 당시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된다.

6·25전쟁 후 전국적 변화가 마산에 가져 온 변화 중에서 피난민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피난 대열에 올랐고, 대구, 그 아래 마산, 부산 등지는 최후의 피난처였다. 마산에는 해방 직후의 귀환 동포들이 대거 정착하게 된 이후 다시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주거난 등 많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 신마산 댕거리에는 ‘해방촌’, ‘수용소’ 등으로 불리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다른 한편으로 피난민 중에는 전국에서 실력이 출중한 교사들과 서울 등지에서 세칭 명문고에 다니던 학생들도 있었다. 이들은 마산의 고교에서 교사로 재직하고, 학생으로 재학하였다.(당시 3·15의거에 참여한 고교들은 마산고, 마상상고, 마산공고, 마산창신고, 마산여고, 마산제일여고, 마산성지여고, 마산간호고등학교 등이다.) 이로 인해 이미 전국적으로 명문고로 불리던 마산고의 경우, 시인으로 이름난 김춘수, 김남조, 이순섭 등 실력과 교사들의 열성적인 교육으로 1950년대 말까지 전국 최고의 명문고로 이름을 날렸다.



〈그림-12〉 경찰의 발포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은 1960년 3월 15일 밤에 시위 군중들을 향해 실탄 사격을 가해, 9명을 숨지게 하고 쏠한 부상자를 내게 한 만행을 저질렀다. 부통령 후보였던 이기붕은 “충은 쓰라고 준 것”이라는 망언을 해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사기도 했다.(무학초등학교 앞 복원된 총탄 담벼락에 부착된 사진)

당시는 대학생은 물론, 고교 진학생도 많지 않아서 고교 진학만으로도 어느 정도 지식인 대접을 받던 시절이었다. 더욱이 ‘명문고’의 강한 자부심까지 가진 마산고의 피 끓는 청춘들은 부모·선배들이 6·25 전쟁까지 거치며 피 흘려서 지킨 ‘자유민주주의’가 소수의 부패한 권력자들에 의해 유린되고 학생들의 권익조차 짓밟힌 현실에 눈감을 수 없었다.

3월 15일 1차 의거에서 부정 선거를 규탄하던 마산의 시민들과 학생들은 당일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의 총탄에 맞아 9명이나 사망했는데, 대다수가 학생들이었으며 구두담이 등 일반인도 있었다. 해방된 나라, 6·25전쟁에서 목숨 바쳐 지킨 자유 민주주의의 우리나라에서 위정자들의 부정 선거도 큰 배신이지만, 부정 선거에 대해 국민으로서 당연한 비판 시위에 총탄을 안긴 것은 상상도 못한 충격적 배신이었다. 심지어 죽은 학생, 시민들을 공산당의 배후 조종에 의한 것이라고 조작하며 살벌하게 위협하였다. 그러다가 행방을 알 수 없던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 떠오르자 분노는 마산 앞바다의 태풍과 파도처럼 일어났다. 모두가 김주열의 친구가 되어 군중의 선봉에 선 학생들이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라는 전우가를 부른 것은 6·25 당시 공산당에 맞서 목숨 걸고 싸운 호국정신이 자연스럽게 발휘된 것이며, 더 이상 부정 선거를 규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승만 정권 자체를 비판하는 구호가 나오기 시작함으로써, ‘2차 마산시위’가 마침내 ‘반정부 혁명’으로 발전되어 갔다. 한반도 남녘 항구 도시 마산에서도, 백성이라는 바다가 지도자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그 배를 뒤집기도 했던 우리의 오랜 전통인 민본(民本) 정신이 표현된 것이었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마산고등학교, 1960년 3월 15일

김용실 · 김영준 열사를 재발견하다

동량지재(棟梁之材), 민주 발전의 초석 되다

— 김용실 열사편 —

제3장



김용실·김영준 열사를 재발견하다

제3장

동량지재(棟梁之材), 민주 발전의 초석 되다

- 김용실 열사편 -

1. 들어가며

김용실(金涌實)은 1960년 3월 15일 제1차 3·15의거 때 꽃다운 청춘을 조국의 민주화 발전을 위해 희생한 열사의 한 분이다. 당시 마산고등학교 1학년이었던⁷⁾ 그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3·15 부정 선거를 규탄하다 그날 밤 10시 무렵 경찰이 쏜 총을 맞고 산화하였다. 사망 장소는 무학초등학교 근처, 또는 북마산파출소 근처였다고 엇갈리지만,⁸⁾ 죽은 원인이 머리를 관통하는 총상 때문이었다는 데는 이론이 없다.

3·15의거는 제1차 의거와 제2차 의거로 나뉜다. 전자는 당시 집권당이던 자유당에 의해 가공할 부정 선거가 자행되었던 그해 3월 15일 경남 마산에서

7) 당시 학제는 4월 1일에 새 학년이 시작되어 다음해 3월 말에 한 학년이 끝나는 것이었다. 김용실은 2학년에 진학하기 보름 전에 생을 마감한 것이다. 간혹 사망 당시 김용실의 학년을 2학년으로 보도한 신문 기사 등이 있는데, 그것은 요즘처럼 새 학년이 3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착각한 결과이다.

8)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다룬다.

일어난 대규모 항쟁이었다. 경찰이 쏜 총기류를 맞아 아홉 명이 유명을 달리 했고⁹⁾ 수많은 중·경상자가 속출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유혈 시민 항쟁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제2차 의거는 1960년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역시 마산에서 일어난 엄청난 항쟁이었다. 1차 의거 때 행방불명이 되었던 김주열의 시신이 마산항 중앙부두 앞 바다에서 발견됨으로써 촉발된 것이었다.¹⁰⁾ 발견되었을 당시 그의 오른쪽 눈에 최루탄이 박혀 있어 시민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던져 준 것이 원인이었다.

2차 의거의 파장은 매우 컸다. 4월 11일 저녁부터 한밤까지 한 차례 시위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한 명이 숨지고 십여 명이 부상을 입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1차 의거 때 경찰의 총기류 난사가 국내를 넘어 국제적 이슈가 되었던 터라 4월 11일 밤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실탄 사격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자가 났다는 것은 그날 밤 시위의 심각성을 잘 말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4월 12일에는 마산 시내 8개 고교 연합 시위,¹¹⁾ 4월 13일에는 해인대학(지금의 경남대학교)생들의 시위가 잇따라 일어났고, 헤아릴 수 없는 시민들이 이에 동참했다.

9) 강용기, 김삼웅, 김영준, 김영호, 김용실, 김주열, 김효덕, 오성원, 전의규(가나다순) 등 아홉 열사를 말한다. 이 가운데 김영호·김효덕·김용실·김주열 열사는 현장에서 운명했고, 나머지 다섯 열사는 중상을 입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3월 16일(오성원·김삼웅), 3월 18일(김영준), 3월 19일(전의규), 4월 10일(강용기)에 유명을 달리하였다. 2차 의거 때는 김영길 열사가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4월 26일 오후 부산에서 온 원정 시위대를 계엄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마산의 김평도·김종술 열사가 사망하였다. 1차 의거 때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조헌대·김동섭 열사는 끝내 부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1961년 2월 26일, 1963년 11월 21일에 각각 작고하였다.

10) 김주열은 3월 15일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앞서 언급한 사망자 9명 가운데는 김주열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그 행방이 묘연했기 때문에 ‘실종자’라는 이름으로 언급되는 것이다.

11) 제2장에서 언급된 것처럼, 마산고등학교, 마산상업고등학교, 마산공업고등학교, 창신고등학교, 마산여자고등학교, 마산제일여자고등학교, 성지여자고등학교, 마산간호고등기술학교(뒷날 마산간호고등학교, 지금 마산대학교 간호학과와 전신)의 여덟 학교이다.



〈그림-13〉 3·15의거 열두 분 열사(3·15의거희생자유족회 사무실에 걸려 있는 액자에서)

분노의 바람은 북상하였다. 4월 18일 고려대생들의 시위가 일어났고, 이것은 4월 19일 대규모 ‘괴의 화요일’ 시위로 이어져 4·19혁명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좁은 의미의 ‘4·19혁명’). 이에 더하여 4월 25일 전국 대학 교수들이 ‘시국 선언문’을 낭독하고 거리에 나서자 자유당 정권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고 4월 26일 마침내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제1차 마산 3·15의거는 우리나라 민주 발전에 크나큰 역할을 하였다. 1차 의거가 없었다면 김주열의 최루탄 시신도 없었을 것이고, 김주열의 최루탄 시신이 없었다면 2차 의거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마산에서 제2차 의거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서울에서의 시위도 없었거나 그보다 훨씬 늦었을 것이고, 서울에서의 시위가 없었거나 늦었다면 이승만 대통령의 그렇게 빠른 하야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은 분명한 일이 아니겠는가.¹²⁾

김용실은 3·15의거의 꽃 중에서도 장미꽃이었다. 그러나 김용실을 비롯한

12) 물론, 다른 형태의 민주화 시위는 끊임없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3·15의거가 4·19 혁명과 이승만 정권의 몰락을 초래한 최초의 원인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 열사들은 김주열에 가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가거나 멀어져 가고 있다. 제2차 3·15의거를 촉발시킨 것이 김주열의 최루탄 시신이고 보면 우리가 김주열 열사를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나머지 열사들도 당연히 김주열 열사처럼 강렬하게 기억되어야 한다.¹³⁾ 김용실 열사라면 더구나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김용실 열사의 일대기를 재구해 보면 그가 왜 3·15의거 꽃 중의 장미꽃이었는지는 자연스럽게 밝혀질 것이다.

그동안 김용실의 행적은 박식원 님의 『되찾자 잃어버린 3·15』(1990년), 홍중조 님의 『3·15의거』(1992년), 사단법인 3·15의거기념사업회에서 펴낸 『3·15의거사』(2004/2021년) 등에, 그리고 여러 언론사에서 특집으로 보도한 기사 등에 부분적으로 그려져 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우리는 생존 가족, 당시 김용실과 가까웠던 친구 및 선배들과 여섯 차례에 걸친 증언 듣기를 통해 새로운 많은 사실을 밝혀내었다. 증언을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면서 증언 듣기 일정을 다음과 같이 밝혀 둔다.

- 첫 번째 증언: 2021년 10월 1일 하오 4시(동기생 네 분)
- 두 번째 증언: 2021년 10월 27일 하오 3시(동기생, 친·인척 등 세 분)
- 세 번째 증언: 2021년 11월 4일 하오 3시(선배 한 분)
- 네 번째 증언: 2021년 11월 12일 상오 11시(선배 1분, 동기생 1분, 독립병원 간호사 출신 한 분)
- 다섯 번째 증언: 2021년 11월 24일 하오 2시(선배 한 분)
- 여섯 번째 증언: 2022년 2월 23일(가족 한 분)

13) 김정대, 「마산 3·15의거에 마산 사람이 없다?」(『3·15의거』 23호, 93~109쪽, 2022년)는 김주열 열사는 강렬하게 기억되는 반면 나머지 열사들은 그렇게 기억되지 못하는 이유를 밝힌 글로서, 나머지 열사들도 함께 기억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함을 강조한 글이다.

2. 김용실 열사의 생애

김용실의 생애를 자세하게 소개하기에 앞서 마산고등학교 두 열사 추모 공원 안내판에 기록돼 있는 김용실 열사의 일대기부터 보기로 한다.



고교 1학년 때 모습 추모 동산 홍상 국립3·15민주묘지 유영 봉안소 영정과 위패 유영 봉안소 아래 묘

김용실(金涌實/21회, 1943.12.17.~1960.3.15.)

경남 마산에서 태어나 성호초등학교(48회)와 마산중학교(8회)를 거쳐 1959년 마산고등학교에 입학하였다. 8남매의 셋째이자 아들로서는 맏이었다. 명랑하며 착실·온건한 성품과 우수한 두뇌, 탁월한 지휘력을 가진 1학년 B반 급장이었다.

1960년 3월 초, 자유당 정권의 부정·불법에 항의하는 마산고 학생 데모 모의를 주도하였으나 데모는 불발하였다. 3월 15일 선거 당일 할머니의 투표권을 누군가가 사전에 행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크게 분노하였다. 비장한 결심을 하고 친·인척 집을 둘러 일일이 작별 인사를 한 뒤 저녁 7시 의거의 현장으로 뛰어들었다. 그날 밤 10시 무렵 무학초등학교 앞에서 경찰이 쏜 총알이 머리를 관통하여 현장에서 숨을 거두고 도림마산병원에 안치되었다. 그것도 모자라 경찰은 시신이 된 그의 주머니에 '인민공화국 만세'와 같은 불온 뼈대를 넣고 그를 빨갱이로 몰아 사건을 왜곡하려 하였다. 그러나 양심적인 검사, 올곧은 병원장, 정의로운 간호사들에 의해 불순한 의도는 물거품이 되었다.

흉탄에 쓰러지지 않았더라면 나라를 이끌어 갈 동량지재로 성장했을 그는, 산화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든든한 기둥이 되었다.

머리말에서 우리는 김용실 열사를 1차 의거 때 산화한 ‘꽃 중의 장미꽃’이라 는 표현을 썼는데, 그와 같이 말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해 3월 초 대대장 정종식 집에는 18명의 마고생들이 모여 “이 시점에서 우리 학생들이 좌시할 수 없지 않느냐?”라며 의분을 강하게 표출했

데, 그 핵심이 김용실이었다는 점.¹⁴⁾

둘째, 3월 15일 당일 할머니의 투표 번호표가 나오지 않아 추산동 동사무소에 문의차 갔더니, 이미 누군가가 투표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했다는 점.

셋째, 그날 고종형이자 21회 동기인 박종근의 집에서 점심을 먹고 난 뒤 친척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하였는데, 이것은 한 몸을 희생하겠다는 각오를 가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점.

넷째, 도립병원에 안치되었을 때 마산경찰서 형사가 김용실의 주머니에 “인민공화국 만세!” 등이 적힌 불온 뼈라를 몰래 넣고는 그를 공산당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조작한 일(시위의 중심에 서지 않았다면 김용실이 지목되었을 리가 없겠기 때문).¹⁵⁾

위 첫째와 넷째는 『3·15의거사』 등에 이미 소개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둘째와 셋째 내용은 이전에 기술된 적이 없는 것이다. 둘째는 마산고 21회 동기생들 사이에는 비교적 널리 퍼져 있던 사실이었으나, 그 밖의 사람들은 잘 몰랐던 내용이다. 그리고 셋째 내용은 이번 증언 듣기에서 처음으로 밝혀진 것이란 점을 강조해 둔다.

2. 1. 가계(家系)

김용실은 1943년 12월 17일 경남 마산시 창동 10번지에서 태어났다. 고등

14) 『3·15의거』 107쪽, 『3·15의거사』 351쪽 참조. 그러나 ‘대대장 정종식’이라는 표현은 수정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뒤에서 다시 다룬다.

15) 이 뼈라는 김용실을 비롯하여 숨진 3명의 희생자 주머니에 집어넣은 것이라 한다(『3·15의거사』, 333쪽).

학교 생활기록부에 본적은 ‘경상남도 창원군 진동면 진동리 485’로, 생장지는 ‘경남 마산시 창동’으로, 주소는 ‘경상남도 마산시 추산동 72’로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 고향인 진동에서 마산으로 이사를 왔고, 마산에서도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용실은 태어나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창동에서 살았으니, 강남극장 부근 부림동과 이웃한 창동이었다. 2층 집이었다. 2층은 살림집이었고, 1층은 아이스케이크 판매점 겸 땅콩 등을 도·소매하는 가게였다. 시인 고은이 그의 『만인보(萬人譜)』에서 “잡화상 만물상회 김기우 씨의 3남 5녀 중 장남”이라고 적은 까닭이 여기에 있다.¹⁶⁾ 용실과 인척 관계에 있는 제갈선광 님(마산고 21회 동창)은 초등학교 때 용실의 창동 집에 몇 번 놀러를 갔는데, 그때 이미 용실은 대장 노릇을 하는 기질이 다분했다고 회고했다.¹⁷⁾



〈그림-14〉 김용실 열사의 가족사진
 앉은 분은 할머니 제갈련 님. 뒷줄
 왼쪽부터 큰누님 김옥주 님, 어머니
 이명선 님, 아버지 김기우 님, 막내
 고모님(추산동·통영 거주) / 김옥주 /

16) 『만인보』 22권 「김용실」에서. 관련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다룬다.

17) 첫 번째 증언 듣기에서. 김용실의 할머니 제갈련 님이 제갈선광 님의 고모할머니(왕고모)이다.

중학교(마산중학교)에 진학할 무렵 용실의 집은 창동에서 추산동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지금의 마산 포교당과 3·15의거탑 중간보다 조금 더 위쪽에 위치해 있었다. 아버지는 아이스케이크 공장을 계속 운영하였다. 상호는 ‘몽고아이스케키’였는데, 이 상호는 그 당시 마산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던 것의 하나였다.¹⁸⁾

마산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가정환경’란에는 용실의 가족 관계가 기록돼 있다. 할아버지(김영배, 金英培, 1892년생), 할머니(제갈련, 諸葛連, 1891년생, 생활기록부에는 할아버지·할머니의 이름과 생년이 적혀 있지 않다.), 아버지·어머니, 누나 2명·남동생 2명·여동생 3명 등 모두 12명이 함께 사는 대가족이었다. 용실은 8남매의 셋째이자 아들로서는 맏이었다. 부친이 3대 독자라 그의 출생은 온 동네가 떠들썩하게 축하했을 정도로 경사였다. 큰누님(김옥주)은 키도 크고 운동을 잘해 친구들 사이에 인기가 많았고 동생이라서가 아니라 아까운 애가 죽었다고 안타까워했다.

아버지 김기우(金鉉宇, 1914년생) 님은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였다. 직업은 ‘건어물상’, 종교는 ‘유교’로 기재돼 있다. 아버지 형제는 4남매(누나 1명, 여동생 2명)였고 아버지는 외동아들이었다. 그래서 용실에게는 친가로는 4촌 형제가 없다. 3·15의거 당시 아버지의 누님(용실의 큰고모)은 진동면 고현리에, 큰여동생은 마산시 서성동에, 작은여동생은 마산시 추산동에 살고 있었다. 아버지의 큰여동생, 즉 용실의 둘째고모는 마산고등학교 21회 동

18) 1978년도 3월 15일 자 동아일보 7면에는 「잊혀진 그날... 상처의 아픔만이: 마산의거 유족들과 부상자의 오늘」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사진과 함께 실려 있다. 거기에는 “해마다 이날이 다가오면 희생자 13명 중 8명의 유족들은 마산시 장군동 76 고 김용실 군(당시 18세·마산고 2년)의 어머니 이명선 부인(59) 집에 모인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는 1970년대 후반 김용실의 집이 장군동으로 다시 이사를 갔음을 알게 해 주는 것이다. 김용실을 마산고 ‘2년’으로 적은 것은 당시 학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온 착각이다. 후대 언론 보도 등에는 이런 착각이 적잖이 보인다.

기인 박종근 님의 어머니이다. 그러니까 김용실과 박종근은 내외종 사이가 된다.¹⁹⁾



〈그림-15〉 어머니 이명선 님 칠순잔치(부산) 때 찍은 가족사진

한복을 입고 의자에 앉은 분이 어머니. 어머니 왼쪽으로 동생 김태실 님, 한 사람 건너 매형 김영필 님(김영준의 둘째형님), 어머니 오른쪽으로 한 사람 건너 큰누님 김옥주 님, 한 사람 건너 둘째누님 김홍주 님. 맨 뒷줄 가운데(왼쪽 두 번째) 안경 낀 사람이 막내동생 김영실 님(마산고 34회). /김옥주/

제갈선광 님은 인척 아저씨 되는 용실 아버지를 큰 키(178센티미터 정도)에 마른 체형이었다고 알려주었다. 장남 용실을 잃은 뒤 슬픔 속에서도 몽고아 이스케이프를 운영하다, 1974년 8월에 61세의 나이로 타계하였다. 용실을 떠나보낸 슬픔과 용실의 친구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을 담은 글을 마산고등학교 교지 『무학』 19호(1961년 2월)에 실어, 보는 이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19) 김용실·제갈선광·박종근 세 분은 마산고등학교 21회 동기생이고 친인척 간이라, 김용실 열사의 생애를 정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두 분께 특별히 감사한다.

實의 벗들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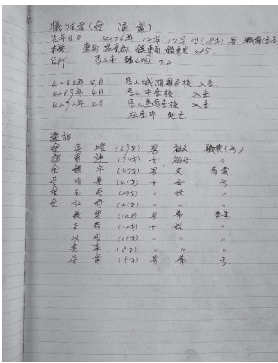
벌써 일 년이 지났지! 그날 건디다 못한 마산 시민의 분노는 터지고 말았지요. 그리고 여러 학생들은 분노의 대열에 앞장섰지요. 좀 더 잘 살아 보겠다고 …… . 그러나 학생들의 순진한 요구를, 시민들의 순수한 갈망을 총으로써 곤봉으로써 이승만의 주구(走狗)들은 맞아 주었지요. 여러 학생들과 같이 ‘부정 선거 다시 하자’고 소리소리 외치던 나의 귀여운 용실은 그들의 총탄에 맞아 영영 돌아오지 않는 외로운 고혼이 되고 말았어요. 동기들은 진급을 하고, 동창 선배들은 졸업을 하는데 집에서는 용실의 일주기를 지내야 되겠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울지는 않아요. 용실의 피가 헛되지 아니했고 여러 학생들이 흘린 피가 헛되지 아니했기에 피의 값으로 새로운 제2공화국이 탄생하였지요.

우리를 만 백성이 기쁨 속에 새로운 정부가 생겨났지요. 그러나 하루가 가고 이들이 가고 한 해가 지나고 본 오늘 우리들 거개가 실망의 감정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지요. 우리가 기대한 혁명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실정이니깐요. 오늘의 우리가 하루를 더 잘 살고 못 살고보다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모든 나라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나라가 되기에는 지금의 기성 정치 …… . 현 기성세대에는 너무나도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오직 이 세대를 이어받을 여러 학생들에게 남겨다 줄 일들이라고 여겨지지요. 여기 여러 학생들에게 바라건대 촌전(寸前)의 일에 그때그때 부닥치는 것만으로 오늘의 본분을 잊지 말고 명일의 참된 지도자가 되고 앞날의 훌륭한 정치인들이 되어야 할 것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줄입니다. (마산시 추산동 72, 김기우)

막내동생 김영실은 형 용실과 같은 마산고등학교 졸업생(34회)이었는데, 몇 년 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등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그는 3·15의거기념사업회 이사로서 사업회 발전에 많은 힘을 보태기도 했다.

어머니 이명선(李明善, 1920년생) 님은 부산에서 태어났다. 오빠 1명, 여동생 1명으로 된 3남매의 둘째였다. 마산의거를 집대성한 책자인 『3·15의거』 등을 펴내고, 3·15의거기념사업회 출범에 크게 기여한 홍중조 님(마산고 19회)은 이명선 님을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정의로운 여장부”였다고 증언했다.²⁰⁾ 어머니의 오빠, 즉 용실의 외삼촌은 이학렬(李學烈, 1929~2008) 님인데, 그는 마산 지역의 언론·문화인으로 향토사 연구에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긴 분이다. 어머니의 여동생(용실의 이모) 이말선 님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엘리트로서 부산시 부녀국장을 지낸 분이다. 3·15의거 희생자를 기리는 '3·15의거 기념회관'이 1963년 마산시 신포동에 세워졌다. 용실의 어머니는 이 회관 구내매점 운영권을 얻어 생계를 유지해 가기도 했다. 4·19의거희생자유족회 경남지부장 직책을 맡아 3·15기념회관 별채인 3·15영령봉안소에서 거행하는 제사의 제수를 마련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활동을 하다가,²¹⁾ 1994년 10월 75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그림-16〉
3·15의거희생
자유족회에서
보관하고 있는
희생자 명단 중
김용실 열사 관
련 기록

용실의 큰누님(김옥주)은, 역시 1차 3·15의거 때 산화한 마산고등학교 졸업반 김영준(19회)의 형님(김영필)과 혼인하였다. 두 사람은 꽃다운 나이에 숨진 동생들의 넋을 위로하는 자리에서 처음 만났다. 동생들이 같은 마산고등학교 학생이라는 사실에 가까워졌고 서로가

동생을 잃은 슬픔을 위로해 주다가 사랑이 싹트면서 1960년 10월 16일 백년 가약을 맺었던 것이다.²²⁾ 김영필 님은 이승만 대통령도 해야하고 전국이 안정을 찾은 1960년 6월 4일, 마산상업고등학교에서 열린 ‘마산의거 희생자 합

20) 세 번째 증언 듣기에서. 『3·15의거』 233~235쪽에 「자식을 가슴에 묻어 온 사연」이라는 증언이 실려 있어, 보는 이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21) 3·15의거 기념회관 입구에 5~6평 되는 공간에 ‘유족회 사무실’이 있었다. 이명선 님은 큰따님(김옥주)에게 매점을 맡기고, 유족회 사무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고 홍종조 님은 회고했다(세 번째 증언 듣기에서).

22) 『우리는 이렇게 싸웠다(3·15의거 증언록)』(2010년, 3·15의거기념사업회), 46~55쪽 및 『마산고등학교 80년사』(2016년, 마산고등학교 총동창회), 522쪽 참조.

동 위령제’ 때 유족을 대표하여 조사를 읽은 분이다.²³⁾

2022년 3월 말 현재, 김용실 열사의 형제는 본인을 제외한 7남매 중 둘째 누님, 막내남동생이 작고하고 5남매가 생존해 있다.



〈그림-17〉 김용실의 중학교
1학년 때 사진

뒷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김용실(마산중 1-D반), 가정교
사 이상오(마산중 3-B반), 큰
누나 김옥주(마산여고 3년), 둘
째누나 김홍주(마산여고 2년),
어머니, 막내동생 김영실.

/김옥주/

2.2. 학력

용실은 마산성호초등학교(48회)와 마산중학교(8회)를 졸업하고 1959년 4월 8일에 마산고등학교에 입학하였다. 1학년 B반으로 배정되었고 ‘급장’으로 뽑혔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는 야구 선수로 활약하였다. 초등학교 때 야구를 같

23) 김형철 님(마산고 21회)의 증언(첫 번째 증언 듣기). 3·15의거 당시 김형철 님은 1차 의거 때 희생된 마산고 김영준 선배(19회)와 같은 집에서 살아 내막을 잘 알고 있었다. 김영준 열사 가족은 평북 신의주에서, 김형철 님 가족은 평북 강계에서 월남하였고, 그때 장군동 3가 9번지, 10번지의 같은 집에 세 들어 살고 있었던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4장에서 다룬다.

이 한 조남규 님(마산고 21회)은 용실이 3루수를 본 것으로 기억했고(첫 번째 증언 듣기에서), 마산고 21회 동기인 고 김건일 시인(1942~2020)은 “마산 몽고아이스케키 집 아들이었고 키도 크고 잘생긴 야구부 포수²⁴⁾”로 그를 회상하였다. 용실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행동 발달 상황’란에는 “운동선수로서의 단련된 심신은”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야구 선수로서의 그에 대한 언급일 것이다.

마산고 1학년 재학 시절 용실은 ‘무학’ 클럽에서 활동하였다. 당시 마산고등학교에는 학생들의 적성이나 기호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클럽 활동을 하는 제도가 정착해 있었다. 졸업생들의 회고에 따르면, 1960년대 초반에는 20~30개의 클럽이 있었다고 한다.²⁵⁾ ‘무학’은 ‘청운’과 함께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 학업을 더 가다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클럽이었다. 각 클럽은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 ‘무학’에는 한 학년에 10명에서 15명 정도의 학생이 있었다고 하니, 전체로 보면 40여 학생들이 모여 미래를 꿈꾸었을 것이 분명하다. 푹푹한 후배가 입학하면 서로 쟁탈전을 벌였다고 한다. 키 크고 잘생기고 공부 잘하고 운동 잘하고 통솔력 있는 용실은 각 클럽에서 스카웃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 틀림없다. 그는 1학년 B반의 급장이었던 것이다.

2.3. 성품

용실의 성품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행동 발달 상황’에 압축적으로 나타나 있다. 1학년 담임 박수용 교사는 깨알 같은 글씨로 다음과 같이 용실의 됨됨이를 기록해 놓았다.

24) ‘blog.daum.net/xyy1976/3518’에서 따옴.

25) 첫 번째 증언 듣기에서.

“명량하며 착실 온건한 성품과 우수한 두뇌와 탁월한 지휘력으로 급장의 소임을 충분히 발휘하였고 운동선수로서의 단련된 심신은 희생심과 정의감이 강하였음. 3·15 마산의거에 가담, 데모 중 도립병원 앞에서 두부 관통으로 10시경 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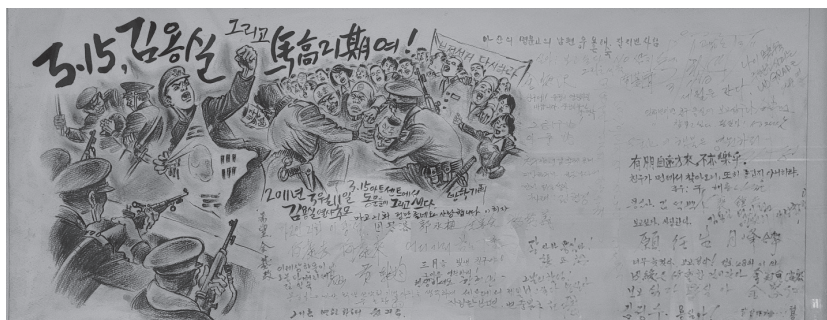
위 기록을 보면 용실은 ‘명량, 착실, 온건’한 성품을 지닌 학생이었다. 그는 1959년 10월 13일 실시한 ‘간편 지능 검사’(서울사대 A형) 결과 IQ 126에 이르는 ‘우수한 두뇌’의 소유자였다.²⁶⁾ 거기에 탁월한 지휘력까지 갖춰 급장의 소임도 충분히 발휘하였음이 담임의 증언으로 확인된다. 용실이 초·중학교 때 야구 선수로 활약했음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이런 성품과 심신과 능력을 갖춘 사람은 혼치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용실이 현하 목도하고 있는 ‘부정 선거’에 눈감고 있었다면 그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만큼 그는 ‘희생심’과 ‘정의감’이 강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성품의 용실을 기억하는 증언들은 참으로 많다. 마산고 21회 동기들이 하나같이 이런 증언을 한다는 점부터 기록해 두고자 한다(첫 번째·두 번째·네 번째 증언 듣기). 김용실 열사의 마산고 2년 선배이자 김영준 열사와 동기인 홍중조 님도 동일한 증언을 해 주었다(세 번째 증언 듣기). 여기에서는 이미 언급한 생활기록부 기록 이 외의 기록으로 전하는 용실의 성품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김용실·김영준 군 민주 의거 추념비’가 제막되던 1960년 7월 15일, 행사 현장에서 읽은 조용민 동기의²⁷⁾ 「그리운 벗 실아」에 실린 내용이다.²⁸⁾

26) 담임도 의견란에 ‘우수함’이라 기재해 놓았다.

“아무리 많이 쓰고 아무리 많은 냇두리를 한들 그 누가 우리들의 옛 정을
 알아주리오마는 지난 날 추억이 어린 그날들이라 다 같이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과 보호 밑에서 마음껏 뛰놀던 그날들. 때로는 그 무거운 배낭을 어깨에
 메고 이 산 저 산으로, 때로는 그 눈 오는 날 옷을 흠뻑 적셔 가며 산을 기어
 오르고, 때로는 한 칸 방에 오붓이 모여 앉아 앞날의 설계도 하고 행복한 꿈
 도 꾸었지. 그러다간 넌 현 사회의 부패성을 거리낌 없이 지적하고 우리 썩은
 정신을 일소하여 좀 더 보람 있는 생활을 하자고 마음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열
 변을 토하고 했지. 행복에 찌던 그날들이 지금도 눈앞에 선해. 그러나 실아,
 이젠 그 용감하고 통솔력 있고 유쾌하고 다정하던 너 실이가 없구나.”



〈그림-18〉 방학기 화백의 만화 ‘3·15, 김용실 그리고 마고 21기여!’

김용실 열사와 동기로 저명 만화가인 방학기 화백이 김용실 열사를 추모하고, 마산고를 비롯하여 의
 거에 참여한 남녀 고등학생들의 의기를 기리는 만화를 그렸다. 만화의 여백은 21회 동문들의 남기
 고 싶은 말로 빼곡히 채워져 있다. 2011년 3월 11일에 3·15아트센터에서의 일이다. /마산고등학교
 [21회 동기회]

- 27) 조용민 동문은 그 뒤 서울대에 수석 입학하여 물리학을 전공하고 양자 물리학계의 세계적 석학
 이 되었다. 2013년에, 미국 클레이 수학연구소(Clay Mathematics Institute, CMI)가 제시한 7대
 수학 난제의 하나인 ‘양-밀스 이론과 질량 간극 가설’을 푼 것으로 유명하다.
- 28) 이 글은 마산고등학교 교지인 『무학』 19호(1961년 2월 간행) ‘3·15 특집’에 처음으로 실렸고,
 『마산고등학교 80년사』(2016년 3월 간행) 308~309쪽에도 전문이 실려 있다.

용실은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과 보호 밑에서 마음껏 뛰놀던, 용감하고 통솔력 있고 유쾌하고 다정한 친구였다. 그러나 현 사회의 부패성에 대해서는 거리낌 없이 지적하고 우리의 썩은 정신을 깨끗이 청소하여 좀 더 보람 있는 생활을 하자고 열변을 토하곤 하던 정의로운 사람이었다(밑줄 참조). 마음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열변이라는 표현을 보아, 용실은 평소 마음 한구석에 늘 정의감이 자리 잡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하겠다.

다음으로, 『3·15의거사』 309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²⁹⁾

“3월로 접어들자, 마산고등학교 학생들 역시 자유당 정권에 대한 분노가 점차 고조되어 가고 있었다. 교실마다 급우들끼리 모이기만 하면 ‘2·28대구 사태’와 지금 부산동래고등학교가 심상치 않게 돌아갈 정도로 데모 열기에 휩싸여 있다는 사실을 주로 화제로 삼으면서 웅성대고 있었다. 3월 초, 대대장 정종식 집에는 1학년 B반 김용실 외 18명이 모여 ‘이 시점에서 우리 학생들이 좌시할 수 없지 않느냐?’고 의분심을 강하게 표출하면서 정권 타도에 나설 것을 다짐하는 모임을 가졌다.”

위 글은 김용실의 정의감·의분심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가 불의에 항거한 행위가 일시적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시인 고은이 『만인보(萬人譜)』에 쓴 용실의 모습이다.³⁰⁾

29) 김용실 등이 모여 거사를 도모하는 내용은 『3·15의거』 107쪽에도 나와 있다. 이 증언은 마산고등학교 20회 졸업생인 김정세 님의 「의거의 거리에서 부르짖던 그 함성」, 『3·15의거』, 208쪽에서 나온 것이다. 그 증언에는 학생 시위 사전 모의로 1960년 3월 4일부터 3월 13일까지 마산고등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진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당시 마산고에 재학했던 많은 졸업생들과 통화하여 확인한 바로는 그 누구도 당시 휴교를 기억하지 못하였다. 더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다.

지난해 술 취한 노인
술 취해
피투성이가 된 노인을 업고
병원에 왔다
병원 간호부들이
업고 온 그 소년을 기억하고 있었다

(중략)

1년 뒤
그 소년 김용실이
총 맞은 시체로 병원에 실려 왔다

간호부들이 울었다

30) '만인의 삶에 대한 기록'이란 뜻의 『만인보』는 세계 최초로 사람만 노래한 연작 시집이다. 1986년 『세계의 문학』에 연재를 시작해 1~3권이 간행된 후, 25년 만인 2010년 4월 총 30권이 완간되었다. 총 작품 수 4,001편, 등장인물은 5,600여 명에 이르며, '시로 쓴 인물 백과사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인이 개인적으로 만난 인물들과 사회 운동을 하며 만난 사회적, 역사적 인물들을 탁월한 이야기꾼의 솜씨로 형상화하였고, 특정 인물들을 실명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인간의 한 세대만큼 오랜 기간과 어마어마한 규모로 쓰여진 『만인보』는 결코 평탄하지 않은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온몸으로 부딪치며 살아온 작가의 인생을 그대로 반영하듯 우리 민족의 다양한 모습을 다양하게 녹여내고 있다(이상, 「다음백과」에서). 『만인보』에는 김용실을 제목으로 한 시가 무려 세 편이나 실려 있으니, 「용실이가 죽어서 왔어」(21권), 「김용실」(22권), 「김용실」(23권)이 그것이다. 『만인보』의 다른 시 속에도 김용실은 적지 않게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은 시인은 김용실의 살신성인 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 착한 용실이가
 그 착한 용실이가
 ‘빨갱이’로 죽어서 왔어
 이승만 대통령각하의 역적도당으로
 북괴 간첩으로 죽어서 왔어

(중략)

서로 내 동생 내 동생 하던
 그 용실이가 죽어서 왔어

- 「용실이가 죽어서 왔어」 중에서(제21권, 60~61쪽)



〈그림-19〉 1960년 4월 11일의 도립마산병원 모습

1년 전 용실은 술 취해 피투성이가 된 노인을 업고 도립마산병원에 왔다. 이 일로 간호부 누나들은 모두 의롭고 착한 용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 용실이 1년 뒤에는 ‘빨갱이’ 누명까지 쓰고 시체가 되어 병원에 안치되었다. 1차의거 때 행방불명이던 김주열은 얼굴에 최루탄을 맞은 채 27일 만에 마산 앞바다에서 떠올랐고, 시신은 도립마산병원으로 옮겨졌다. 사진은 김주열의 시신을 본 시민들과 학생들이 자유당과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고 있는 모습. /3·15의거기념사업회/

불의의 총탄에 쓰러지기 일 년 전, 용실은 길가에서 술 취해 피투성이가 된 노인을 도립마산병원으로 업고 간 일이 있었다. 자기 옷에 피를 묻혀 가면서 까지 노인의 목숨을 살린 이 소년의 가룩한 헌신에 간호부 누나들은 누구 없이 감동했다. 그때부터 다들 용실을 ‘내 동생’이라 부르며 그 이름이며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데 일 년 뒤, 그 용실이가 총탄에 맞아 비명에 가고 ‘빨갱이’ 누명까지 쓰게 되었으니, ‘누나’들이 가만있을 리 있었겠는가. 이 문제는 뒤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용실의 의로운 행위는 이렇게 몸에 배어 있는 것이었다.³¹⁾

마지막으로, 김용실 열사의 마산고 동기 김준형 님을 비롯한 뜻있는 분들이 거행한 추모 행사를 통한 내용이다.³²⁾

“마산 3·15의거의 역동적 요소의 하나였던 청년 김용실 열사의 살신의 대의와 용기를 기리고자 이 추모 공연을 마련하다.

불의에 맞서 자신의 온 삶을 던진 그의 선연한 저항으로 우리들은 가슴 가득히 자랑스러움과 슬픔을 맛보았고, 마산은 그 앓된 젊은이의 희생으로, 그리고 그날의 집약적 젊은 의분으로 이 시대의 의로운 마음의 성지가 되었다.

그날 이후 근 50여 년이 지난 지금 남아 있는 우리들은 그에게, 더 나아가 그때의 모든 용사들에게 그 무엇으로도 다 갚을 길이 없는 큰 빚을 지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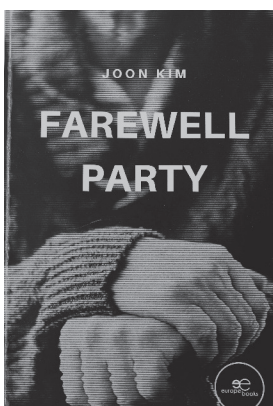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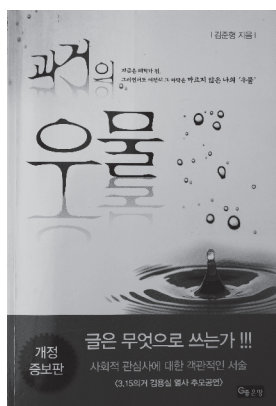
31) 용실이 술 취한 노인을 업고 도립병원에 간 사실은 용실의 아버지 김기우 님의 증언(『3·15의거사』, 326쪽)에도 나와 있다.

32) 추모 공연은 2011년, 2012년, 2013년 세 번 있었는데, 제1차 추모 행사 때 이 행사를 지원해 준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김종배, 김복남, 홍종조, 백한기, 이종섭, 강신평, 박용우, 박진형, 배종길, 신용운, 김한경, 조종석, 이복렬, 박필근, 김채열, 조정웅, 이현도, 박동석, 변재국, 변종민, 황한균, 변재웅, 김기현, 이성환, 이상수, 남기제, 이종량, 최광수, 박학욱, 안형호, 제갈선광, 김태룡, 김우규 외 다수(무순). 『과거의 우물』(2011), 131쪽에서.

다. 그런 의미에서 이 추모 공연은 우리들이 돌려주어야 할 빛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

- 「마산 3·15의거 김용실 열사 추모」, 『과거의 우물』(2011), 116쪽

이 글에 용실의 성품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다. “김용실 열사의 살신의 대의와 용기”, “불의에 맞서 자신의 온 삶을 던진 그의 선연한 저항”이라는 말 속에 압축으로 나타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위 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의 울림은 매우 크다. 그것은 3·15의거가 일어난 지 반세기가 흐른 그때 ‘왜’ 이런 추모 행사를 가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3·15의거가 그저 그런 심상한 것이었고, 그 의거가 심상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용실이 거기에서 한 역할이 뚜렷한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적잖은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런 종류의 추모 행사는 결코 열리지 않을 것이다.



〈그림-20〉

김용실을 회상하는 대목이 있는 김준형(21회) 동문의 소설 「과거의 우물」(2011, 좋은땅)과 Farewell Party(「송별연」, 2021, Europe Books) 표지

이런 행사를 가진 것은 “우리들은 그에게, 더 나아가 그때의 모든 용사들에게 그 무엇으로도 다 갚을 길이 없는 큰 빚을 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고해성사하는 마음으로 이 행사를 마련한 것이니,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용실이 ‘거룩한 분노’를 지녔던 열사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동기 용실에 대한 김준형 님의 이러한 마음은 그가 2021년에 영국 런던에서 출판한 영문 소설 *Farewell Party*(『송별연』) 제14장에도 나타나 있다. “그(주인공)는 때때로 고인인 된 급우 김용실을 빚진 감정으로 회상했다.(He sometimes recalled the late classmate, Kim Yong-Sil, with a feeling of debt)”라는 대목이 그것이다.

3. 의거의 현장에서

3.1. 2·28의거와 전국 학생 시위

앞에서 우리는 김용실 열사가 1차 의거 때 ‘꽃 중의 장미꽃’인 첫 번째 증거로 <그해 3월 초 대대장 정종식 집에는 18명의 마고생들이 모여 “이 시점에서 우리 학생들이 좌시할 수 없지 않느냐?”라며 의분을 강하게 표출했는데, 그 핵심이 김용실이었다는 점>을 꼽은 바 있다. 여기에서는 학생들의 이런 ‘사전 모의’와 관련된 부분을 좀 상세히 기술하기로 한다.

마산 지역 학생들이 3·15 부정 선거에 대규모로 참여하게 된 직접적 원인은 ‘2·28 대구민주의거’(이하 ‘2·28의거’)에 있다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 2·28의거는 1960년 2월 28일 일요일에 자유당 경북도당이 대구 시내 고등

학교 학생들을 등교하게 한 것이 발발의 계기가 되었다. 그 사연은 다음과 같다. 대구도 마산처럼 전통적으로 야당세가 강한 지역이었다. 2월 28일에 수성천변에서 민주당 부통령 후보 장면의 선거 유세가 알려지자 자유당 경북도당 관계자들은 거기에 학생들이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고등학생들은 정치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날 2시에 시작되는 유세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학생들이 거기에 가지 못하도록 학교별로 계획을 세우고 지시했다.

그리하여 경북고는 학기말 시험, 대구고는 토끼 사냥, 경북사대부고는 임시 수업, 대구상고는 졸업생 송별회, 대구여고는 무용 발표회 등등의 명목으로 고등학교 학생들을 일요 등교시켰다. 등교 지시가 떨어진 날은 2월 25일이었다. 그날 밤부터 경북고·대구고·경북사대부고 학도호국단 간부들은 비밀 회담을 갖고 등교 후에 항의 시위를 벌이기로 약속하였다. 이 약속에 따라 경북고 학생 800여 명은 2월 28일 낮 12시 20분, 교사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운동장에 모여 결의문을 낭독한 뒤 교문을 박차고 반월동, 중앙동을 거쳐 도청광장으로 행진해 갔다.³³⁾ 그들이 외친 구호는 “학생들의 인권을 옹호하라!, 학원의 자유를 달라!, 민주주의를 살리자!, 햇불을 밝혀라 동방의 별들아!, 일요 등교 웬 말이냐?” 등이었다. 학생들의 시위에 인도에 늘 어선 시민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내 주었다.³⁴⁾

2·28의거가 지펴 놓은 불길은 전국적으로 거세게 번져 나갔다. 3월 1일부

33) 대구고 학생 800여 명도 교사들의 제지를 뚫고 교문을 나서 경북도청으로 가고 있었으나, 이 사실을 미리 안 경찰들에 의해 중간에서 해산 당하였다. 경북사대부고생들은 교사들이 사전에 눈치를 채고 학생들을 강당에 가두어 놓는 바람에 오후 늦게 산발적으로 시위에 가담하였다.

34) 이상의 내용은 『3·15의거사』 265~270쪽을 참조한 것이다.



〈그림-21〉 1960년 2월 28일(일요일) 대구 수성천변에서 열린 민주당 장면 부통령 후보 연설회
오후 2시에 시작된 이 연설회에 학생들이 참가하는 것을 두려워한 자유당 경북도당 관계자들이 일
요일임에도 학생들을 등교하게 했다. 이에 분노한 학생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인 것이 2·28의거이
다. /3·15의거기념사업회/

터 선거 하루 앞날인 3월 14일까지 전국 학생들이 일어난 시위는 수를 헤아
리기 힘들 정도다. 2·28의거 이후의 학생 의거로는 3월 8일 대전에서 있었던
대전 학생 의거가 가장 기억할 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⁵⁾

3.2. 마산 학생들의 거사 모의

대구 2·28 학생 의거의 영향이 마산 학생들에게 미친 상세한 경위를 우리
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바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28의거의
바람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점을 비추어 보면, 마산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

35) 1960년 3월 1일~3월 14일에 있었던 주요 학생 의거에 대한 내용은 『3·15의거사』 272~275
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었을 것은 분명하다. 이 문제는 앞으로 면밀히 추적해야 할 과제로 미루고, 여기에서는 『3·15의거』, 『3·15의거사』에 기술된 내용을 압축하는 형식으로 글을 진행해 나간다.

이 부분에 대한 『3·15의거사』의 기술 내용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3월 1일: “마산고교의 대대장인 정종식 군³⁶⁾ 집에 1학년 B반 급장인 김용실 군 외 18명이 모여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학생들이 좌시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의분에 떨면서 정권 타도에 나설 것을 다짐한다. 그리고 3월 6일을 기해 행동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283쪽)³⁷⁾
- ② 3월 11일: “부산동래고등학교 학생 2명이 마산 시내에 잠입하여 학생들을 부추겨 데모를 시도할 목적으로 마산고등학교 학생위원장을 찾았다. 그들은 ‘마산 학생은 무얼 하느냐?’고 질타하면서 데모를 종용했으나 무위에 그쳤다.”(282~283쪽)
- ③ 3월 12일: 동래고 학생 2명은 “이튿날에도 시내 각 고등학교 학생위원장을 찾아가 끈질기게 학생 시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설득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가는 곳마다 마산 학생 대표들은 감시가 극심한 지금의 상황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오히려 타일러 보내는 것이었다.”(283쪽)
- ④ 3월 13일 밤:³⁸⁾ “남성동파출소 앞에서 마산상고 2년 김상룡 군 등 3명이 시험 답안지 뒤에 구호를 손수 쓴 빼라 1백여 장을 시내 곳곳에 뿌리다

36) 3학년에 진급하고 난 뒤 정종식은 학생자치회 훈율부장(訓律部長) 직책을 맡게 된다. 『3·15의거사』 등의 ‘대대장’ 표현은 이 ‘훈율부장’을 두고 한 말이다.

37) 그러나 거사 모의가 누설된 탓인지 형사와 교사들의 감시가 심해져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였다.(283쪽 참조)

경찰에 붙들렸”다. “내용은 ‘백만 학도여 꺾기하자!’, ‘자유당을 타도하자~’는 것 등이었다. 그리고 시내 요소요소에는 ‘마산 학생이여! 일어나라! 조국의 위기는 바야흐로 내일로 박두했다!’라는 격문까지 나붙기도 했다.”(28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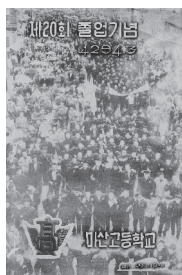
- ⑤ 3월 14일 오후 6시 무렵: 소규모 학생 시위가 일어났는데, 그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오동동 민주당사 앞에서 개최된 정견 발표를 듣기 위해 모였 던 군중들 중 학생 3백여 명이 ‘협잡 선거 바로 잡자!’고 목청껏 외친 데 뒤이어, 고 조병옥 박사와 부통령 후보 장면 만세를 소리 높여 불렀”던 데서 시위가 일어난 것이다. 경찰이 출동하고 다소의 공방이 오갔으나, 민주당원의 간곡한 만류로 학생 시위는 20분 만에 해산되었다.(283쪽)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①이다. ①이 마산고 20회 김정세 님(당시 2학년)의 증언에서 나온 것임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다. 김정세 님에 따르면, 모의는 3월 1일에 이루어졌고, 3월 2일에 모의 결과를 학교 전체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해 등교하자마자 각 학급 대의원을 불러서 이 사실을 전달하고 대 의원은 모두 찬동했다. 그러나 거사일이 3월 6일로 결정되었음에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모의 사실이 탄로났음을 알고 전전긍긍했다는 것이다.

①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일은, 정종식·김정세 등 선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학년 B반 급장인 김용실 군 외 18명’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증 언자 김정세 님이 이 글을 쓴 것은 30여 년 세월이 흐르고 난 뒤이기 때문에, 당시 현장에서 산화한 후배 김용실을 추도하기 위해 그랬을 수도 있다. 그러나

38) 언론의 보도(동아일보, 1975.04.23.)에는 그 날짜가 3월 12일 밤으로 되어 있다. 관련 내용은 뒤 에 다시 나온다. 『3·15의거사』, 332쪽에도 3월 12일 밤으로 나온다.

이것은 3월 6일로 예정된 거사의 실제 주동자는 김용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큰 키, 운동으로 다져진 체력, 급장이라는 지도력, 우수한 두뇌, 체질화된 봉사정신과 정의감으로 무장된 김용실임을 감안해 보면 학년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같이 그는 제1차 3·15의거의 ‘꽃 중의 장미꽃’이 될 자질을 운명처럼 타고났다고 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그림-22〉 제20회 졸업 기념 사진첩 속표지

고등학교 졸업 기념 사진첩 속표지에 학생들이 시위하는 장면을 실는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학생들이 주축이 된 3·15의거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매우 크다는 점, 그 의거 중심에 마산고 학생들이 있었다는 점 등을 높이 평가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20회 졸업생 가운데서는 김정세, 박광규, 박문달(학생회장) 동문이 국가 유공자로 선정돼 있다.

3.3. 탈취 당한 할머니의 투표권

김용실 열사의 어머니 이명선 님은 3·15의거 관련 어느 방담회에서 “당시 우리 집에 투표권자가 5명이었는데 투표용지가 1장밖에 전달되지 않았습시다.”라고 증언한 적이 있었다.³⁹⁾ 다섯 장 투표용지의 주인공은 할아버지·할머니·아버지·어머니, 그리고 큰누나(김옥주)였다. 그러나 투표용지가 1장밖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말은 용실 어머니의 착각이 아닌가 한다. 용실의 집에 전달되지 않은 것은 실제로 할머니 투표용지라는 증언이 설득력을 얻기 때문이다. 그 까닭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김용실 열사와 마산고 21회 동기인 배종길 님이, 할머니 투표권이 나

39) 「3·15의거 어떻게 계승시킬 것인가」, 1990년 3월 15일 〈남도일보〉 3면. 이명선 님의 증언인 「자식을 가슴에 묻어 온 사연」(「3·15의거」), 234쪽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

오지 않아 용실이 당일 추산동사무소에 항의차 방문했던 사실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용실이 사망하고 난 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마산을 방문하고 용실의 집을 찾았을 때의 일이다. 김선태·조재천·박한상 의원이었는데, 김 의원은 중간 키에 얼굴이 넓고 덩치도 있었고, 조 의원은 작은 키였으며, 박 의원은 큰 키에 카이젤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고 배종길 님은 회상하였다.⁴⁰⁾ 진상조사단은 용실의 할머니가 울고 계시는 것을 보고 사유를 물었다. 아버지가 대답하셨다. 어머니(용실 할머니)는 “나 때문에 우리 용실이 죽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며, 자신의 투표권이 나오지 않아 용실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항의하고,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에 시위에 참여하여 참변을 당했다는 것이었다. 그 자리에 ‘무학’ 클럽에서 같이 활동했던 배종길·조용민 등 동기들 몇 사람도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의 그 대답을 푹푹하게 들었던 것이다.⁴¹⁾ 3월 하순의 일이었다.

40) 첫 번째 증언 듣기 및 여러 차례에 걸친 추진위원회와의 통화에서 확인한 것이다.

41) 민주당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할 일이 있다. 3월 15일의 유혈 사태의 파장이 워낙 컸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그들대로, 야당인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또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또 그들대로 자체 진상조사위원들을 마산으로 보냈다. 민주당이 그 활동에 들어간 것은 사건 다음날인 3월 16일 낮이었고, 민주당인권옹호위원회 의장인 김선태(金善太) 의원을 비롯하여 오위영(吳緯泳)·정헌주(鄭憲柱)·태륜기(太倫基) 의원이 그 일을 맡았다(1960년 3월 16일, 조선일보 1면 기사 참조). 대한변호사협회는 8명의 변호사를 위원으로 하여 1960년 3월 18일부터 3일 동안 현지에서 진상을 파악하고, 3월 28일에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이 내용은 1960년 3월 29일과 30일에 걸쳐 동아일보에 대서특필되었다.) 변협의 이 발표는 매우 믿을 수 있는 것이어서 당시 우리나라 변호사들의 기개가 어떠했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여당과 야당의 자체 조사 결과가 상반되자 여·야 합동 조사단도 꾸려져 활동에 들어갔다. 여당 국회의원 5명과 야당 4명 등 모두 9명으로 꾸려진 합동조사단은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참석한 야당 의원은 김선태·윤명운(尹明運)·이병하(李炳夏)·정중섭(鄭重燮)이었다. 배종길 님이 밝힌 진상조사위원들은 여기에서 언급한 그 어느 것과도 일치하지 않아, 그동안 주목 받지 못한 또 다른 진상위원회 활동이 있는 게 아닌가 한다. 배종길 님이 세 국회의원의 인상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둘째, 당시 민주당 마산시당 간부들이 마산시에도 총 유권자의 20%에 해당하는 13,000여 명에게 번호표를 주지 않고 사전 투표를 감행한 처사가 백 일하에 드러났다고 밝힌 점이다.⁴²⁾ 따라서 김용실 집의 경우, 5명의 유권자 중 1명에게 번호표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맥락에서도 설득력이 있다. 아무리 부정 선거에 혈안이 되었다 해도 한 집에 80%에 해당하는 투표권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김용실이 동사무소에 항의 방문한 것은 할머니 투표권이 나오지 않아서였고, 이 점이 용실을 시위 현장으로 가게 한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3월 초순 마산고 20회 정중식 선배 집에 모여 거사를 주도하는 등 불의를 용납할 수 없었던 김용실로서는 당연한 일이었다 하겠다.



〈그림-23〉 국회조사단의 증언 듣기

국회조사단이 3월 26일 시위 주동 민주당원 천기홍 씨로부터 3·15 부정 선거 및 시위 사태를 청취하고 있다. 원내는 북마산파출소 방화범으로 몰려 심한 고문을 당한 정상숙. /『3·15의거 사진집』, 226쪽/

42) 『3·15의거사』 290쪽 참조.

3.4. 친인척들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다

아침나절 할머니의 투표권 문제로 추산동사무소를 향의 방문하고 돌아온 용실⁴³⁾은 이미 중대 결심을 하고 있었다. 대구·대전·부산 등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학생들 시위 때, 붙잡힌 학생들을 경찰이 마구 구타하는가 하면 몇 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한 사실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시위에 참여한다는 것은 자칫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하는 일인지도 모른다고 속으로 생각했음이 분명하다. 그러지 않고서야 그날 낮에 그가 인근에 살고 있는 친인척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아는 노인들은 이승을 뜨기 전에 조상의 산소를 둘러본다는 말이 있다. 1960년 3월 15일 낮에 용실이 마산에 살고 있던 두 분의 고모와 외삼촌 등에게 인사를 하러 다녔다는 것은 이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그림-24〉 박종근(21회) 님의 소중한 증언을 들던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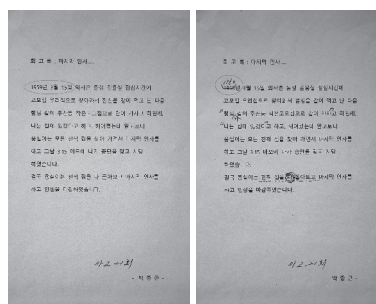
2021년 10월 27일 총동창회 사무국에서 박종근(오른쪽 뒤에서 두 번째) 님으로부터 1960년 3월 15일 낮에 김용실 열사가 친인척 집에 일일이 작별 인사를 다녔다는 소중한 증언을 들었다.

추산동 자기 집에서 나와 먼저 서성동에 있는 둘째고모 집부터 찾았다. 앞

43) 동사무소에 항의하러 간 용실은 할머니의 번호표를 반장이 가져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동사무소에서 나와 다시 반장을 찾아가 따졌지만, 그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용실을 무시했다. 사전 투표 소문이 사실임을 확인한 용실은 터질 듯한 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 밝힌 것처럼, 21회 동기이자 고종형인 박종근 님의 어머니는 용실의 둘째 고모가 되는 분이다. 두 사촌 형제는 함께 점심을 먹었다. 식사를 마친 용실이 고종형한테 “형, 추산동 작은고모님 집으로 같이 가자.”라고 말을 꺼냈다. 형은 “나는 집에 있겠다.”라고 하면서 가지 않았다. 박종근 님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용실은 크게 무슨 내색을 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용실은 미제 군인 위커를 신고 있었는데, 이것은 당시 고등학교 학생 사이에 유행하던 것이었다. 학생복이 아닌 평복을 입고 있었고, 시간은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였다고 박종근 님은 회상하였다.⁴⁴⁾

이 내용은 김용실에 대한 박종근 님의 ‘회고록: 마지막 인사 …’라는 조그마한 문서에서 나왔고, 이 사실을 안 우리 편찬위원회에서 요청하여 박종근 님과 면담한 결과에서 얻어진 것이다. 그 회고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 “(전략) 헤어졌는데 알고 보니 용실이는 모든 친척 집을 찾아가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그날 3·15 데모에 나가 총탄을 맞고 사망하였습니다. 결국 용실이는 친척 집을 다 돌아보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인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림-25〉 박종근 님의 회고록

짧은 이 회고록은 실로 엄청난 사실을 담고 있다. 김용실 열사가 죽음을 각오하고 친인척 집에 일일이 인사를 다녔다는 사실이 실려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은 지금까지 밝혀진 바가 없는 것이었다. 박종근 님은 3·15의거가 일어난 해를 1959년으로 착각하여(왼쪽 사진 원 부분) 편찬위원회에서 이를 수정하고(오른쪽 사진 원 부분), 대화 부분은 따옴표 등을 해 두었다.

점심을 했을 때만 해도 박종근 님은 친구이자 동생인 용실이 추산동 작은

44) 두 번째 증언 듣기에서.

고모 집에만 가는 줄 알았는데, 그가 흥탄에 쓰러지고 난 뒤에 들은 얘기가 마산에 있는 친인척 집에 다 인사를 왔더라는 것이다. 이 대목을 박종근님은 ‘알고 보니’라고 표현한 것이다. 시간적으로 유추해 보면, 그날 오후 2시~3시에 추산동 막내고모 집, 3시~4시 창동 외삼촌(이학렬 님) 집에 인사를 간 것으로 보인다.⁴⁵⁾

용실이 친인척 집에 인사를 다니고 있었을 무렵, 마산은 민주당원을 중심으로 하여 이미 시위에 들어가 있던 상태였다. 여러 가지 부정·협박 선거의 징후가 노골화하자, 민주당에서는 오전 10시 30분에 일찌감치 독자적으로 ‘선거 포기’를 선언하였다. 시당 간부들은 이런 사실을 당사 앞에 모인 군중들에게 폭로하는 대자보를 붙이고 방송을 했는데, 이를 보고 들은 시민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후 3시 40분 무렵 정남규(경남도의원), 강경술(마산시의원), 황철규(마산시의원) 등을 위시한 시당 간부들이 머리에 수건을 동여매고 2장의 플래카드를 들고 나서면서 시위는 시작되었다. 시위대는 시당 앞에서 출발하여 상가를 돌아 남성동파출소 앞을 지나고 부림시장을 거쳐서 다시 당사 앞으로 돌아왔다.⁴⁶⁾ 이 시위는 매우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어떤 불상사도 발생하지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는 이 시위를 ‘제1차 데모’라고 불렀다.⁴⁷⁾ 용실이 친인척 집을 방문하고 있었을

45) 그때 큰고모님은 진동에, 이모님은 부산에 살고 계셨기 때문에 그곳까지는 인사를 하지 못하였다.

46) 이상 시위 과정 등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표한 「마산 사건 진상 보고서」(1960.03.29., 동아일보 2면)에 따른 것이다.

47) 김주열 열사의 최루탄 시신이 떠오르면서 촉발된 ‘제2차 마산 3·15의거’가 일어나기 전까지, 마산에서 일어난 큰 시위는 3월 15일 당일의 시위밖에 없었다.(나중에 이날의 시위를 ‘제1차 마산 3·15의거’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런데 3월 15일의 시위는 낮에 일어난, 이른바 ‘합법적 시위’와 밤에 일어난 ‘유혈 시위’로 나뉘기도 한다. 그래서 당시 언론에서는 전자를 ‘제1차 데모’, 후자를 ‘제2차 데모’라 불렀는데, 이 ‘1차, 2차’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아야 한다.

때 마산은 이 데모로 술렁이고 있었다. 용실은 이런 광경을 직접 보았거나 누구를 통해 들었을 것이고, 또 저녁에 다시 모이자는 소문도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⁴⁸⁾

3.5. 민주의 꽃, 무학초등학교 앞에서 스러지다

용실이 숨을 거둔 지점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마산시 청~무학초등학교의 어느 지점(신마산)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북마산과 출소 근처라는 것이다. 전자는 마산고등학교 학적부 및 교정의 추념비, 당시 각종 언론 보도, 마산고 친구(전용문)의 증언 등에 근거한 것이다. 후자는 마산고 선배(김정세) 및 그의 여동생(김정희)의 증언 등에 근거한 것이다.⁴⁹⁾ 더 많은 증언과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하겠지만, 현재의 우리는 조심스럽게 전자에 동의하는데, 아래에서 그 내용이 밝혀질 것이다.

친인척 집을 둘러보고 난 뒤 용실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잘 알려진 게 없다. 현재 우리가 확보해 놓은 유일한 자료는 어머니 이명선 님의 방담 내용이다.

“투표일이라 그날 집에서 쉬고 있던 용실이가 반장과 ‘왜 기본권을 박탈하느냐’며 싸우더니 오후 7시쯤 집을 나가더군요. 지금도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러다가 밤 9시가 넘었는데 시위대들이 도망치면서 ‘용실이가 총 맞았다.’고

48) 아니면, 3월 초 마산고 시위 모의(시위는 불발)에 참가한 사람들 사이에는 3월 15일 저녁에 어디에서 만나자는 약속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49) 김정세, 「의거의 거리에서 부르짖던 그 함성」, 『3·15의거』, 208~212쪽. 김정희, 「붉게 타는 진달래」, 『3·15의거』, 213~216쪽.

고함을 쳐서 그때부터 온 식구들이 집을 나서 용실이를 찾아 헤맸습니다.

다음날 용실이 시체는 도립병원에서 찾았습니다. 죽음도 모자라서 용실이 주머니에 용공 조작 메모를 집어넣었던 경찰이니 더 할 말 있습니까.”⁵⁰⁾

어머니 증언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유추해 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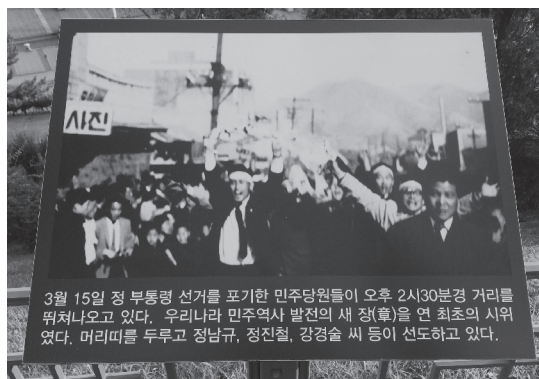
첫째, ‘반장’과의 다툼이다. 할머니의 투표권이 나오지 않자 오전에 동사무소를 찾아 항의를 했다는 내용은 전술한 바와 같다. 반장과 다툼 일은 그때의 일이 아니다. 분이 풀리지 않은 용실이 다시 반장을 찾아 경위를 따졌던 것으로 보인다. 부정 선거를 하는 데 반장이 모종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지 않고서는 반장과 다투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이 박탈된 데 따른 용실의 분노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오후 7시쯤 집을 나갔다는 증언이다. 낮에 친인척 집에 ‘일일이’ 인사를 하고 난 뒤 용실은 집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⁵¹⁾ 바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날 오후 마산 시내는 합법적인 것이긴 하나 이미 ‘데모 상태’로 들어가 있었다. 할머니 투표권이 나오지 않은 점 등으로 울분을 참을 길 없는 용실이라면 그 시위대와 합류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그런데도 집으

50) 앞서 소개한 「3·15의거 어떻게 계승시킬 것인가」, 1990년 3월 15일 <남도일보> 3면에서.

51) 마산고등학교 학생들이 3·15의거에서 투쟁한 과정을 소상히 밝힌 서익진 교수는 김용실이 집에서 나가 시위에 참가하는 장면을 이렇게 기술해 놓았다. “김용실은 저녁 7시에 사람들이 시청 앞에서 모이기로 했다는 사실을 최소한 알고 있었고 데모에 참가할 생각이 확고했음이 틀림없다. 용실은 오후 늦게 고모 집에 레코드 받으러 간다며 나갔다가 왔고, 저녁 먹고는 식구들과 방에서 같이 노는 등 가족들에게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다. 7시 경 자산동 쪽에서 ‘와, 와’ 떠드는 소리가 들리자 창가에 나가 보는 모친에게 런닝 바람에 놀던 용실이 잠시 구경하고 오겠이라며 나갔다. 동생들은 용실형이 한 위카 끈을 조여매고 시계를 보더니 ‘아직 빠르다’고 중얼거리며 나가는 걸 봤다.”(「3·15의거 고교별 투쟁사: 마산고등학교편」 「3·15의거」 23호, 2022년 2월, 173쪽)

로 돌아왔다는 것은 모종의 ‘약속’이 있었음을 알게 해 준다. 그 약속이 사전에 있었던 것인지, 3월 15일에 우연히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적어도 후자와 같은 일이 있었음을 우리는 당시의 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날 시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가 총상을 입고 경찰에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당한 마산고 동문의 한 사람인 김무신(21회) 님은 당시의 상황을 일기로 남겼는데, 거기에 저녁 7시 마산시청 앞에서 집결하기로 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이다.⁵²⁾



〈그림-26〉 민주당원들의 시위
(국립3·15민주묘지 야외 전시용 사진대에서)

그런데 다음과 같은 상황은 저녁 7시에 마산시청 앞에서 만나자는 약속 일부는 사전에 이루어지기도 했던 것처럼 보이게도 한다. 3학년으로 졸업식을 마친 상태에서 1차의거에 참여했다가 산화한 19회 김영준 열사의 행적에서도 저녁 무렵의 약속이 드러난다는 점이 눈길을 끌기 때문이다. 김영준 선배와 같은 집에서 살았던 마산고 21회 김형철 님은 “그날 저녁 해질 무렵에 영준 선배는 충직 선배와 함께 시위 현장으로 나갔다.”라고 증언했는데, 이것은

52)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5장에서 다루어진다.

가볍게 넘길 것이 아니다.⁵³⁾ 19회 두 선배(김영준·신충직)가 그날 해질 무렵에 시위에 참여한 사실이 김무신 동문이 말한 증언과 같은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사전에 모의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증언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쨌든 ‘7시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로 한 암묵적 약속 혹은 계획된 거사는 제1차 3·15의거 때 왜 마산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시위에 참여했고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내었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한다.⁵⁴⁾

셋째, 용실이 숨진 장소에 대한 암시이다. 용실의 어머니는 “시위대들이 도망치면서 ‘용실이가 총 맞았다.’고 고함올” 친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⁵⁵⁾ 당시 용실의 집은 추산동, 3·15의거기념탑과 포교당 사이 마산복싱체육관 근처였고 그 시간대에 가족들은 집에 있었다. 그런데 용실의 사망 관련 고함 소리를 집에서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용실이 집 근방에서 총을 맞았기 때문이다. 무학초등학교 근처에서 머리 관통 충격을 받아 현장에서 쓰러진 장면을 목격한 누군가(아마도 친구들)가 용실의 집 쪽으로 도망가면서 용실의 집을 향해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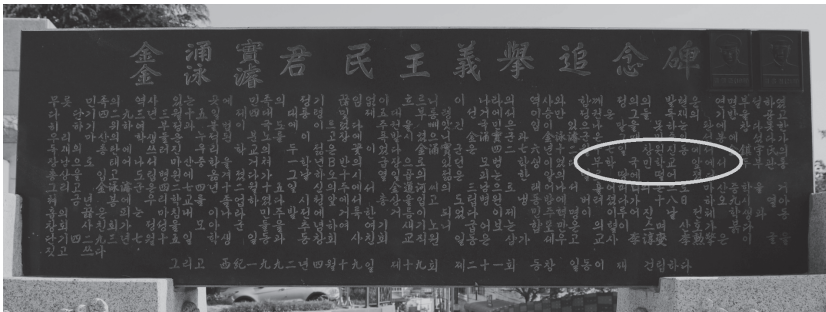
53) 첫 번째 증언 듣기에서, ‘충직 선배’는 마산고 19회 ‘신충직’ 님을 말한다. 신충직 선배의 집은 당시 마산시 장군동 3가 9번지, 10번지였고, 여기에 마산고 선배 세 사람 가족과 김형철 님 가족이 세 들어 살았다. 그러니까 1960년 3월 15일 당시 그 집에는 마산고 19회 동기 네 사람, 21회 한 사람 등 모두 다섯 사람의 ‘마산고 학생’이 기거했던 것이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제4장에 상세하게 다룬다.

54) 마산고 재학생으로 3·15의거 국가 유공자와 3·15의거 공로자로 등록된 동문만도 다음과 같이 모두 열두 분이다. ■3·15의거 국가 유공자: 김영준(19회)·김용실(21회) ■3·15의거 공로자: 강대인·한경득(이상 12회), 정현팔(15회), 김정세·박문달·박광규(이상 20회), 서기홍·송정명·김무신(이상 21회), 박광수(22회). 이 명단은 모두 추모 동산 바닷 돌에 새겨져 있다.

55) 그러나 이명선 님의 증언인 ‘자식을 가슴에 묻어 온 사연’(『3·15의거』, 234쪽)에는 “시위대에 끼인 학생들이 도망치면서 ‘복마산파출소에서 용실이가 총에 맞았다.’는 고함소리가 들려왔다.”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덧붙일 사항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3·15의거』 등을 집필한, 마산고 19회 졸업생 홍중조 님과 인터뷰를 할 때(세 번째 및 네 번째 증언 듣기), 이명선 님이 아들 용실의 사망 지점을 현재 3·15의거기념탑 위쪽 어디로 기억하고 있더라는 점을 들려주었다는 것이다.

함을 썼을 것이라는 유추가 가능하다. 따라서 일부 자료에 기술된 것처럼 용실은 북마산과출소 앞에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다음과 같은 자료나 증언들도 용실이 무학초등학교 근방에서 절명한 것임을 잘 보여 준다.

(1) 용실의 모교 마산고등학교 교정에 세워진 추념비에 “무학국민학교 앞에서 두부 관통 총상을 입고”라고 새겨져 있는 점. 추념비는 1960년 7월 15일에 세워졌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해 두었을 것이다.



〈그림-27〉 마산고 추모 동산에 있는 민주익거 추념비

김용실 열사가 무학국민학교(무학초등학교) 앞에서 사망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흰 타원형 부분).

(2) 앞서 소개한 마산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마산 3·15의거에 가담, 데모 중 도립병원 앞에서 두부 관통으로 10시 경 사망”으로 기록돼 있는 점. 위 (1)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립병원과 무학초등학교는 300여 미터 거리여서 거기가 거기라고 할 수 있다.

(3) 대한변호사협회의 진상보고서에 “위의 3명⁵⁶⁾은 모두 두부 관통상으로 즉사하여 시청 앞 광장에서 도립병원에 시체로서 인계된 자임.”으로 보고한 점.

56) 김영호·김효덕·김용실을 말한다.

시청 앞 광장은 도립병원과 인근해 있어, 이 증언은 위 (2)와 일치한다 하겠다.

(4) 1966년 4월 19일 자 조선일보 4면에는 '4월의 젊은 낮: 「반독재」의 선봉에 선 그날의 얼굴들'이라는 제목의 7단 기사가 실렸는데, 거기에 “김용실(18·마산고 1년·마산무학국민학교 앞에서 두부 관통)”으로 기재된 점.⁵⁷⁾ 1966년 4월이면 3·15 부정 선거가 있는 지 6년이 흐른 시점이다. 1960년 3월 15일~4월 19일 시위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시간이 흘렀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5) 용실과 같은 마산고 21회 동기인 전용문 님(의사, 소설가)의 ‘3월이 오면’에 매우 구체적인 당시 상황이 적혀 있는데, 용실의 사망 지점이 무학초등학교 근처라고 한 점. 해당 부분을 그대로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⁵⁸⁾

“그해 3월, 우리는 자유당의 독재에 항거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섰다. 마산 3·15의거였다. 4·19의 기폭제가 되고 늙은 대통령을 하와이로 떠나게 만든 그날 나는 친구였던 김용실을 잃었다. 눈이 부리부리하고 목소리가 우렁찼던 그는 급장을 맸고 있던 모범생이었다. 이승만 정권의 부정 선거를 규탄하던 그날 밤, 불타는 북마산 과출소를 뒤로 하고 그와 나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시청 쪽을 향해 전진하고 있었다. 수많은 군중들이 합세한 대열이 몽고정을 지나고 무학초등학교 부근까지 왔을 때 어둠을 찢어발기는 듯한 총소리를 들었다. 경찰의 무차별 발포였다. 내 옆자리의 누군가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걸 보고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자산동 뒷길로 해서 무학산으로 달아났다. 내가 죽을힘을 다해 달아나고 있던 그때 김용실은 두부에 총을 맞고 절명했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벼락은 가까운 젊

57) 거기에는 1960년 4월 19일 시위까지의 희생자 명단이 포함되어 있다. 김영준 열사에 대해서는 “김영준(21·15일 마산시청 앞에서 총탄 맞고 18일 절명)”으로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다.

58) 부산일보, 2007.03.27.

은 목숨 하나를 불살라 버렸다.”

의거에 동참한 친구의 증언보다 더 정확한 것이 다시 있을까. 전용문 님의 위 증언은 당시 용실의 행적을 재구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

(6) 마산고등학교 3·15의거 참여 투쟁사를 상세히 정리한 서익진 교수의 다음과 같은 기술도 김용실의 사망 장소가 무학초등학교 인근임을 잘 말해 준다. “송정명과 김정세도 무학국교와 몽고간장 앞에서 시청에 이르는 대로 시위 군중 속에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일진일퇴를 반복했고, 송정명은 한 8시까지 그랬다고 생각한다. 이 혼란한 와중에 김용실은 우연히 둘째 남동생(김태실, 마산중 3년)을 만났다. 동생이 “형, 언제 나왔노?” 하고 묻자 그는 “지금 사담할 시간 없다.”며 앞으로 뛰쳐나갔다. 동생은 이후 살아 있는 형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⁵⁹⁾

(7) 3·15의거희생자유족회에서 보관하고 있는 ‘희생자 인적사항’은 우리에게 중요한 암시를 준다. <그림-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용실의 애초 사망 장소는 ‘북마산파출소 부근’으로 기재돼 있다. 그러나 그것이 북마산파출소 부근이 아니라 무학초등학교 인근이었다는 여러 가지 새로운 증거들을 접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필로 ‘무학국민학교’라고 부기(付記)해 둔 것이 저간의 사정을 잘 말해 준다 하겠다. 이처럼 김용실의 사망 장소는 애초 북마산파출소가 유력했으나, 차차 무학초등학교 인근으로 바뀌어 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3월 15일 밤 유혈 시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⁶⁰⁾

59) 서익진, 앞의 글, 174~175쪽.

60) 아래 내용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표한 「마산 사건 진상 보고서」(1960년 3월 29일, 동아일보 2면)를 크게 참고하여 우리가 재구한 것이다.

김영준 (金永濬)	마산고등학교	학부 20세	左側臀部入 右側臀部入	구멍	3.15의거학생	김영준 (金永濬)
김영호 (金永浩)	중앙중 1년	학부 19세	左側臀部入 左側臀部入	구멍	"	"
김영석 (金永碩)	공산중 1년	학부 19세	左側臀部入 左側臀部入	구멍	"	"
김영진 (金永鎭)	마산고 1년	학부 18세	左側臀部入 右側臀部入	"	"	김영진 (金永鎭) 부근
김영웅 (金永雄)	장곡중 1년	학부 19세	左側臀部入 右側臀部入	"	"	"
전익구 (全益奎)	장곡중 1년	학부 18세	右側臀部入 前額部入	"	"	김영준 (金永濬) 부근
오성원 (吳成元)	구우중 1년	학부 19세	右側臀部入 後部入	"	"	북마산 파출소 앞
김우열 (金朱烈)	마산고 1년	학부 19세	" (頭部入)	"	"	가정부근
김우열 (金朱烈)	마산고 1년	학부 18세	" (後部入)	"	"	경찰부근

〈그림-28〉 3·15의거 희생자 김용실 인적사항(3·15의거학생자유죽회 보관)

오후 7시 무렵 민주당사 앞에는 울분에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 삼시간에 1천여 명이 되었다. 이 군중들은 남성동파출소를 향하여 행진하였다. 대기하고 있던 소방자동차가 군중들에게 물을 뿌리기 시작하였고, 군중들은 돌팔매질로 대응하여 파출소 유리창을 깨었다. 경찰의 실탄 발사가 있었고, 앞에 섰던 학생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군중들은 부랴부랴 흩어졌다. 경찰은 도주하는 그들 뒤로 실탄 사격을 계속하였다. 시위 군중 일부는 북마산 방향으로, 일부는 시청 방향으로 달아났다. 북마산 방향으로 달아난 군중은 북마산파출소에 도착하여 경찰과 대치하였다. 누가 먼저인지는 몰라도 투석전·실탄 사격전이 벌어졌다. 여학생을 포함한 다수의 학생이 머리 또는 가슴에 관통상을 입었고, 그 과정에서 북마산파출소에 불이 일어나 파출소가 전부 타 버렸다.⁶¹⁾

한편, 남성동에서 쫓겨 시청 방향으로 향하던 군중들은 오후 7시 30분 무

61) 경찰은 북마산파출소 전소 사건을 공산당의 배후 조종으로 몰고 갔으나, 얼마 가지 않아 그것은 거짓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 부분은 여러 책자 및 매체에 상세하게 보도가 되었기에 여기에 서 길게 적지 않는다.

렵부터 무학초등학교 앞에 결집하고 있던 학생들과 합세하여 다시 시청을 향하여 전진하기 시작하였다. 행진이 남전(南電) 마산지점 앞에 당도하자 그곳에서 경찰과 충돌하게 되었다. 경찰 소방차는 헤드라이트를 군중을 향해 쏘아 붙였고 군중은 후퇴하였다. 헤드라이트를 끄라며 군중이 던진 돌이 소방차 운전자의 눈을 맞히는 바람에 운전자가 놀라 뛰어내렸다. 운전자 없는 소방차는 무학초등학교 앞에 있던 전신주를 들이박고 멈춰 섰다. 소방차에 들이박힌 전신주가 쓰러지면서 마산 시내가 암흑천지로 바뀌었다. 밤 8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 정전으로 말미암아 경찰은 8시 30분 무렵부터, 지금껏 발사하던 최루탄 대신 공포 사격, 실탄 사격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어둠’이 그들에게 끼친 심리적 유혹은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군중들은 투석으로 대항했으나, 시위대가 하나 둘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는 뿔뿔이 달아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은 사라졌으나(그래서 복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 지역사회에는 팽배해 있다.) 1974년까지 존재했던, 무학초등학교 앞 ‘총탄 흔적 담장’은 그때 초등학교를 향해 달아나던 군중들에게 실탄 사격한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앞서 (5)에서 언급한 전용문 님의 증언은 이 부분과 관련된다. 그날 밤 용실은 마산고 친구들과 민주당사 앞에 모여 남성동과출소로 갔다가, 북마산과출소 쪽으로 쫓겨 간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서 일진일퇴 공방전을 벌이다가 경



〈그림-29〉 제20회 졸업 기념 사진첩에서

찰의 실탄 사격으로 신마산 방향으로 향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무학초등학교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군중들과 합류하여 투석전을 벌이다가 경찰의 총탄을 맞고 산화하였던 것이다.

3.6. 시신은 ‘빨갱이’ 누명을 쓴 채 도립병원에

용실이 총에 맞았다는 소문을 들은 가족들의 심정은 어떠했겠는가. 그날 밤부터 용실의 가족은 용실을 찾아 온 거리를 헤맸다. 그 과정을, 앞서 소개한 서익진 교수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⁶²⁾

“김용실 모친은 3월 15일 저녁 두 아들이 나간 후 10시경이 되어도 안 들 어와서 마음 졸이고 있는데 육감이 이상했다. 총소리는 계속되고 총 맞은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다. 용실의 큰누나 옥주 씨는 목욕탕에 있다가 데모 소리 에 바로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모친이 아들 두 놈이 집 나갔다면 발을 동동 굴리며 걱정이 태산이다. 총소리가 요란한데 어머니 심정이 어떨지 걱정이 되었다. 군중들이 집 앞을 지나면서 “이 집 마산고등학교 학생 총 맞았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모두들 정신없이 뛰쳐나갔다.

아버지는 혼자, 어머니는 딸 셋과 함께 ‘동병원’, ‘시민외과’ 등으로 미친 듯이 용실이를 찾아 돌아다녔다. 병원마다 총 맞아 신음 중인 부상자는 수두룩 했지만 용실이는 없었다. 용실 어머니는 입술이 바싹바싹 타는지 연신 입술에 침을 발랐다. 밤 10시경 신탁은행 맞은편 ‘구외과’에 들렀다. 폐를 관통당한 사람이 누워 있는 것을 보았다. 구외과에서 간호원한테 도립병원에 전화

62) 서익진, 앞의 글, 199~201쪽.

를 부탁하는 중인데 경찰이 들이닥쳤다. 여기 있는 사람은 모두 빨갱이라면 서 간호부만 빼고 모든 사람을 병원 앞에 있는 남성동과출소로 연행해 갔다.

용실의 모친 일행은 총 맞은 아들 또는 동생을 찾으러 다녔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큰누나는 하도 빨갱이로 몰아붙이기에 순진하게도 이 사태가 정말 빨갱이 소행인 줄 알았다. 파출소에는 학생들이 많이 잡혀와 있었고, 유리 조각이 흩어져 있는 바닥에 얼굴을 쥐어박으며 문초하는 게 끔찍하기 짝이 없었다. 모친은 용실이가 저렇게 맞아도 좋으니 살아만 있길 바랐다. 이들은 여자라선지 매를 맞긴 했지만 다행히 별다른 문초는 없었다. 그러나 새 벽이라도 내보내 주면 다시 용실을 찾아 나설 생각이었지만 내보내 주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들은 거의 뜬 눈으로 지낸 다음날 새벽녘 버스로 본서로 이송되었다. 그 중 여자는 20명쯤 되었다. 다다미방에 앉혀 놓고 이름들을 다 적더니 심문을 시작했다. 경찰은 12살 딸부터 줄줄이 심문했지만 다들 용실이 총 맞았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다녔다는 말 외에는 듣지 못했다. 이들을 빨갱이라며 몰아붙이긴 했지만 특별히 많이 두들겨 패지는 않았고, 조사도 끝났다. 그런데 21살짜리 딸에게는 매질도 하고 욕도 하고 “네가 처녀인가 양갈보인가 밤에 뿔 하러 돌아다니노?” 하면서 한두 명의 경찰이 양갈보인지 조사해보자며 농지거리를 하면서 꼬챙이로 치마를 걷어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은 경찰들이 잡혀온 시민·학생들을 빨갱이라고 자백하라며 사정없이 두들겨 패고, 사람들이 지르는 비명소리에 소름이 짝 끼쳐 정말 무서움을 느꼈다. 게다가 이들은 전날 저녁을 먹은 후 16일 오후 5시가 되도록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다.

이렇게 가족들이 경찰서에서 고충을 당하고 있는 동안 용실이 부친은 이들이 경찰서에 연행된 걸 알고 오히려 안심했다. 팔방으로 용실을 수소문

하던 중 도립병원에 시체 세 구가 있다는 말을 듣고 곧장 확인하러 갔다. 병원에는 마산경찰서 직원은 없고 타 지역에서 파견된 경찰관으로 딱 차 있었다. 김해서 온 경찰관 한 명이 안면 있어 사정사정해서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 부친은 용실이의 시체를 확인하고는 역장이 무너져 말이 안 나왔다. 자신이 삼대독자인데 장남이 시체로 누워 있으니 그 심정이 어떠할지 짐작할 만하지 않은가. 16일 저녁에 경찰이 보호실로 들어와 김용실 가족을 불러서 용실의 사망 소식을 전했다. 용실 모친은 아들의 시체를 찾았다는 소리에 졸도했고, 의사가 와서 주사를 맞고 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다. 그들은 곧바로 시신이 안치된 도립병원으로 달려갔고, 용실 부친을 만났다. 모친은 나중에 국회진상조사단 앞에서 용실이만 살아 있다면 때 맞은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림-30〉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한 시민들

3월 15일 밤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한 시민 두 사람을 도립마산병원 영안실로 옮겨 놓았다. /『3·15 의거 사진집』, 65쪽/

인용한 위 글에는 아버지는 다른 가족과 별도로 혼자 용실을 찾아 나섰다는 대목이 있다. 우리는 그때 아버지의 행적에 대한 새로운 증언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첫 번째 증언 듣기를 하던 날, 용실과 인척 관계이자 마산고 동기인 제갈선광 님으로부터였다. 그날 밤 용실의 행방을 찾을 길 없었던 아버지는 다음날, 당시 오동동 민주당사 근처에 있었던 외사촌 형님(제갈선광 님의 아버지) 집을 찾았다. 외사촌 동생(제갈선광 님의 숙부)과 함께였다. 용실이 총에 맞았다는 소식을 풍문으로 들은 일행은 시체를 거쳐 도립병원에 가서 시신으로 누워 있는 용실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다.

총탄에 맞아 그 자리에서 운명한 용실의 시신은 마산시청 1층으로 옮겨졌다.⁶³⁾ 용실과 마산고 동기인 김무신(1943~1997)의 삶을 조명한 한 책자에 따르면,⁶⁴⁾ 당시 그곳에는 시위 현장에서 사망한 사람의 시신 몇 구와 붙잡혀 온 150여 명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한다. 몇 구의 시신 중 하나가 밧 용실이었다고 김무신은 회고해 놓았다. 관통상을 입었거나 생명이 위독한 사람들은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그때가 3월 16일 새벽이었다고 한다. 용실은 그때 시청에서 도립병원으로 옮겨져 간 것이다.

불행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경찰이 그에게 ‘빨갱이’의 누명을 씌우는 음모를 꾸몄기 때문이다. 무고한 시민들에게 충기를 난사한 경찰은 3월 15일의 시위를 용공으로 몰고 감으로써 자신들의 혐의를 합리화하려 하였다. 김용실을 비롯한 시신 3구의 주머니에 ‘인민공화국 만세!’ 등이 적힌 불온 뼈라를 집어넣은 것은 그런 행위의 하나였다. 용실의 주머니에서 나왔다는 불온 뼈라 사건은 워낙 유명한 것이어서 여기에 잠시 소개하기로 한다. 용실이 혐

63) 흔히 마산시청 ‘지하실’로 알려진 이곳은 실제로는 1층이었다. 큰 도로에서 보면 1층이 꺼져 보였기 때문에 지하실로 불렸지만, 이전 마산시청에는 지하실이 없었다(홍중조 님 증언).

64) 홍중조 편저, 『김무신, 그 불꽃 같은 삶』, 불휘미디어, 110~117쪽 참조.

의에서 벗어나는 데는 소신 있는 검사들의 슬기로운 사건 처리, 병원장의 기개, 간호사들의 의기가 함께하고 있다. 그 아픈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큰 위로가 된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용실 등에게 용공을 덮씌우려 한 사람은 당시 마산경찰서 형사주임 노장현(盧張鉉) 경위였다. 이 과정은 세월이 한참 흐른 뒤, 동아일보에 생동감 있게 기록돼 있어, 아래에 전재해 둔다.⁶⁵⁾



〈그림-31〉한옥신 검사의 활약상을 다룬 동아일보 기사(1975.04.23.)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조작의 극본은 다양했다. 선량한 학생·시민들을 공산당 혹은 공산당의 사주를 받은 폭동 분자로 몰기 위한 시나리오에는 여러 갈래로 짜여졌고 연출자들은 몽둥이를 들고 각본대로 맞추어 나갔다.

부산지검 한옥신(韓沃申) 부장 등 검찰 수사반은 15일 밤 11시 마산에 도착, 16일부터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경찰 수사는 공산당이 조종한 폭동이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몇 가지 잡았다고 의기양양해 있었다. 또 불

65) 「비화 제1공화국」(509): 제18화 4·19혁명④, 동아일보, 1975.04.23.

원간 폭동 계획의 전모가 드러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었다. 경찰의 조작 각본은 이런 것들이었다.

데모를 하다 총에 맞아 죽은 시체를 검사를 해 보니 주머니에서 붉은 비라가 나왔다는 것이다. 15일 밤 시청 앞에서 총을 맞아 시체로 도립병원에 옮겨진 김용실(18·마산고교 2년),⁶⁶⁾ 김영호(19·중학 졸업), 김효덕 군(19·작공) 등의 주머니에서 「협잡 선거 물리치고 공명 선거 이룩하자」, 「이승만을 죽여라」, 「인민공화국 만세」 등의 붉은 내용이 적힌 비라를 발견했다는 것. 마산상고의 영어 시험지 뒤에다 빨간 글씨로 쓴 것이었다. 비라에는 피까지 묻어 있었다.

한옥신 부장 검사는 마산경찰서 사찰과 노장현 경위(35)가 제시한 이 비라를 보고 즉각 조작임을 알았다. 우선 글씨가 고등학생 글씨체가 아닌 노련한 것이었다. 나중에 보니 바로 수사관의 조서에 나타난 글씨와 똑 같은 필체였다. 다음에 김용실 군은 두부 관통상으로 죽었는데 왼쪽 호주머니에 든 종이가 피에 젖을 리가 없고 더군다나 주머니 자체에는 피 묻은 자국이 전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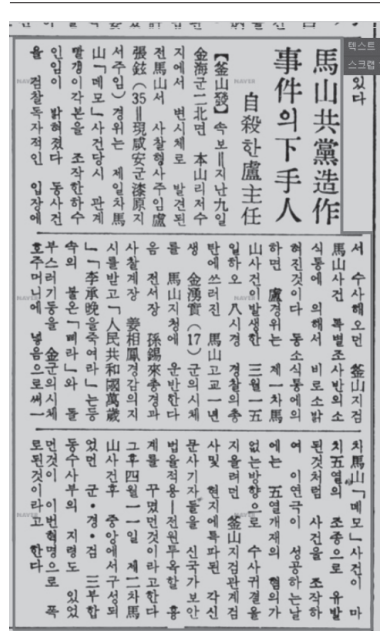
도립병원에서 처음 김 군의 시체를 다룬 간호원들은 소지품에서 비라 같은 것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한옥신은 크게 놀랐다. 신중히 조사해야겠다고 느꼈다. 같은 수사기관으로서 특히 사태의 심각성에 비추어 서슬이 퍼런 현지 경찰을 함부로 다룰 수 없는 분위기였다. 경찰이 만들어 온 조서를 마산 사건 기록에서 일단 제외하고 이때부터 은밀히 수사를 시작했다.

결국 이 비라는 노 경위 등이 조작해서 김 군의 시체를 마산지청에 옮겨 집어넣었음이 밝혀졌다. 시험지는 바로 12일 밤 마산상고 김상룡(2년) 등이 시내에 뿌리다가 압수당한 전단이었다. 이 전단에 붉은 글씨로 「인민공화국 만세」, 「이승만 죽여라」 등을 써 넣은 것이다. 노 경위는 시체 속에 이를 넣고 시체 검

66) 김용실을 고교 2년으로 적은 것은 기자의 착각이다.

안 때 나온 것처럼 꾸미기 위해 도립병원장 박정석(朴晶錫)에게⁶⁷⁾ 사망진단서 예다 『시체 호주머니에서 불온 문서가 나왔다.』고 기입하도록 강요했다. 박 원장은 사망진단서는 사인만 기입하는 것이라고 이를 완강히 거부했다.”

이상의 사실들로 미루어보면, 김용실의 시신은 ‘①사망 현장 → ②마산지청 1층(이른바 지하실) → ③도립병원 → ④부산지검 마산지청 → ⑤도립병원’이라는 이동 경로를 거친 셈이다. 시신이 ④로 옮겨진 것은 ‘용공 조작’ 뼈라를 주머니에 넣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박정석 원장이 협박에 흔들리지 않고 또 간호사들이 단연코 그 사실을 부인한 것은 ③의 과정에서 그런 ‘뼈라’가 없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앞서 고은 시인의 『만인보』에서 보았듯, 간호사들은 ‘그 착한 내 동생 용실이’ 빨갱이일 리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용공 조작의 주모자 노장현은 1960년 6월 9일 김해군 이북면 본산리 저수지에서 자살한 변시체로 발견되었다.(동아일보, 1960.06.11.)



〈그림-32〉 노장현의 자살 소식 보도 기사 (동아일보, 1960.06.11.)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67) 박정석 원장은 애국지사 허당 명도석 선생의 사위인데, 당시 해인대(경남대) 교수이던 김춘수 시인의 순위 동생이기도 하다(홍중조 님 증언).

68) 비화 제1공화국 <505>: 제18화 4·19혁명, 동아일보, 1975.04.14.

4. 나오며

“마산 3·15의거”에 마산 사람이 없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3·15의거 하면 떠오르는 것은 남원 출신의 ‘김주열 열사’ 한 사람뿐이기 때문이란단. 이런 점은 언론 보도에서도 마찬가지다. 동아일보의 한 기획 기사⁶⁸⁾ 이전의 3·15기념회관 별채로 있었던 3·15영령봉안소에 안치된 ‘어린 학생·청년 13명’의 영정을 거론하면서, “오른쪽으로부터 오성원·김삼웅·김종술·김의규·김효덕·김영술·김용실·김영준·김주열·김영길·강용기·김동섭·김평도. 김주열의 이름 외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이름들이다.”라고 적고 있을 정도이니까.

제2차 마산 3·15의거를 가능하게 한 것이 김주열이었고, 그의 최후탄 시신이 이 나라 민주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앞의 표현들이 김주열 열사를 폄하하는 것이어서도 안 됨을 우리는 강조해 두고자 한다. 그러나 시위에 참가하여 아까운 생명을 조국을 위해 바친 나머지 열사들의 이름이 김주열에게 가려만 있는 것은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나머지 열사들의 공적이 없다면 모를까, 시위에 참여하여 정의롭게 투쟁한 것은 오히려 나머지 열사들이 더하면 더했지 결코 뒤지는 것이 아니었는데도 말이다. 그 가운데서도 김용실 열사의 투쟁은 단연 돋보이는 것이었다. 그는 ‘확실한 신념’으로 3·15의거에 참여하여 장렬하게 산화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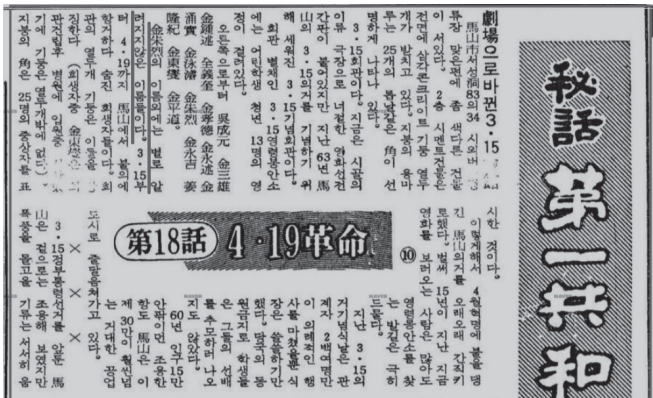
우리가 이 글을 쓴 것은 제1차 3·15의거 때 ‘꽃 중의 장미꽃’이라고 칭할 수 밖에 없는 김용실 열사의 짧은 생애를 추적하면서 그 의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김용실 열사가 그렇게 숨지지 않았더라면, 자라서 그는 이

68) 비화 제1공화국 (505): 제18화 4·19혁명, 동아일보, 1975.04.14.

나라의 동량지재가 되었을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그런 자질과 여건을 충분히 갖고 있었던 것이 김용실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보면, 3·15 부정 선거는 우리나라의 큰 인물 하나를 희생시킨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거듭 강조하거니와, 이런 우리의 작업이 김주열 열사의 거룩한 희생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며, 나머지 열사들의 숭고한 희생이 김용실 열사의 그것보다 못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어느 죽음 치고 슬프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겠으며, 어느 희생 치고 가치 없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우리는 굳게 믿는다. 김주열 열사처럼 나머지 열사들의 이름이 우리 귀에 익어서 “김주열이라는 이름 말고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이름”이라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삼가, 먼저 가신 영령들의 명복을 빌면서 이 글을 마친다.



〈그림-33〉 “김주열의 이름 외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이름들이다.”라는 내용이 든 동아일보 기사 (1975.04.14.)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마산고등학교, 1960년 3월 15일

김용실 · 김영준 열사를 재발견하다

청운의 꿈은 허공의 메아리가 되었지만

— 김영준 열사편 —

제4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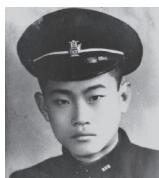
김용실·김영준 열사를 재발견하다

제4장

청운의 꿈은 허공의 메아리가 되었지만

- 김영준 열사편 -

김용실 열사에 비해 김영준 열사의 행적에 대한 증언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우선 마산고등학교 두 열사 추모 공원의 '3·15의거 김영준·김용실 열사 추모 동산' 안내판에 기록돼 있는 김영준 열사의 일대기부터 소개하기로 한다.



고교 3학년 때 모습 추모 동산 흉상 국립3·15민주묘지 유영 봉안소 영정과 위패 유영 봉안소 아래 묘

김영준(金泳濬/19회, 1941.12.15.~1960.3.18.)

평북 신의주에서 3형제의 막내로 태어나 여섯 살 되던 1946년에 가족과 월남하여 서울에서 살았다. 육군 대위이던 큰형님이 여순사건과 관련된 지리산 공비 토벌 때 전사하고(1949년 10월) 아버지마저 1950년 1월에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6·25전쟁 때 다시 마산으로 이사 와 이곳을 제2의 고향으로 삼게 되었다. 가족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그는 월영초등학교(9회)와 마산중학교(6회)를 졸업한 뒤 1957년 마산고등학교에 입학하였고, 의거 며칠 전에 고교 졸업식을 마친 상태였다.

뛰어난 머리, 선량하고 내성적인 성품의 그가 3·15의거에 뛰어들 것으로 예견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공대 또는 체신대 진학을 원했던 꿈 많은 청년 학도의 마음에는 언제나 정의감이 불

타오르고 있었다. 1960년 3월 15일 해질 무렵 의거에 동참하여, 그날 밤 장군동 다리 근처에서 경찰의 총탄에 하복부 관통상을 입고 도립마산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워낙 열악한 병원 환경과 경찰의 수술 방해 등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흘 뒤 운명하고 말았다.

5년만 더 기다리면 엄마를 비행기에 태워 준다면 약속과 청운의 꿈은 허공의 메아리가 되었지만, 열아홉의 끓는 피는 마침내 이 나라 민주 발전에 거룩한 거름이 되었다.

1. 가계(家系)

김영준의 가족에 대한 내용은 알려진 게 별로 없다. 그는 1941년 12월 15일에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태어났다. 마산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본적란에는 ‘평안북도 신의주시 서마전동(西麻田洞) 58’로 되어 있다. 생활기록부상의 주소는 ‘마산시 창포동 3가 12번지’로 되어 있으나, 3·15의거 당시 살았던 곳은 장군동이었다.⁶⁹⁾ 1946년에 가족과 함께 월남하여 처음에는 서울에서 살았는데, 당시의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3형제 등 모두 5명이었다.

1.1. 아버지 김도하(?~1950.01.07.)

영준의 가계도를 보면, 어머니 주경옥 님과 아버지가 혼인을 신고한 날짜는 1924년 3월 8일이고 주경옥 님의 배우자는 ‘김도하’로 적혀 있다. 그러나 출생에 대한 기록은 없다. 북에서 월남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6·25로 공부(公簿)가 많이 사라진 것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가 1908년 3월 18일

69) 3·15의거 희생자 가족을 취재한 마산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3·15의거 당시 김영준의 집은 마산시 창포동이고, 의거가 끝난 1960년 9월에 마산시 대내동으로 이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별들의 유가족-김영준』, 마산일보, 1961.03.15.).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시 다룬다.

생임을 미루어 볼 때, 아버지는 1905~1910년에 태어난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어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아버지는 1950년 1월에 세상을 뜬 것으로 알려져 왔고(마산일보, 1960.03.15.), 실제 호적 사망일은 1950년 1월 7일로 기재돼 있다.

시인 고은은 그의 『만인보』에서 “피난민 아버지는 / 수용소에서 세상 떠났다.”라고 적고 있다.⁷⁰⁾ 이 수용소는 마산시 창포동을 말하는 듯하다. 김영준 가족이 월남하여 산 곳은 ‘서울→부산→마산’이다. 1946년에 월남하여 서울에서 살다가 6·25전쟁 때 마산으로 왔고 그 사이 잠시 부산에서 살았다고 한다.⁷¹⁾ 당시 마산의 창포동이 귀향·피난민들의 터전이었던 점을 미루어 보면, 고은은 영준의 아버지가 마산에서 세상을 뜬 것으로 이해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1950년 1월은 김영준 가족이 아직 서울에서 살고 있을 시기였기 때문에 ‘수용소에서 세상 떠났다’라는 말은 “수용소 같은 암울한 세월을 보내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1.2. 어머니 주경옥(1908.03.18.~1981.05.28.)

어머니 주경옥님은 3·15의거가 일어난 1960년에 만 52세의 나이였다. “그때는 같이 죽을 것만 같았으나, 그저 이렇게 살고 있답니다.” 3·15의거 1주년이 되던 1961년 3월 15일 마산일보에서 기획 보도한 「별들의 유가족-김영준」에 실려 있는 내용이다. 이 기사에 따르면, 그날 어머니는 막내

70) 『만인보 단상 2650 김영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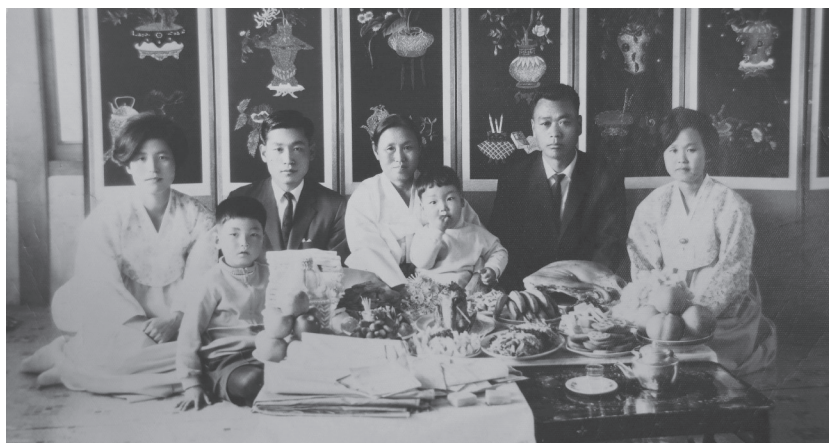
71) 김영준 가족이 잠시이긴 해도 부산에서 살았다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으로 알려진 것이다(김옥주 님 증언<2022.02.23., 울산>). 김옥주 님은 김용실의 큰누님이고, 김영준의 형수가 되는 분이다. 주경옥 님의 며느리로서 김영준 열사 가족사에 대해 아는 바를 들려주셨다. 이에 고마움을 표한다.

아들 김영준의 유고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뒷집에 사는 ‘한태 아버지’가 그날 밤 10시 무렵에 총소리가 굉장하니 영준이를 찾아보라고 일러 주었으나, 어머니는 “우리 애는 그런 데 안 간다.”라고 답하고 그날 밤을 무심히 지냈다는 것이다.

다음날 아침 마고 동창생 조남재(마고 사무관 아들)라는 친구가 달려와서 영준이가 총탄에 맞았다고 알려주자 깜짝 놀라 즉시 도립병원으로 달려갔다. 도립병원에 닿자 병원에는 증파(增派)된 경찰관이 ‘까마귀 퍼지듯’ 짹 배치되어 있었다. 황급한 어머니는 아들이 병원 안에 수용되어 있을 줄로만 알고 아들을 만나 보려고 경비 경찰관에게 면회를 애걸했으나, “그런 더러운 부상자는 없다.”라고 우기면서 거부당했다. 실랑이 끝에 어떻게 조 군과 간신히 경비망을 뚫고 먼지투성이 1호 입원실에 수용된, 총상 입은 아들 영준을 만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들은 하복부에 총상을 입고 탈장(脫腸)까지 되어 신음하고 있었다. 신음 속에서도 “엄마,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라고 마지막 소원을 이룬 듯 말했다고 한다. 결국 김영준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도 못하고 부상 사흘 뒤인 3월 18일 저녁 9시 무렵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여는 3·15의거 희생자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김영준 가족의 아픔과 상실감은 참으로 컸다. 마산으로 이사를 한 뒤 어머니는 창포동 판자집에서 군인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숙을 치면서 아들을 공부시켰다. 이들 가운데는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많았다.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어머니는 자식을 보살피듯 이들을 잘 대해 주었다. 2022년 2월 23일, 편찬위원회에서 울산 김옥주님을 면담했을 때 김옥주님은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다.⁷²⁾ 그 가운데 한 장은 시어머니 주경옥님의 회갑 사진이었다.

72) 이 책 몇 군데에서 언급된 것처럼, 김옥주님은 김용실 열사의 큰누님이자 김영준 열사의 형수가 되는 분이다.



〈그림-34〉 어머니 주경옥 님의 회갑기념 사진(1967년, 부산)

가운데가 주경옥 님이고, 왼쪽 두 사람이 김옥주-김영필 내외, 오른쪽 두 사람이 양아들 내외다. 외 할머니 품에 안긴 아이가 김영필-김옥주 내외의 작은아들 김정록이고, 앞줄의 아이가 큰아들 김익재(마산고 39회)이다. /김옥주/

이 사진에는 김영필-김옥주 내외보다 5~6살 위인 양아들 내외도 함께 찍혀 있다. 큰아들과 막내아들을 잃은 어머니에게 양아들의 의미는 이처럼 컸다. 마산에서 하숙을 하던 이들은 부산으로 가서 자동차 부품상을 하면서 잘 살았고, 주경옥 님을 “어무이, 어무이!” 하면서 많이 따랐다고 한다. 그런 양아들 부부가 서너 가족은 됐다고 김옥주 님은 들려주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할 부분이 있다. 앞서 우리는 뒷집 한테 아버지가 영준이를 찾아보라고 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때 어머니는 우리 영준이는 데모에 나갈 애가 아니라고 하면서 아무 걱정 없이 그날 밤을 보냈다고 했다. 이 대목은 어머니와 영준이가 사는 곳이 다르다는 점을 암시해 준다. 같은 집에 살았다면, 한테 아버지의 말을 듣고도 그날 밤에 영준이가 돌아오지 않은 것을 걱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추

측하는 내막은 이러하다. 당시 김영준 가족의 거주지는 두 군데였다는 것이다. 한 군데는 어머니가 하숙을 치는 창포동 판자집이고, 다른 한 군데는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장군동 전셋집이라는 것이다. 김영준의 두 해 후배이자 김용실과 동기인 김형철 님의 증언에 따르면, 3월 15일 해질 무렵 영준 선배는 마산고 졸업 동기인 주인집 아들 신충직 선배와 함께 '장군동 집'에서 의거의 현장으로 나갔던 것이다.⁷³⁾ 그렇다면 어머니는 창포동에서 그날 밤을 보낸 것이고 김영준은 3월 15일 저녁까지 장군동 집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결론이 난다. 이렇게 보아야만, 김형철 님의 증언과, “주 여사는 작년 9월⁷⁴⁾ 오랜 피난살이의 터전이던 창포동 수용소로부터 대내동에 집을 옮겼다.”라는 마산일보 기사의 기술이 서로 모순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호적등본에 기재된 사망 장소는 마산시 산호동 225번지로 되어 있다. 그 사이 다시 집을 옮겨 다녔음을 알게 해 주는 대목이다. 월남하여 정착한다는 것은 이토록 힘든 일이었던 것이다.

호적을 보면, 주경옥 님의 친정아버지는 주명우, 친정어머니는 김명화로 나온다. 전 호적이 신의주시 온정동 12번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친정이 온정동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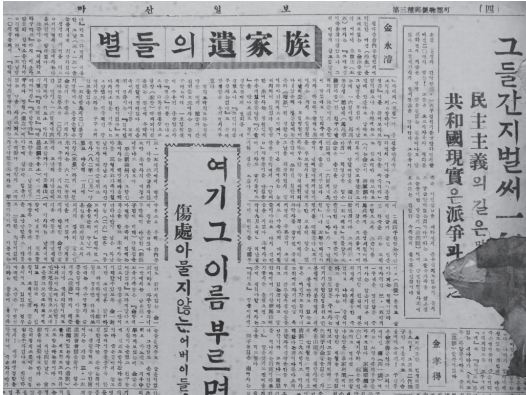
1.3. 큰형님 김영식(?~1949.10.)

큰형님 김영식의 생애에 대한 문제도 베일에 가려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어머니 주경옥 님의 증언에 따르면 월남한 뒤 국군 장교가 되었다가, 여순사건으로 지리산 공비를 토벌하는 과정에서 전사했다는 것이 거의 내용의 전부

73) 이 점은 뒤에서 자세히 언급된다.

74) 1960년 9월을 말한다.

이다. 주정옥 님이 장남의 연금으로 일 년에 24,000환을 받는다는 것을 증언한 점(마산일보, 1961.03.15.)으로 보면 아들이 국군 장교로서 순국한 것은 분명하다. 그 사실을 두고 우리는 다음과 같은 추정을 해 보기로 한다.



〈그림-35〉 마산일보 「별들의 유가족」에 소개된 김영준 열사 기사

1961년 3월 15일, 3·15의거 제1주년을 맞아 마산일보는 희생자 열두 열사의 가족을 취재하여 그날의 아픔을 되새기는 기획 기사를 연재한 바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서울에 정착한 뒤 큰형님 김영식은 육군사관학교⁷⁵⁾에 입교하여 국군 장교가 되었다. 우리나라에 군 제도가 법제화된 것은 1945년 11월에 공포된 군정 법령이 처음이었다. 이에 따라 건군 사업의 첫 걸음으로 국방사령부가 설치되었지만, 부각된 당면 문제는 ‘군 간부를 어떻게 양성하느냐’였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사설 및 유사 군사 단체와 광복군·일본군·만주군 등에서 경력을 쌓은 수많은 자원들이 있었다. 그러나 제각기 다른 군사적 배경과 경력을 가진 그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통일된 교육을 실시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었다. 이런 배경 아래에서 미국식 군사 제도와 교리를 도입하여 개교한 것이 육군사관학교였다.

75) 당시의 이름은 조선경비사관학교(朝鮮警備士官學校)였다.

초창기 입교한 대부분의 사관후보생들은 과거에 군사 경력이 있던 사람들이거나 현역 가운데 선발되었기 때문에 짧은 교육 기간에 비해 교육 성과는 상대적으로 컸었다. 큰형님 김영식이 과거 군사 경력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알려진 바 없다. 없었다고 한다면, 조선경비사관학교 5기생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1기부터 4기까지는 광복군·일본군·만주군 출신 군 경력자들이 입교하였고(1947.05.10.~1947.09.10.), 5기는 5년제 중학 졸업 이상의 민간인 출신들이 입교하였으며(1947.10.23.~1948.04.06.), 6기는 우수 하사관 및 병 출신이 입교(1948.05.05.~1948.07.28.)하였고, 7기도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긴 했지만(1948.08.09.~1948.11.11.) 임관일이 너무 늦어 전사 시기로 볼 때 5기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5기생은 민간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다른 기수에 비해 교육 기간이 6개월로 상대적으로 길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평안도에서 월남한 사람들은 대개 공산 학정에 박해를 받은 지식인, 지주, 기독교인들이었다는 사실은 김영식이 5기였다는 가능성을 높여 준다. 특히, 당시 육사 5기 입학생 중 3분의 2인 380명이 서북청년회 출신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신의주 출신 피 끓는 반공 청년 김영식이 육사 5기였을 가능성을 더 높여 준다 하겠다.

당시 육군의 전신이 된 단체는 두 개가 있었다. 하나는 장교를 배출하는 조선경비사관학교였고, 다른 하나는 지금의 병과 부사관을 양성하는 국방경비대였다. 국방경비대의 주요 임무는 항만이나 미군 부대 등 국가 중요 시설을 경비하고 좌익분자들의 폭동을 진압하는 것이었다. 1948년 4월 3일 제주 4·3사건이 발생하자 제주도에 주둔 중이던 제9연대를 투입하여 이를 진압한 것도 국방경비대였다. 이런 국방경비대의 지휘자들은 당연히 조선경비사관학교 출신자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김영식도 장교로 임관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국방경비대 출신자들과 함께 여순사건 진압에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김영식은 1949년 10월에 육군 대위로서 여순사건과 관련된 지리산 공비 토벌 때 전사하였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며 전라남도 동부 6개 군을 점거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정부에서 대규모의 진압군을 파견하여 일주일여 만에 이 지역을 수복하였지만, 잔당들은 지리산으로 들어가 공비가 되었던 것이다.⁷⁶⁾ 3·15의거 일 년 뒤에 어머니 주경옥(朱京玉) 님은 장남의 사망으로 받는 연금 연 24,000원과 하숙을 치면서 버는 돈으로 어렵게 막내아들 영준을 마고에 입학·졸업시켰다고 술회한 바 있다.⁷⁷⁾

1.4. 작은형님 김영필(1936.03.11.~2003.05.25.)

작은형님 김영필은 김영준보다 다섯 살 위였는데, 월남한 뒤 서울에서 성동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성동고등학교는 1906년에, 현재의 YMCA 자리에서 ‘황성기독교청년회학관’으로 출발한 전통 있는 종립 학교였다.

3·15의거 당시에는 군 복무 중이어서 마산에 없었으나, 이승만 대통령도 하야하고 전국이 안정을 찾은 1960년 6월 4일, 마산상업고등학교에서 열린 ‘마산의거 희생자 합동 위령제’ 때 유족을 대표하여



〈그림-36〉 서울 성동고 재학 시절의 작은형님 김영필
형은 동생 김영준과 판박이 얼굴이었다고 한다. /김옥주/

76) 여순사건은 남로당 등 좌익 계열의 군인 일부가 숙군(肅軍) 위협을 받고 있는데다 제주 4·3사건 진압을 위한 제주도 파병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하였다. 반란군들이 여수를 포기하고 지리산으로 들어가 게릴라(빨치산)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1948년 11월 무렵이었다. 그들의 게릴라 활동은 1950년 초까지 계속되었다.

77) 각주 69번의 마산일보 기사 참조.

조사를 읽은 분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37〉 마산의거 희생자 합동 위령제(1960.06.04., 마산 상업고등학교 교정)에 참석하여 슬픔에 잠겨 있는 희생자 어머니들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김영준 열사의 어머니 주경옥 님이다.
/3·15의거기념사업회/

1960년 10월 16일 김용실의 큰누나(김옥주)와 혼인한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은 꽃다운 나이에 숨진 동생들의 넋을 위로하는 자리에서 처음 만나 사랑이 싹틔던 것이다.⁷⁸⁾ 1961년 3월 15일 자 마산일보 4면 「별들의 유가족」이라는 기획 기사에는 “주 여사는 단 하나만이 남은 차남 영필(26) 군을 「몽고아이스케키」 집 딸(김용실 군의 누님)과 혼인을 하게 됨으로써 의거의 집과의 굳은 인연을 맺었다.”라는 기록이 있다. 결혼식장은 마산시 추산동 신신예식장이었다.

오랫동안 마산에서 살다가 울산으로 보금자리를 옮겼으나 뇌동맥류 질환으로 2003년도에 세상을 떠났다. 부인 김옥주 님과의 사이에 2남을 두었다. 큰아들 김익재는 마산고(39회)를 졸업하였으니, 삼촌(김영준)과 외삼촌(김용실)의 피를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이라 하겠다. 울산대학교 공과대학 전산학

78) 『우리는 이렇게 싸웠다(3·15의거 증언록)』(2010년, 3·15의거기념사업회), 46~55쪽 및 『마산고등학교 80년사』(2016년, 마산고등학교 총동창회), 522쪽 참조.

과를 졸업하고 현재는 미국 시카고에서 전산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마산고 39회 동기들은 재학 시절에 익재가 그런 사실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그들의 마산고 재학 시절이 1970년대 후반 유신 정권 그 암흑한 시기이니, ‘빨갱이 집안’으로 몰리기 십상인 그때 어찌 그런 일을 함부로 언급할 수 있었겠는가. 작은아들 김정록은 마산경상고·영남대를 졸업하고 울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홀로 계시는 어머니를 돌봐드리고 있다고 한다.



〈그림-38〉 김영필-김옥주 결혼식 사진
(1960년 10월 16일, 마산 신신예식장)

오른쪽은 신부 부모님 김기우-이명선 님 내외. 왼쪽은 신랑 어머니 주경옥 님, 그 왼쪽은 주 여사의 양아들. 축하 화환에 당시 마산시장 ‘윤상환’이라는 이름이 보인다. /김옥주/



〈그림-39〉 결혼 후 큰아들 김익재와 함께한 김영필-김옥주 부부 /김옥주/

2. 학력

김영준은 여섯 살 되던 1946년에 월남하여 서울 어느 초등학교를 다녔을 것이지만, 현재 그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1950년 6·25전쟁을 만나 피난하여 잠시 머무르던 부산에서 마산으로 이사 와 월영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1954년 3월 월영초등학교 9회 졸업생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1950년 어느 시점에 이 학교 4학년으로 편입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김영준은 여자애처럼 인물이 고왔다는 평을 많이 받았고, 성격도 매우 온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하여 그가 3·15의거에 뛰어들 것으로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내성적인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정의감이 불타고 있었다. 우수한 두뇌로 1954년 4월, 그는 당시 경남 제일이라는 마산중학교에 당당하게 입학할 하였다. 마산의 부잣집 자제도 선생님의 과외수업을 받지 않고 들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었던 마산중학교에 입학한 것을 보면 그는 분명히 비상한 두뇌의 소유자였다. 중학교 성적을 보면, 수학과 과학 등 자연과학 계열 과목의 성적이 뛰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희망하는 대학으로 ‘공대’ 또는 ‘체신대’가 적힌 것은 그의 적성과 깊은 관련을 맺는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G반이었고 담임은 이훈경 선생이었다. 이훈경 선생은 국어를 맡고 있었는데 붓글씨에도 일가견이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도 하야하고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던 1960년 7월 15일 자로 세워진 ‘김용실·김영준 군 민주 의거 추념비’는, 역시 국어 교사이자 시인이었던 이순섭(이석) 선생이 글을 짓고 이훈경 선생이 글씨를 쓴 것으로 유명하다. 3·15의거가 일어난 지 30년이 흐른 1990년에 이훈경 선생은 어느 책자에 회고담을 쓴 것이 있는데, 여기에 잠시 필요한 부분을 인용하기로 한다.

(전략)

3·15는 1960년 3월 15일, 자유당의 정·부통령 부정 선거에 항거하여 봉기한 마산 시민의 민주 의거의 날이다. 그리고 그 주역은 학생이었다.

3·15 선거는 한국 선거 사상 유례없는 관권에 의한 조직적인 부정 선거였다. 공무원이 직접 개입하여 사전에 소위 선거 계몽이라는 것을 벌였는데, 통·반장 인솔하에 유권자를 3인조, 5인조로조를 짜서 대통령은 이승만, 부통령은 이기붕에게 투표하도록 한 선거가 3·15 정·부통령 선거였다. 대통령 후보로는 민주당의 조병옥 박사가 도중에 사망했기 때문에 이승만 단일 후보였으나 문제는 부통령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고령이었으므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자유당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민주당의 장면 후보를 꺾어야 했던 것이다.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붕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는 것이 자유당의 선거 전략이었다. 이 부정 선거에는 각급 학교 교원들도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가정 방문이라는 명분 아래 학부모를 설득시키라는 지시가 내려졌을 뿐만 아니라, 사흘이 멀다 하고 도와 해당 기관에서 행정적인 독려도 있었다. 선생들은 수업이 끝나면 가정 방문을 해서 매일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초라한 신세였다.

나는 그때 마산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그때는 학년도가 4월에서 3월까지로 되어 있었으므로, 1월 하순에 대학 입시를 치르고 2월 중순에 졸업식이 있었다. 나는 3학년을 맡았던 관계로 학생들은 다 졸업시킨 뒤라서 다행히 가정 방문의 고역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1월에는 20일째부터 수험생을 따라 서울에 가서 어슬렁거리고, 돌아와서는 졸업식 준비를 하고, 졸업식이 끝난 뒤에는 학교에는 출근부 도장만 찍고 다방 순례나 하는 것이 나의 일과였다. 혹 가정 방문을 하라 하면 갈 데가 없으니 문예서림 주인이나 찾아가서 술을 사라는 것이 고작이었다. 문예서림 주인은 참 술도 많이 샀다. 그런 나의 나태성이 뒤에 학생들로부터 부정 선거에 가담하지 않은 양심적인 교사라는 엉뚱한 대접을 받기도 했으나, 나라고 해서 진흥탕 속에서 피어난 연꽃은 아니었다. 상황이 사람을 추켜세울 수 있고 내리찍을 수도 있다 보다.

3월 15일, 나는 그날 오전에 투표를 하고 오후에는 출근을 해서, 내일 발표 예정인 60학년도 신입생 합격자 발표 준비 사무를 보고 있었다. 저녁 7시경이나 되었을까, 교장실에서 학교장 이하 몇몇 교무 담당자만 남아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리에서 심상치 않은 함성이 들려 왔다. 함성은 분명 구마산 쪽에서부터 신마산 쪽으로 퍼지면서 점점 확대되어 갔다. 그러나 워낙 중요한 합격자 발표 준비이기 때문에 바깥 공기에 신경을 쓸 여가가 없었다. 그런데 군중의 함성은 점점 고조되어 드디어는 총성이 들렸다. 일을 얼른 매듭짓고 교문을 나섰다.

어둠 속에서도 들려오는 함성으로 인파로 가득 찬 거리가 역력히 파악되었다. 구마산에서 신마산으로 밀려오는 인파에 시민이 합세하여 온 시가지가 함성으로 진동하였다. 잇따라 총성도 요란했다. 시위 군중은 비명을 지르며 여기저기 골목길로 흩어지는 모양이다. 총소리는 시청 쪽과 무학국민학교 방면에서 들려왔다. 마산고등학교는 완월동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시가지를 관통하는 외길 대로를 중심으로 전 시가가 한눈에 굽어보이는 곳이다. 나는 더 이상 방관자일 수 없었다. 우선 내 집이 무학국민학교에서 가까운 자산동에 있었기 때문에 가족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었다. 부리나케 뛰어 내려갔다.

(중략)

날이 새기를 기다려 거리로 나가 보았다. 무학국민학교 담장에는 총탄 자국이 수없이 나 있었다. 거리는 여전히 경비가 삼엄하다. 사상자가 다수 났다고 한다. 그런데 그 중에 금년에 내 손으로 졸업장을 준 김영준 군이 있다는 것이다. 사망자의 시체를 시청으로 옮겨 놓았다는 말을 듣고 시청으로 달려갔다. 여러 구의 시체가 시청 현관에 가마니로 싸워져 있었다. 시신을 확인하려고 간청을 하였으나 접근 불허로 발만 동동거리다가 경찰의 총대에 밀려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시체는 다시 도립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직계 유가족 외에는 시신을 끝내 볼 수 없었다. 대기 명령을 받고 기다리고 있는, 불기 없는 냉돌방에서 김 군의 홀어머니와 그의 유족을 만날 수 있을 뿐이었다.

김영준 군은 월남 동포로⁸⁰⁾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가난한 학생이다. 위로 형이 있었으나 김 군의 가정 형편으로는 대학 진학을 할 수 없었다. 졸업 앨범 값을 낼 처지가 못 되어, 졸업식 날 내가 무료로 앨범을 주었더니 그렇게 좋아라 할 수 없었다. 죽기 바로 전날 밤에 앨범을 들여다보며 내 말을 하더라고 어머니는 울먹이면서 말을 한다. 이렇게 순진하고 죄 없는 한 마리 양을 무차별 사살하고 만 것이다. 국민은 단순히 국가의 한 구성 분자가 아니다. 개개가 주체적인 한 인격체다. 현대 사회에서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장례를 치르려 해도 엄두가 나지 않는다. 학교에 가서 학교장과 사무관과 의논을 하였으나, 함부로 날뛰지 말고 몸조심하라는 주의만 받았다. 하기가 어처구니없이도 경찰은 죽은 자의 호주머니에 붙은 문서를 조작해 넣어서 간첩의 소행이라고 공표한 때였으니까.

(중략)

그날 학교에서 1학년에 재학 중인 김용실 군도 희생당했다는 말을 들었다. 용실 군의 집은 북마산으로 들어가는 어귀에 빙과점을 경영하고 있다고 하였다. 아직 소년티를 벗어나지 못한 어린 나이다. 그러나 나는 영준 군에 전 신경이 쏠려 있어서 용실 군에 대해서는 그 이상의 것을 알지 못했다.

(중략)

4월이 되어 학년도가 바뀌었다. 교정에 만발한 벚꽃이 지기 시작하였다. 앞바다에서 김주열 군의 시체가 떠올랐다. 4월 11일이다. 도립병원 영안실에 막 안치된 그의 시체를 보았다. 아직 이불도 덮지 않은 채로 누워 있는 그는 어린 몸이었다. 한쪽 눈에 불발 최루탄이 꽂혀 있었다. 얼굴도 조금도 상하지 않고 입은 옷과 신발이 그대로였다. 김주열 군은 남원 출신으로 마산상고에 응시하여 합격을 기다리고 있었는데,⁸¹⁾ 3·15 이후 행방불명이 된 학생이다. 내가 거기 갔을 때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때였다. 그런데 어느 틈에 누군가가 광목 조각에 빈약한 글씨로 정부의 만행을 타도하자는 플래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나왔다.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순식간에 운집하였다.

(중략)

시위는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서울신문 마산지국이 부셔지고, 야당으로 당선되었다가 여당으로 전신한 어느 국회의원의 집이 헐렸다. 경찰차가 불에 탔다. 자연히 학교에서는 수업이 폐지되고, 교사들은 학생 시위를 호위하는 호위병이 되고 말았다. 나는 그해 3학년 1반을 맡고 있었는데, 3학년 1반부터 스크럼을 짜고 시위하는 그 선두에 학교장과 내가 서게 되었다. 마치 학교장 이하 교사가 시위 학생을 인도하는 격이 된 셈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동아일보 화보는 그렇게 인식될 만큼 보도되기도 했다. 사실, 그 분위기는 교사라는 신분을 망각한 혼연일체감이었다고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후략)

79) 『되찾자! 잃어버린 3·15』(박식원, 시원출판사, 1990), 127~132쪽.

80) 원문에는 '일본 귀환 동포'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이훈경 선생의 착각이다.

81) 원문에는 '응시하여 합격했는데'로 되어 있어 수정하였다. 합격자 발표는 3월 16일에 있었고 김주열 군은 자신의 합격 여부를 알지 못한 채 운명했기 때문이다.

이훈경 선생의 위의 글은 그동안 우리가 잘 몰랐던 몇 가지 사실을 알게 해 준다.

첫째, 이 부정 선거에는 각급 학교 교원들도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을 교사의 입으로 직접 듣게 되는 점이다. 가정 방문이라는 명분 아래 학부모를 설득시키라는 지시가 내려졌을 뿐만 아니라, 사흘이 멀다 하고 도와 해당 기관에서 행정적인 독려도 있었고, 선생들은 수업이 끝나면 가정 방문을 해서 매일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초라한 신세였다. 그러니 깨어 있는 학생들의 눈에는 교사들이 얼마나 위선적인 존재로 보였겠는가.

둘째, 3월 16일이 1960년도 공립 고등학교 합격자 발표일이었다는 점이다. 이 말을 우리는 전해는 들었으나, 교사의 입으로 이렇게 실감나게 들은 적은 없었다. 김주열이 시험을 치른 마산상업고등학교도 역시 3월 16일에 합격자 발표를 했으니, 김주열은 자신의 합격 여부도 모르고 저세상으로 간 것이다. 그동안 세간에 나돌던 ‘마산상고 합격생’이라는 말은 엄격한 의미에서 잘못된 표현임을 여기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당시 그의 정확한 지위는 ‘마산상고 수험생’이었기 때문이다.

셋째, 당시 마산고등학교 졸업식이 실제로는 2월에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공부(公簿)에는 3월 하순에 졸업식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보다 한 달 이상 앞선 2월 중순에 졸업식이 있었고, 그리하여 한 달 이상 동안 고3 담임들은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이다.

넷째, 김영준의 졸업 앨범을 담임이 공짜로 주었다는 사실이다. 앞서 여러 번 소개한 마산일보 기사에도 “이렇게 폭악무도한 독재 관헌의 총탄에 쓰러진 원한의 그날을 생각하면서 말을 이은 주 여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앨범’(앨범)의 영준이를 만졌을 때 기자도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꼈다.”라는 대목이 있다. 김영준이 얼마나 어렵게 공부를 하였으며, 그 어머니가 어떻게 키

운 자식인지가 무엇보다도 가슴에 와 닿는 대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섯째, 장례를 치르려 해도 엄두가 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학교에 알렸더니 “함부로 날뛰지 말고 몸조심하라는 주의만 받았다.”라는 언급이 시사하는 점은 실로 크다 하겠다.

여섯째, 4월 12일 제2차 3·15의거가 일어나 마산 시내 8개교 연합 시위가 일어났을 때 인솔하던 교사도 학생들과 혼연일체가 되어 치를 떨었다는 점이다. “나는 그해 3학년 1반을 맡고 있었는데, 3학년 1반부터 스크럼을 짜고 시위하는 그 선두에 학교장과 내가 서게 되었다. 마치 학교장 이하 교사가 시위 학생을 인도하는 격이 된 셈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동아일보 화보는 그렇게 인식될 만큼 보도되기도 했다. 사실, 그 분위기는 교사라는 신분을 망각한 혼연일체감이었다고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그림-40〉 시위 학생들 인솔(?)하는 교사들

이훈경 선생은 위 글에서 학교장 이하 교사들이 시위하는 학생들을 호위하는 셈이 되었고, 실제로 자신의 마음도 그랬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 사진은 20회 졸업 기념 사진첩에서 나온 것인데, 앞의 증언이 사실임을 확인해 주는 소중한 것이다.

3. 산화

산화한 김영준의 시신은 한때 장군동에 매장되었다가 국립4·19민주묘역(첫 이름은 ‘국립4·19묘역’)이 만들어진 이후 그곳으로 이장되었다.⁸²⁾ 현재 그는 제1묘역에 안장되어 있다. 반면에, 김용실은 3월 18일(?) 어스름할 때 화장하여 장례를 치렀다. 낮에 장례를 치르지 못한 것은 총 맞은 학생 장례식이라고 하면 또 시민들이 들고일어날 것 같아서였다고 한다(김옥주 님 증언). 그러나 김용실도 현재는 국립4·19민주묘지 제1묘역에 잠들어 있다.⁸³⁾

김용실에 비해 김영준의 3·15의거 참가 과정이나 역할은 오리무중에 가깝다. 단지, 앞서 언급한 것처럼, 3월 1일 1차 의거 때 시청 앞 장군동 다리 부근에서 하복부 관통 총상을 입은 후 마산시청 지하실로 옮겨졌다가 다시 도립 마산병원으로 옮겨져 냉동방에 방치되어 있다가 18일 하오 9시에 사망한 것으로만 알려져 있다. 이것은 김영준 열사에 대한 자료나 증언이 상대적으로 빈약함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두 개의 증언이 있다.

하나는 김영준 선배와 같은 집에서 살았던 마산고 21회 김형철 님이 우리 필진에게 한 증언이다. “그날 저녁 해질 무렵에 영준 선배는 충직 선배와 함께 시위 현장으로 나갔다.”라는 것이다. 3장에서 밝힌 것처럼, 이 증언의 ‘충직 선배’는 마산고 19회 ‘신충직’ 님을 말한다. 신충직 선배의 집은 당시 마산시 장군동 3가 9번지, 10번지였고, 여기에 마산고 선배 세 사람 가족과 김형철 님 가족이 세 들어 살았다. 그러니까 1960년 3월 15일 당시 그 집에는 마산고 19회

82) 4·19묘역은 1961년 2월 1일에 당시 국무회의에서 공원묘지 설립을 결의하여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1962년 12월 21일에 기공식을 하고, 1963년 9월 20일에 ‘국립4·19묘지’라는 명칭으로 준공식을 하고 기념탑을 제막하였다.

83) 구암동 국립3·15민주묘지에도 두 열사의 무덤이 있다.

동기 네 사람, 21회 한 사람 등 모두 다섯 사람의 ‘마산고 학생’이 기거했던 것이다. 김영준 열사(신의주)와 증언자 김형철 님(강계)은 모두 평북에서 월남한 공통점이 있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김형철 님의 증언 내용을 소개한다.(김형철 동문은 경어체를 썼고, 증언은 필진 측에서 질문하고 김 동문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에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증언을 죽 이어지는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썼고 문체도 평어체로 바꾸었다. 또 중복되는 내용은 줄이고, 증언에서는 시간적으로 뒤의 것이 앞에 말해지기도 했는데 그것을 시간 순으로 재배열했다. 그러나 내용은 임의로 바꾼 것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 둔다.)

(1) 장군동 3가 9번지, 10번지에서 김영준 선배와 같이 지냈다. 원래 거기에는 19회 선배가 3명 있었는데 정봉재 선배가 있었고, 그 선배는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갔다. 그 다음에 윤 아무개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 이름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주인집 아들인 신충직 선배가 있었다. 그래 있었는데, 1958년도 말인가 1959년도 초인가 영준 선배가 이사를 왔다. 신충직 선배 집으로. 신충직 선배는 주인 집 아들이고, 나머지는 세를 살았다. 그리고 우리(김형철 가족)도 그 집 아랫방에서 세를 살고 있었다. 같이 세를 살았는데, 영준 선배는 어머니하고 두 식구가 문간방으로 이사를 왔다.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당시 군에 가 있었다.

(2) 영준 선배는 키도 크고 인물이 잘 생겼다. 여성스럽고 말이 없고 얼굴이 곱고 키가 178센티미터 정도로 컸다. 말을 여성스럽게 소곤소곤 하는 스타일이었다. 우리하고는 대화를 많이 안 하고 주인 집 아들 충직 선배하고 대화를 많이 했다. 그래서 충직 선배와 둘이서 잘 다녔고 딴 사람하고 다니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나하고도 크게 이야기한 일이 없었고 동네 친구들과도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다. 참 점잖았다는 게 기억에 남아 있다. 충직 선배는 밴드부에 있었다. 밴드부에서 만날 연주하고 노래하는 게 자이언트였는데, 하도 들어서 내가 그걸 지금도 알고 있다. 그 당시는 소음 규제 그런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했던 것 같다.

(3) 마지막 날인 3월 15일 일도 기억에 남아 있다. 그날 초저녁 해질 무렵에 충직 선배가 “오늘 데모하러 간다.” 하면서 영준 선배하고 둘이서 나갔다. 데모하러 간다고, 나를 보고는 데모하러 가니까 같이 안 갈 거냐고 물었다. 나는 안 간다고 대답하면서 안 되는 이유를 “진해에서 우리가 쌀장사를 하

기 때문에 내가 그걸 도와 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때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던 때였다.

(4) 다음날인가 소식이 전해져서 영준 선배가 총을 맞은 사실을 알았는데, 영준 선배의 어머니는 굉장히 큰 슬픔에 잠겼다. 합동 추모제가 열렸을 때 유족 대표로 나온 사람이 영준 선배 형이라고 들었다. 같이 안 살아 우리는 다 몰랐지만, 동네서 하는 이야기가 추모제 때 유족 대표로 나와서 앞에서 조사를 읽은 사람이 영준 선배 형인데, 잘 생겼고 말도 잘하더라는 것이다. 우리는 추모제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

(5) 영준 선배가 이북 사람이고 우리도 고향이 이북이고 해서 정서적으로 통하는 것이 있었다. 고향이 같은 이북이라는 관계로 우리 어머니하고 영준 선배 모친하고는 종종 대화를 나누곤 했다. 우리는 평북 강계이고, 영준 선배는 평북 신의주에서 태어났다. 나는 그곳에서 태어나 5살 때 내려왔는데, 그때는 6·25 전인 1948년도였다. 우리는 숙청을 당해서 내려왔다. 숙청이라는 것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다고 하는데 맨몸으로 쫓아내는 게 있었고, 양손에 들고 갈 거는 들고 가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다. 그래도 우리는 양손에 뭐 좀 들고 나왔는데, 그런 걸 보면 숙청하는 것도 그게 동네마다 좀 다른 모양이었다.



〈사진-41〉 김영준 선배 관련 증언을 듣던 자리(2021.10.01., 총동창회 사무국)

제1차 증언을 듣던 자리에는 김용실 열사와 동기인 21회 동문 네 분으로부터 두 분 열사에 대한 여러 가지 숨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매우 유익했다. 오른쪽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김형철(21회) 동문, 배종길(21회) 동문, 김정대(31회) 위원장, 임채환(39회) 교장, 안형호(32회) 위원, 조남규(21회) 동문, 제갈선광(21회) 동문. 사진은 최영찬(44회) 간사가 찍었다.

이 증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번호 순으로 정리한다.)

증언 (1): 김영준 열사가 장군동에서 거주한 적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김영준 열사의 가족이 거주한 집을 마산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창포동’으로, 서거 1주년을 맞아 어머니 주경옥 님이 언론과 인터뷰할 때는 ‘대내동’(작은형님 김영필 님이 쓴 「3·15 한 뫼를 맞으면서」에서도 거주지가 ‘대내동’으로 나옴)으로, 1981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사망 장소가 ‘산호동’으로 나와 있다. 그렇지만 그 어느 곳에도 ‘장군동’에서 살았다는 기록이나 증언이 없었는데, 이번에 우리는 김형철 님의 증언을 통해 김영준 열사가 어머니와 함께 한때 장군동에도 살았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장군동으로 이사 온 시기가 1958년 말이 아니면 1959년 초였음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 시기는 당시 학제로 볼 때 김영준 열사의 2학년 마지막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김영준 열사는 2학년 말에서 졸업식을 할 때까지 1년 조금 더 넘는 시간을 장군동 집에서 보내었던 것이다.

증언 (1)을 통해 추가적으로 더 알 수 있는 사실은 한 집에 여러 가족이 세 들어 살았는데, 장군동 3가 9번지, 10번지 그 집에는 마산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둔 가족이 무려 다섯 가족이나 되었다는 점이다.(세 들어 산 가족은 모두 네 가족임.)

증언 (2): 김영준 열사의 외형과 성격이 잘 드러나 있다. 마산고등학교 생활기록부 ‘행동 발달 상황’의 3학년 난에는 “명랑하지는 못하여도 성실하고 분위기에 쌓이는 선량한 형. 아깝게도 3·15 데모 때 부

상을 당하고 3월 18일 도립병원(에서 사망함.)⁸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산고등학교 19회 동기들이나, 그와 함께 학교생활을 한 적이 있는 20회, 21회 후배 가운데 그를 아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김영준 열사가 잘 생기고 말이 없는 형이었다고 증언하였다. 김형철 님은 1년 넘게 같은 집에서 살았으니, 누구보다도 김영준 열사를 잘 아는 후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집에 동기들이 셋이나 있었지만, 주인집 아들 신충직하고만 말을 건네는 사이이고 나머지 동기와 후배 김형철과도 말을 잘 건네는 사이가 아닌, 사교적이지 않은 성격임이 이번 증언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 셈이다. 생활기록에 ‘명량하지 못하여도’라는 표현은 이런 사실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영준은 후배 김형철에게 매우 점잖은 선배로 비칠 정도로 착실한 사람이었다. 이런 상태를 두고 생활기록부는 ‘성실하고 선량한 형’이라고 적었을 것이 분명하다.

증언 (3): 김형철 님의 증언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김영준 열사가 3·15의거에 참여하게 된 동기나 과정에 대해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날 밤 신마산 도립병원 부근에서 경찰이 쏜 총에 하복부 관통상을 입고 도립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흘 뒤인 3월 18일 사망하였다는 것과 도립병원에 옮겨졌을 때 당시 병원장이던 박정석 님의 증언 등이 알려져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김형철 님의 증언은 김영준 열사의 그날 밤 행적 뿐만 아니라 당시 마산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에 나돌았던 모종의 약속이 있었음을 알게 해 주는 것이어서 매우 소중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84) 괄호 부분은 추정한 것임. 생활기록부의 이 부분은 남아 글자가 보이지 않는다.

3월 15일 ‘초저녁 해질 무렵’ 신충직 선생은 후배 김형철에게 “우리는 오늘 데모하러 가는데 너는 안 갈 거냐?”라는 말을 건넨다. 이에 김형철은 “진해에서 우리가 쌀장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 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안 됩니다.”라고 답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신충직 선생이 ‘해질 무렵’에 “우리는 데모하러 간다.”라는 말을 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당시 마산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에는 모종의 약속이 되어 있었다는 점을 암시하고, 실제로 저녁 7시에 마산시청 근처에서 모이기로 했다는 것이 여러 증언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김영준도 신충직도 이에 따라 데모 현장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것이다.(김무신 동문의 일대기 『김무신, 그 불꽃 같은 삶』에서도 이 사실이 자세히 나온다. 이 점은 제5장에서 다시 언급된다.)

이 대목과 관련된 김형철 님의 증언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사실에 더 주목하고자 한다. 그것은 마산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에 암묵적으로 약속된 ‘저녁 7시 거사’가 목숨을 내놓고 할 정도의 심각한 것은 아니었고, 부정 선거를 그냥 앉아서 볼 수는 없다는 신념에서 나온 것이었다는 점이다. “우리는 데모하러 간다.”라는 신충직 선생의 말 속에 어떤 비장함 같은 것이 묻어나지는 않아 보인다. 만약 비장함이나 그와 관련된 어떤 것이 있었다면, 선생 신충직이 후배 김형철을 조용히 불러 놓고 뭔가 심각한 말을 했을 것인데, 나가다가 그냥 후배가 보이니까 툭 한 마디 뱉은 것이 ‘우리는 데모하러 가는데 너는 안 갈 거냐?’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점은 당시 의거에 참여한 절대 다수의 학생들이나 시민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부정 선거에 눈감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목

숨까지 내놓고 저항을 해야 한다는 그런 성격의 것은 아니었을 것
이라는 것이다.⁸⁵⁾ 데모라는 것은 모이고 모여서 하다 보면 거세어
지고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속성이다. 군중들의
합성은 더 큰 합성으로 바뀌고 합성이 진동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행동도 과격해지기 마련이며, 행동이 과격해지면 경찰은 이에 대
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잘못된 신념을 갖고 영웅 심리로 무
장한 경찰이라면 그것을 악용하여 실탄을 발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것이 오판이었고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난 뒤였다. 그날 밤 마산 시내가
합성과 총성과 절규로 뒤덮이고 핏빛으로 얼룩진 것은 이런 과정
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증언 (4): 김영준 열사의 둘째형인 김영필 님이 1960년 6월 4일 마산상고에
서 거행된 합동 위령제에서 유족을 대표하여 조사를 읽었다는 점
이 확인되었다. 증언을 한 김형철 님은 합동 위령제가 열렸는지조
차도 몰랐는데 동네 사람들을 통해 이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 김



〈그림-42〉 마산의거 희생자 합동 위령제
이승만 대통령도 하야하고 새로운 민주 정
부가 들어서고 난 1960년 6월 4일 마산상
업고등학교(현 용마고)에서 희생자 합동 위
령제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영준 열사의
둘째형님 김영필 님이 유족을 대표하여 조
사를 읽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85) 그러나 김용실 열사의 경우에는 생각이 달랐던 모양이다. 그는 어쩌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친척 집에 미리 인사까지 하고 의거의 현장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제3장 '김용실편'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영필 님이 조사를 읽은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이것 역시 지금까지 알려진 적이 없는 것이었다. 지금껏 작은형은 당시 군 복무 중이었던 것으로만 알려져 있었는데, 이로 보아 이 무렵에 제대를 했든가 아니면 특별 휴가를 얻어 행사에 참여했다는 점을 알게 되는 것이다.

증언 (5): 추가적으로 북한에서 이루어진 숙청의 내용 일부를 알게 되었다. 북한에서의 숙청은 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 체재 유지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나 가족에게 내리는 것이다. 그런데 동네에 따라 맨손으로 내쫓기는 경우도 있고 두 손에 들고 갈 것은 가져가게 하는 경우도 있었음이 이 증언을 통해 확인되었다 할 것이다.

다른 하나의 증언은 『3·15의거 증언록』에 실려 있는 박정석 도립마산병원장의 증언 속에 들어 있는 김영준 열사 얘기다. 박 원장의 증언 중 김영준 열사 관련 부분만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총탄 부상자를 우선 이송하고 밤새도록 수술의 모든 처치를 몇 간호원들과 직원들과 합심해서 했다. 그 부상자 중 한 학생이 “선생님 내가 살겠습니까? 고향은 신의주, 현주소는 신포동,⁸⁶⁾ 올해 시내 마고를 나와 어머님, 형 해서 가족은 삼인인데 형은 군문에 있습니다. 동무들이 서울의 대학으로 떠나는데 송별 저녁을 먹고 평소어 어머니가 잠은 꼭 집에 가서 자라는 말씀이기에 동무들이 위험하다고 못 가게 하는 것을 뿌리치고 가는데 경찰이 오기에 담장에 붙어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관은 제 배에다 마구 총알을 쏘았습니다. 형이 군에서 받는 기천 원 돈을 내 학비에 보태 쓰라고 그대로 소로시⁸⁷⁾ 보내줍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샅바느질과 시장에서 야채를 팔아 저를 공부시켰는데 어머니를 도우기 위해 꼭 살아야겠습니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다시는 못을 길로 떠나고 말았다. 그 젊은이의 목소리가 지금도 내 귀에 들리는 것 같고 담가(擔架)로 실린 채로 나에게 호소하던 그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린다.

박 원장이 말하는 환자가 바로 김영준 열사임은 쉽게 알 수 있다.

상기 두 증언에 의거하여 김영준 열사의 3월 15일 저녁과 밤의 행적을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당일 김영준은 이미 마산고 학생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던 저녁 7시 시청 앞 집결이라는 암묵적인 약속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해가 질 무렵(오후 6시경 전후로 추정됨)에 시위에 참가하기 위해 신충직 친구와 함께 집을 나섰다. 그러나 가던 도중에 김영준은 신충직에게 대학 진학 차 상경 예정인 친구들과 송별 저녁 식사 약속이 있다고 말하고 식사 후에 시청 앞으로 가겠다고 말했을 것이다. 식사 장소는 아마도 현재의 장군동 시장 또는 근처의 식당이었을 것이다. 송별 식사를 마친 후 시위 참가하러 간다는 영준을 친구들은 말렸을 것이다. 영준은 친구들에게 평소 어머니가 집에 가서 자라고 했으며 친구들에게는 집에 간다고 거짓으로 말하고는 시청 쪽으로 가서 학생 시위대 속에 섞여 들었을 것이다. 경찰과 일진일퇴 중 경찰의 총탄에 맞아 중상을 입고 마산시청으로 끌려갔을 것이다.⁸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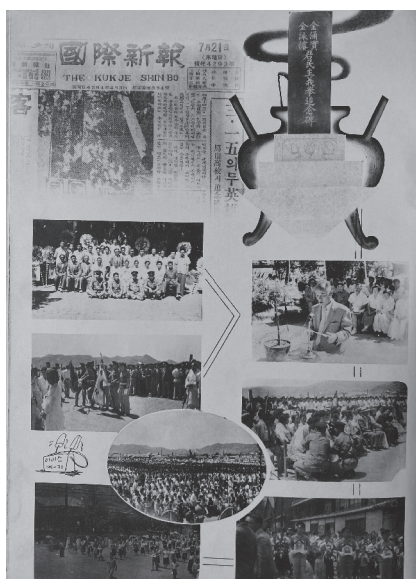
마산도립병원으로 이송된 그는 의사로 보이는 사람(박정석 도립병원장)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살려 달라고 부탁하면서 시위 참가 중에 총을 맞은 것이 아니라 집으로 귀가하다가 우연히 총을 맞은 것처럼 말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중상을 당했지만 병원 처치를 받으면 살 수도 있을 것이고, 만약 살게 된다면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시위 참가를 부정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할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86) '신포동'은 '창포동'의 잘못이라고 생각된다.

87) '고스란히'의 방언.

88) 김용실 열사편에서 인용된 1966년 4월 19일 자 조선일보 4면에 실린 '4월의 젊은 넋: 「반독재」의 선봉에 선 그날의 얼굴들」이라는 제목의 7단 기사에도 “김영준(21, 15일 마산시청 앞에서 총탄 맞고 18일 절명)”으로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다. 이 기사에는 1960년 4월 19일 시위까지의 희생자 명단이 포함되어 있다.

모친의 말처럼 영준은 창자가 배 밖으로 빠져 튀어나와 이미 말라 있었지만 숨은 끊어지지 않았기에 방치되지 않고 제때 제대로 치료받았으면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리고 모친은 영준이가 중태에서 혼미한 정신으로 “땅땅땅, 너는 이북 놈이다.”라고 말하면서 총 쏘는 시늉을 하더라면서 아무래도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원장이 들었다는 김영준 열사의 말로 미루어 보면 총탄을 맞은 뒤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에 경찰들에게 어디론가 끌려가 무슨 말을 들었던 게 아닌가 짐작할 뿐이다.



〈그림-43〉 제20회 졸업 기념 사진첩에 실린 3·15의거 관련 기사와 사진

국제신보(국제신문의 전신)는 1960년 7월 21일자 보도 기사를 통해 3·15의거의 두 영웅을 기리는 추념비 제막식이 20일 상오 10시 30분부터 마산고 교정에서 엄수되었음을 밝혔다(맨 위 왼쪽).

4. 회상기

앞서 소개한 이훈경 선생의 회상기 외에 두 편의 회상기를 더 소개하기로 한다. 하나는 3·15의거 한 돌을 맞으면서 둘째형님인 김영필 님이 1961년 2월에 발간된 마산고등학교 교지 『무학』 19호에 투고한 「3·15의거 한 돌을 맞으면서」 이고, 다른 하나는 이순섭 선생이 쓴 위령비 낙성식 애도시인 「초혼」이다.

3·15 한 뫼를 맞으면서

제목을 이렇게 붙이고 보니 붓을 든 자신의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이제 새삼스럽게 머리에 상기됩니다. 아니 일생을 두고 영원히 가지지 않을 기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지나온 많은 날들 - 운명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던 그날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의 주권을, 우리들의 권리 행사를 박탈하려는 독재자가 있었고 그들을 또한 물리치고 올바른 나라를 세워 보겠다는 신념에서 지난 해 3월 15일 향토 마산에서 의거가 폭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의거 대열에서 여러분들의 학우를 잃어 오늘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도 저의 동생이 의거에서 희생이 되었기에 이러한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결코 여러분들의 학우(용실·영준)는 헛된 죽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을 안정 못해 두서없는 글월이나마 이제 꼭 한 마디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혁명을 우리가 하였다는 어리석은 영웅심을 버리고 혁명의 발생지는 마산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타 도시의 학생보다 더 모범이 되어서 모교의 전통을 살리고 향토 마산의 발전과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장래를 걱정하여 참된 이 나라의 역군이 될 수 있는 훌륭한 배움꾼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역사에 빛날 혁명 정신을 3·15 일주년을 맞아 다시금 상기시켜 학도로서 취할 바 태도를 명백히 하셔서 정의를 위해서는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과 훌륭한 마산고등학교 학생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장 선생님 이하 교직원, 학생 여러분의 건투를 빌며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마산시 대내동 2의 4, 김영필(고 김영준 군의 형))

초혼(위령비 낙성식 애도시)

- 마산고 교정에 세운 의거의 영령 김용실·김영준 양군의 비문을 쓰고 -

이석(이순섭)



〈그림-44〉 이순섭 교사

김용실 군(1959년 어느 가을)이 반장으로 있었던 1학년 B반은 나의 처녀시집 『하초』를 어느 반보다도 아껴 주었다. 그때 나는 군이 나라의 기둥임을 생각하고 있었다. 김영준 군, 김 군은 어머니와 군에 입대한 형 한 분뿐으로 신의주가 고향으로 친척도 없고 참으로 외롭고 가난한 학생이었지만, 어느 결심의 눈빛을 나는 늘 보고 있었다.

오늘부터 두 젊은이 가는
시계는 영영 멎었지만
나무 그늘에 교복을 입고
죽음으로 바꾼 삶으로
머리털이 희끗희끗하는 날
무슨 말을 속삭일 것인가

생각하면 아득한 날로
산야에 산화한 어린 화랑(花郎)이 있고
시시(時時)의 불의를 굴복시켜
떨어진 꽃들의
붉고 맑은 입김이 있어
너와 나 우리들의 오늘이 있고
빛나는 언어를 다듬어
노래를 부른다
당신들의 죽음이
어찌 나만이 안타까우랴마는
부끄럽지만 내 또한 시를 쓰는 죄업(罪業)으로
모든 아픔이 내 가슴 안에 모여와
무거운 바닷물처럼 출렁인다

어찌하여 당신들이 죽었는지
참으로 꿈만 같다
나는 스물두 살 홍안(紅顔)에서
이제껏 십삼 년
나의 젊음의 피가
여기 교정에 녹아 있어
마고(馬高) 묵은 가족으로
당신들과 함께 이곳을 배고 산다
영원히 변치 않을
나의 사랑의 터에
두 푸른 빛나는 영혼

여기 보금자리 떠나는
 어린 새들에게
 크고 우렁찬 화을음을
 당신들은 끝없이 심어가리라



〈그림-45〉 김용실·김영준 군 민주의거
 추념비(향로 등은 편집된 것)

1960년 7월 15일, 마산고등학교 연못 옆 동
 산에 세워졌다. (제20회 졸업 기념 사진첩)



〈그림-46〉 마산고 추념식 장면(1960.07.20.)

사친회 관계자로 보이는 분이 추도사를 읽고 있다. 뒤
 로 최형련 교장, 김영준 열사의 어머니·둘째형, 김용
 실 열사의 아버지·큰누나·어머니·할머니 등이 슬픔
 에 잠겨 있다.(제20회 졸업 기념 사진첩)



〈그림-47〉 추념비 제막식
 을 마치고

추념비는 학생 일등과 동
 창회, 사친회, 교직원 일동
 이 1960년 7월 15일에 세
 뒀고, 제막식은 그로부터 5
 일 뒤인 7월 20일에 치렀
 다. 둘째 줄 오른쪽부터 김
 영필 님(김영준 열사 둘째

형님), 김용실 열사의 큰누나 김옥주 님·어머니 이명선 님, 김영준 열사의 어머니 주경옥 님, 한 사
 람 건너 김용실 열사의 할머니 제갈련 님·아버지 김기우 님. 셋째 줄 오른쪽에서 일곱 번째가 최형
 련 마산고 교장(안경 낀 분). (제20회 졸업 기념 사진첩)

마산고등학교, 1960년 3월 15일

김용실 · 김영준 열사를 재발견하다

마산고 학생들의 3·15의거 참가기

제5장



김용실·김영준 열사를 재발견하다

마산고 학생들의 3·15의거 참가기

1960년 3월 15일은 제4대 대통령과 제5대 부통령 선거 날이었다. 당시 집권당이었던 자유당은 이기붕의 부통령 당선을 위해 역사상 전례 없을 정도로 갖은 부정 선거를 자행했다. 당일 마산에서는 민주당 마산시당이 전국 최초로 오전 10시 30분에 선거 무효 선언을 하고 오후 3시경에는 가두시위를 했다. 그날 저녁 7시경부터 시내 곳곳에서 학생과 시민 수천 명이 부정 선거 규탄 시위를 벌였고, 경찰의 무자비한 발포로 9명의 사망자와 수백 명의 부상자가 생겼다. 이것이 3·15의거 제1차 의거이다. 이날 실종된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오른쪽 눈에 최루탄이 박힌 처참한 모습으로 떠올랐다. 이날부터 마산의 분노한 학생과 시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섰고 시위는 연 사흘 동안 계속되었다. 이를 3·15의거 제2차 의거라 부른다. 그 후 시위는 전국적으로 퍼져나갔고 ‘4·19혁명’이라는 민권의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이 글의 목적은 한국 최초의 유혈 민주화 운동인 3·15의거의 과정에서 당시 마산고등학교(이하 ‘마산고’) 학생들이 어떻게 참가했는가를 추적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마산고의 간략한 역사와 마산고 학생들의 활동을 살펴본 뒤 3·15의거에 참가한 마산고의 주역들을 소개하고, 그들이 왜 의거에 참가했

던가를 밝힌다. 이어 그들의 제1차 의거에서의 투쟁 과정을 시간 순서로 추적한 뒤, 체포된 투사들의 고문 투쟁을 밝힌다. 그런 연후 제2차 의거에서 마산고 학생 단체 시위 전개 과정을 살펴본다. 끝으로 이 과정에서 열사 가족과 투사들이 겪었던 일들을 정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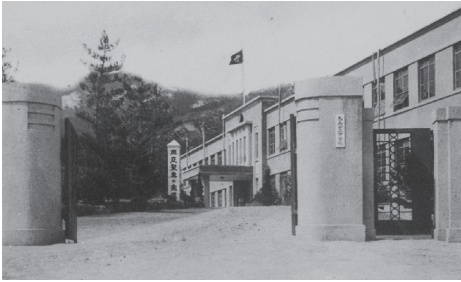
기존 자료들에서 이미 밝혀진 사실들과 새로운 증언들을 바탕으로 스토리가 시공적으로 최대한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재구성하고자 노력했다. 간혹 상충되는 기술과 증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에 와서 무엇이 진실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 안타까울 뿐이다. 역사가 비록 산 자와 승리자에 의해 쓰인 역사일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카(E. H. Carr) 교수의 명언이 부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1. 3·15의거 이전의 마산고등학교와 그 학생들

마산고 학생들의 3·15의거 참가를 되돌아봄에 있어서도 그들이 처해 있던 역사적 맥락과 사회적 환경을 도외시키고는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3·15의거 발생 이전 시기를 대상으로 마산고의 변천과 마산고 학생들의 활동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마산고는 1936년 5년제 마산공립중학교로 출발해 1951년 9월에 마산서중학교와 마산고등학교로 분리되었다. 애초 마산공립중학교는 전국 최초의 한일 공학(共學, 한국인과 일본인 4:6 비율)이자 마산 최초의 인문계 남학생 중등학교로 출발했다. 당시 마산의 한국인들에 의한 남자 중학교 설립 운동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한일 공학으로 출발하게 된 것은 일제가 중국 대륙 침공

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 정책의 일환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48〉 마산공립중학교 시절의 교문과 본관 건물
1939년 전후에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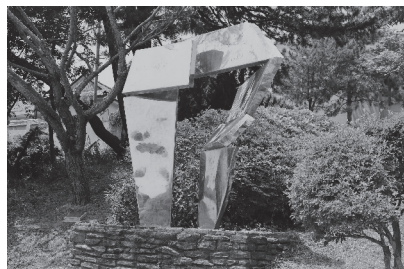
교사가 전부 일본인이고 학생 다수가 일본인인 학교에서, 한국인 학생이 민족 의식을 배양하거나 특히 그것을 표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마산공립중학교의 한국인 학생들 중에는 우발적으로든 조직적으로든 일

제의 폭압에 저항하고 민족 독립을 위해 노력한 학생이 적지 않았다.

1942년 4학년 이도환과 서기수는 태평양전쟁 승리를 자랑하는 일본인 학생을 구타해 혹독한 고초를 겪고 퇴학당했다. 같은 해 3학년 조우식과 김희구가 ‘경남 학생 건국회’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해 일본 패망과 조국 광복에 대한 계몽 운동, 군사 시설 배치도 작성, 일경 2명의 바다 침수, 김해농업학교 강부근 학생을 통한 조직 확대 등의 활동을 하다가 1944년 7월에 발각되어 김희구는 1945년 3월 옥중에서 순국하고, 조우식은 광복과 함께 석방되었다. 1944년 4월에는 8기 박기병·박우식·김영재·조미성·강성중·박성수 등 6명⁸⁹⁾과 7기 김학득·강순중 등 2명, 6기 이주국이 ‘마중 독립단’을 결성, 반일 활동을 벌이다가 7월에 발각되어 옥고를 치르다 광복과 더불어 석방되었다. 1945년 3월 23일 졸업식 직후 화장실 칸막이벽에 그려진 일본 패망을 의미하는 벽화 사건 수사 과정에서 주모자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5기생 8명(김종국·남기옥·노재철·방성철·

89) 『마산고등학교 80년사』에는 5명만 있고, 홍중조 편 『김무신, 그 불꽃같은 삶』에는 6명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후자를 따랐다.

백창기·윤세주·이근철·이달형)의 비밀결사가 드러나 모두 체포된 뒤 이달형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이 옥중 생활을 하다 광복과 더불어 석방되었다. 그 벽화는 ‘일본의 운명은?’이라는 제목 아래 호랑이, 사자, 독수리, 악어가 좌우상하에서 중앙의 외나무다리 위에 서 있는 사람을 노려보는 음각 그림이었다.



〈그림-49〉 항일 운동 기념 조형물 ‘비상’

이 조형물 건립 취지의 글은 1994년 3월 1일자로 고려대학교 교수 강만길(11회) 동문이 지었고, 조형물은 경남대학교 교수 신동호(36회) 동문이 만들었다. 교정 서편에 조성되어 있는 ‘학림동산’ 입구에 있다.



〈그림-50〉 호국 전몰 동문 추모비 제막식

6·25 및 월남전에서 전사한 마산고 전몰 동문을 추모하기 위해 2002년 11월 21일에 조성한 것이다. 모두 아홉 분의 전몰 동문(6·25 전몰 여덟 분, 월남전 전몰 한 분) 이름이 비석 뒷면에 새겨져 있다. 역시 학림동산에 있다. /양해광/

이러한 마산고 학생들의 반일 저항 정신은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일어난 동족상잔의 6·25전쟁에 학도병으로 참가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마산고에서는 100명이 자진 참전했고, 전사자 수는 불명이지만(마산고 교정에 들어서 있는 호국 전몰 동문 추모비에는 8명의 전사자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림-50〉 참조) 북학생은 22명뿐이었다. 6학년의 경우 재학생 156명 중 62명이 참전했다.

이처럼 3·15의거 이전에도 마산고 학생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민족 말살과 북한 공산당의 침략에 맞서 싸워 왔다. 이러한 선배들의 부정과 불의에 대한 저항 정신이 후배들에게 면면히 이어져 왔을 것임에 틀림없다. 홍중조 편 『김

무신, 그 불꽃같은 삶』(이하 ‘김무신 평전’)에는 김무신이 마산고에 합격한 뒤 이러한 마산고 선배들의 활동을 아주 자랑스러워했다는 기술도 있다.

이제 그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어떻게 싸웠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죽거나 다치게 되었는지를 3·15의거 참가자들 자신의 글과 말 그리고 이들의 유가족과 친구들이 공식·비공식적으로 한 증언을 바탕으로 추적해 보기로 한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스토리의 주연들을 간단히 소개해 둔다. 서술의 편의상 존칭은 모두 생략할 것이다.

2. 3·15의거, 마산고의 주역들

먼저, 사망자인 **김영준(3학년)**과 **김용실(1학년)** 두 분 열사부터 소개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두 열사의 신상은 앞선 글들에서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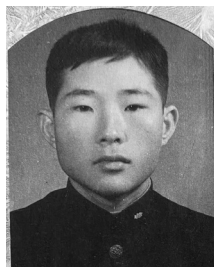
다음, 민주 투사라 불릴 만한 분들로서 부상자인 김무신, 김정세, 박광규, 서기홍, 송정명, 황의신과 참여자인 박문달이다.

김무신(1학년)은 진전면 창포리 출신이다. 유학자 집안으로 어릴 때는 가정 형편이 나은 편이었지만 갈수록 형편이 나빠져 중학교 다니던 때부터 항상 학비를 걱정해야 할 정도였다. 3·15의거 발발 당시 그는 누님 집 근처(반월동 85번지)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다. 그는 제1차 의거 전날인 3월 14일부터 석방되던 3월 20일까지 자신의 활동과 생각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한 일기를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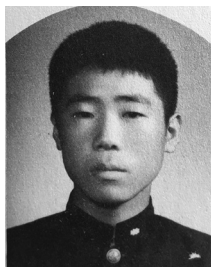


〈그림-51〉 21회 졸업 사진첩 속의 김무신

졌다. 이 일기 덕분에 3월 15일 의거의 리얼리티가 상당히 살아날 수 있었고 시청과 경찰서에 연행된 시위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당했는지도 알 수 있었다. 그가 사용한 단어와 문체는 물론 사고의 깊이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그는 대단한 지력과 글 솜씨를 가진 학생이었다.



〈그림-52〉 20회 졸업
사진첩 속의 김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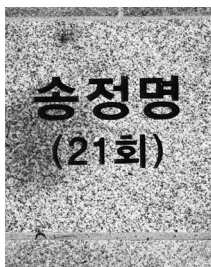
〈그림-53〉 20회 졸업
사진첩 속의 박광규

김정세(2년)는 중성동에서 외조모를 모시고 부모님과 5남매가 살았다. 3월 15일 여동생 정희(성지여중 2년)도 같이 총상을 당해 남매가 부상자가 된 희귀한 사례다. 그는 부상 때문에 제2차 의거에는 참가하지 못했다.

박광규(2년)는 합천군 초계 출신으로 초계중학교를 거쳐 마산고로 진학했다. 마산 상남동에 이모 집이 있었지만 신월동(현 중앙고 근처)에서 하숙을 했다. 제1차 의거에서 체포되어 석방되었고, 제2차 의거에도 참가했다. 그는 기록상 학업 성적은 좋은 편이 아니었던 것으로 짐작되지만, 운순 착실하고 내향적인 성격으로서 공무원이나 교사가 꿈이었다고 한다.



〈그림-54〉 21회 졸업
사진첩 속의 서기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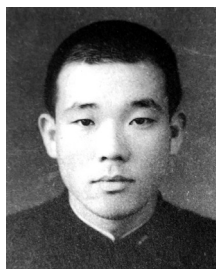
〈그림-55〉 추모 동산에
새겨진 송정명(21회)

서기홍(1년)은 신월동에 있는 집에서 외조부모 슬하에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살았고, 부친은 이미 작고했다. 법원에서 일하시던 외조부는 야당 지지자로서 보통의 공무원과 달리 동아일보를 구독하고, 서기홍은 동아일보가 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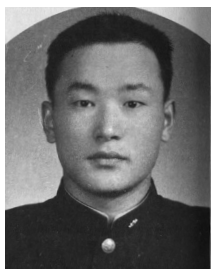
실정을 숨김없이 보도하는 신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제1차 의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가 일주일 후 석방되었고, 제2차 의거에도 참가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인지 성적도 좋지 않고 출석도 불량했지만, 정의감만은 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송정명(1년)은 거제가 본가인데 당시 자산동 친척집에 거주했다. 제1차 의거에 참가해 충상을 입었고, 입원 중이어서 제2차 의거에는 참가하지 못했다.



〈그림-56〉 21회 졸업 사진
친척 속의 황의신



〈그림-57〉 20회 졸업
사진첩 속의 박문달

황의신(1년)은 상남동에서 부모, 조부모, 삼촌, 고모, 누나, 여동생들, 남동생 등 11명의 대가족이 같이 지냈다. 부친 황창주 님은 의사로서 구마산에서 황의원을 운영했다. 부친의 교육열은 대단했고 본인도 근면했지만 부친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듯했다. 제1차 의거에 참가해 마산고 학생 부상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지만, 어찌 된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의 증언은 물론 다른 기록이나 정보도 현재까지는 전혀 없다.

박문달(2년)은 마산 창동 본가에 거주했다. 의거 당시 지금의 학생회장에 해당하는 학도호국단 운영위원장이었다. 우수한 학업 성적과 온건하고 착실한 품행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이었다. 제1차 의거에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야간 시위에 어깨동무하면서 참가했다는 정도의 본인 기술만 있지만, 제2차 의거에서는 마산고 학생을 대표하여 4월 12일 마산고 학생 단체 시위를 주도한 경위를 상당히 자세히 증언했다.

3. 그들은 왜 3·15의거에 참가했던가?

3·15의거는 사실상 부정 선거에 항의한 민중 봉기이지만 애초 학생 의거라 불릴 정도로 수많은 중·고교생이 참가했다. 4월 11일부터 3일 동안 전개된 제2차 의거에서는 당시 마산 소재 8개교가 사전 논의하에 학교별로 단체 시위를 벌였고, 이러한 조직적인 시위의 동기도 너무나 뚜렷했다. 4월 11일 오전에 3월 15일 시위에 참가했다가 행방불명되었던 김주열 학생이 오른쪽 눈에 최루탄이 박힌 참혹한 시신으로 마산 중앙부두 앞바다에 떠올랐기 때문이다. 3월 15일 제1차 의거에도 수많은 학생들이 참가했지만 이들 사이에는 어떤 조직적인 사전 논의가 없었다. 말 그대로 자발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다. 아는 친구들 사이에 “7시에 시청 앞에서 모이자.”라는 약속이 있었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그런 소문을 듣고 따랐을 뿐이다.

제1차 의거에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학생 중에는 마산고 학생의 비중이 가장 높다. 마산고 학생들은 왜 3·15의거에 주도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가했던 것일까? 그들 자신의 말과 글을 통해 그 이유를 찾아보면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학생들이라고 해서 통념을 벗어나지 않으며, 오히려 젊은 만큼 더욱 불타는 정의감을 표출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첫째, 가정 사정과 세상에 대한 불만이다. 김정세는 회사원인 부친이 1년이 멀다하고 시골 변두리로만 전근 다니시는 것을 보고 뺨이나 돈 없이는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세상임을 일찌감치 알아챘으며, 깡패들이 자유당 앞잡이로 설쳐대는 세상은 뭔가 잘못된 세상으로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당시 대학생들과는 달리 고교생들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나라 걱정하는 마음도 남달랐으며, 항일 감정에서 시작해 깡패들이 정치권에서 판치는 세상, 부정 부패가 난무하는 이 모든 불신 풍조를 마감해야 한다는 의식으로 뭉쳐져 있

는 등 학업 이상으로 정치와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합천 촌놈 박광규는 시골에서 도시로 나와 보니 빈부 격차가 심하고 국민 전체가 너무 못산다는 걸 알았고, 이진 국가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서기흥도 보릿고개라는 말이 웅변하듯 국민의 살림살이가 어려웠고, 정치도 꽤 시끄러웠다고 보았다.

둘째, 대구 2·28 학생 시위 등 타 지역 학생 시위로부터 받은 자극이다. 3월 11일에 부산 동래고 학생 두 명이 마산으로 넘어와 마산고 학생위원장을 만나서 그리고 그 이튿날에는 다른 고교 학생위원장들을 찾아가 “마산 학생은 무얼 하느냐?”라고 질타했다. 그들은 학생 시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시위 조직을 설득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마산의 학생 대표들은 감시가 극심한 지금 상황으로는 시위가 불가능하다며 오히려 그들을 타일러 보냈다. 당시 마산의 고교들에는 수많은 학생 동아리들이 활동하고 있었고, 동아리들 간의 교류도 활발했다. 다른 고교 학생들의 증언도 참고할 만하다. 마산상고 3년 학생회장 김양부의 증언에 따르면, 2·28 이후 마산상고에서는 대구에 웅원군을 파견하자는 웅성거림이 있었고, 경북고 학생 몇 명이 내려와 마산상고 학생들에게 2·28과 시국을 설명하며 협조를 부탁한 뒤 부산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를 들었고, 부산 동래고의 이형우라는 친구가 자신을 찾아와 대구 얘기를 하면서 3·15 부정 선거 관련 테모 얘기를 나누는 적이 있었다. 안명희(성지여고 3년 학생회장)는 부산 동래고 학생들이 마산으로 넘어와 시위를 선동했다는 소문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그림-58〉 대구 2·28 학생 시위(대구 2·28 민주운동)

경북사대부와 학생들의 농성 장면. /3·15의거 기념사업회/

이유로 동래고 펜팔 친구가 부정 선거 항의 데모 계획을 짜고 있는데 마산에서도 필요하면 보내주겠다고 말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마산고에서 시위 모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3월 1일 마산고 학도호국단 훈육부장이자 2학년 대의원인 정종식의 집에 1학년 B반 급장인 김용실을 비롯한 18명이 모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학생들이 좌시하고 있을 수는 없다.”며 3월 6일을 기해 행동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거사 모의가 누설된 탓인지 학교마다 형사와 교사들의 감시가 우심해져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이 일로 그들은 전전긍긍했다. 이 모임에 참가했던 김정세는 2·28 대구 학생 시위가 마산 학생들에게 가장 확실한 동기 부여를 했으며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3·15의거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마산의 고등학생들은 시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이 아니라 시위에 나설 적당한 시기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셋째, 학교의 부당한 대응이다. 김정세는 당시 마산의 고교 당국들이 학생들을 묶어 두려고 학년말 시험을 3월 초순에서 14일까지 강행했다고 했고, 박광규는 3월 16일부터 학기말 고사라 데모에 신경 쓸 틈이 없었고, 15일 저녁에도 집에서 시험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당국의 지시로 교사들은 방과 후 가정방문을 핑계로 학부모들을 찾아가 자유당에 투표할 것을 권유하고 다녔고, 김용실처럼 학생 간부이거나 요주의 학생은 따로 불러 데모에 가담치 말라고 설득하거나 자칫하면 퇴학당한다는 등 겁을 주기도 했다. 마산고 학도호국단 학생위원장이었던 박문달은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언행을 감시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우리는 틈틈이 친구들과 모여 이승만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와 정의가 충만한 새 나라가 세워져야 한다고 공공연히 얘기를 나누어 왔다.”라고 말했다. 김무신의 일기는 말한다. “14일 아침 조례 시간에 김치는 교장 선생님이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기봉 선생을 모실

수 있도록 모든 학생이 각 부모에게 잘 부탁해야 한다.’는 식으로 혼시하는 것을 듣고 절대 정치에 간섭하지 말라는 명령에서 다시 은근히 공리적이고 타산적인 이권에 눈이 어두워 아부하는 형식의 혼시를 듣고 신성한 학원에서 진리를 탐구하는 나 자신, 마산고의 전당에서 속으면서 배워 왔다는 비굴감을 느꼈다. 더욱이 학원의 총책임자가 하물며 이런 추태 만상이 다분한 언어를 사용하고 공작대원의 일원이라 생각하니 나의 가슴은 터질 것 같다. 지상에 소생한 이래 하루아침에 마음이 이토록 아팠던 적은 없다.”

끝으로, 노골적인 부정 선거이다. 김무신은 3월 15일 선거 전날까지도 누님의 번호표가 나오지 않았음을 확인하자 “가슴은 뛰고 입은 굳게 다물고 굳게 쥔 주먹에는 진땀이 차고, 한숨이 나온다. ‘두고 보라!’ 속으로 다짐했다.”⁹⁰⁾ 3·15의거 발발 사흘 전인 12일 마산방송국 앞에서 김무신은 우연히 서기홍을



〈그림-59〉 자유당의 부정·불법 선거의 한 모습(국립3·15민주묘지 야외 전시용 사진대에서)

90) 김용실이 선거 전날까지 할머니의 투표 번호표가 나오지 않아 분노했다는 점은 제3장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만났다. 그가 “기흥아! 이제 거센 태풍이 몰아닥칠 모양이야! 온 시민이 들고일어날 것이 틀림없어! 그러니까 거사가 일어날 시간에 기흥이 니도 거리로 나와야 돼!” 하자 기흥이도 무신이의 결연한 의지 못지않게 불의에 맞서 행동에 나설 마음을 굳혔다. 둘은 굳은 악수를 나누고 헤어졌다. 김무신은 14일 방과 후 귀가 중에 어떤 할아버지를 만났다. 할아버지가 “학생, 내일이 선거 날인데 이놈의 반장, 동장 놈이 찾아와서 ‘작대기 하나 밑에 안 찍으면 좋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는 으쓱대며 인사도 없이 지나가니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었기에 이모양 이 꼴이냐?”며 원망과 두려움에 찬 하소연을 듣고 “할아버지, ... 염려 마십시오. 결코 정의가 불의 앞에 머리를 굽히는 법은 없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린 후 집으로 돌아와 내일 거사 계획 작성에 몰두했다.

송정명은 “당시 부정 선거 얘기가 신문지상에 간혹 나오긴 했지만 국민 누구나 자유당이 이기봉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 명백한 부정 선거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고, 박광규도 “당시 분위기가 신익희 후보에 이어 조병옥 후보의 갑작스런 서거로 동정심이랄까 민심이 민주당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었고, 자유당이 국민의 호응을 받고 있던 장면 박사를 밀어내고 이기봉 씨를 부통령에 역지로 당선시키려 한다는 풍문이 많이 나돌았다.”고 했다. 박문달도 3·15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승만 자유당 정권이 온갖 부정, 부패, 불의를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광경을 수없이 보고 또 들었으며, “3·15 선거 날, 자유당의 부정행위, 즉 4할 사전 투표, 3인조 5인조 투표장 투입, 금권 관권 동원 등 만행을 보다 못한 민주당원이 선거 포기를 선언하고 ‘부정 선거 다시 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거리로 뛰쳐나갔고, 이에 시민들이 합세해 자유당 정권에 대항해 싸우게 되었다.”고 말했다.

3월 13일 밤, 마산상고 학생들의 뼈라 살포와 격문 부착 그리고 3월 14일 오

후 6시 무렵, 민주당사 앞에서 미수에 그친 학생 시위도 있었다. 이 사건들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내막은 앞선 글에서 이미 다루어진 바 있다.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허윤수가 막대한 이권을 받고 자유당으로 넘어가는 변절 사건으로 민심이 뒤흔들고 불길한 조짐들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와중에도 자유당의 부정 선거 준비는 물밑에서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3·15의거 전야, 마산 시내 전역은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은 분위기였다. 마치 폭풍 전야처럼 대지는 숨을 죽이고 사위는 적막했다.



〈그림-60〉 변절자 허윤수의 자기방어 및 변명 기자회견

민주당 국회의원 허윤수가 자신을 밀어준 마산 시민과 당원을 배신하고 자유당으로 당적을 바꾼 것은 1960년 1월 7일이었다. 당원은 물론 시민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그는 같은 해 2월 9일 자기방어 및 변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허윤수의 변절은 3·15의거를 발생케 한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 /3·15의거기념사업회/

4. 투쟁의 현장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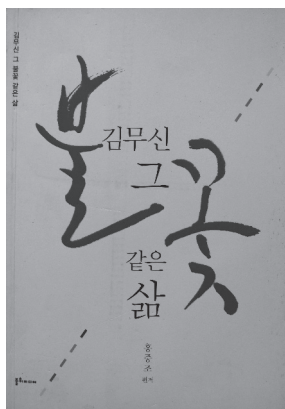
3월 15일, 드디어 역사적인 선거 날이 밝았다. 아침 7시 정각 마산경찰서와 남성동파출소 양쪽에서 투표 시작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오늘도 여념 없이 생을 찬미하는 검붉은 태양이 온 지상에 복된 누리를 마련하고 있다.”고 김무신의 일기는 시작한다. 김무신은 눈을 뜨자마자 즉시 시내 사정을 살폈다. 예상대로 동·반장들이 흰 베에다 검은 색으로 쓴 ‘자유당’이라는 완장을 차고는 온 거리를 활보하면서 이 완장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떠맡긴다. “부탁합니다. 해해, 이 분 잘 아시죠?” 하며 아부를 떨기도 했다.

김무신은 아침밥 먹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이미 약속한 대로 붉은 색연필과 도화지를 가지고 500미터 정도 떨어진 친구 송원주의 집을 찾아갔다. 반월동 입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친구의 집으로 가는 대로 한복판에 투표소가 있다. 투표소 주위의 길 입구마다 새끼줄로 이중삼중으로 망이 쳐져 있다. 시장을 돌아다니며 공짜 술이나 얻어먹고 노름판에 가서 근거 없는 시비를 걸어 입치레나 하던 아니꼬운 족속들이 만취 상태로 모여 오고가는 사람을 붙잡고는 “여기, 여기 찍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요?” 하며 싸움을 걸듯이 공갈을 친다.

김무신은 집으로 되돌아가 시계를 풀어 놓고 다시 만반의 준비를 한 후 집을 나섰다. 투표소 앞을 지나가는데, 신경마비제를 맞아 혼수상태에 빠진 듯한 반공청년단원 한 명이 “야, 학생. 저리로 돌아가!”라고 호통을 치자 “무슨 권리로 국민의 자유를 함부로 농락하느냐?”며 당당히 쏘아부쳤다. 투표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살펴보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도리어 권리를 빼앗기고 나오는 표정들이다. 아는 아주머니 한 분이 보인다. 귓전

에 “아주머니, 어떻게들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불만에 가득 찬 말투로 대답한다. “아유, 말도 마 학생! 내가 찍고 싶은 데 찍고 나오는데 자기네들이 목표로 하는 대상이 아니고 다시 끄집어내서는 자기네 손으로 다시 찍고 안 그러나?” 무신은 친하게 지내는 다른 한 아주머니를 만나자 똑 같이 물어보았다. 그녀는 무신을 바빠 집으로 데리고 가더니 마루에 앉자마자 자유당 지방 간부들의



〈그림-61〉 김무신 동문의 삶을 재구한, 홍중조(19회) 동문의 저서『김무신, 그 불꽃같은 삶』(2014, 불휘미디어)의 표지

목적 대상인이 아니면 명심해 두었다가 나중에 보자는 식으로 협박을 하더라며 “세상이 뒤집혀야 할기다.”라고 말했다. 무신은 치가 떨리고 온 몸에 소름이 끼쳤다. 속으로 생각한다. “혁명, 내 힘으로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오전 10시 경 김무신이 친구 집에 도착했다. 이 친구도 울분에 쌓여 있었지만 부모님 경계가 엄중하여 오늘 하루만은 맘대로 처신하지 못하는 신세다. 준비해 온 두 장의 큰 종이를 꺼내 한 장에는 국민에게 보내는 각서를, 다른 한 장에는 자유당 간부에게 보내는 각서를 썼다.

“국민에게 보내는 각서

경애하는 부모·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오인은 투표소에서 하는 자유당 간부놈들의 처사와 실제 우리의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는 불의의 명령은 우리들의 주권을 박탈하고 있으며 우리의 자유와 권리는 이미 땅바닥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현명하신 부모·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가고 없는 우리 선조들의 업적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엄연한 민주주의 원칙하에서 자

유와 평등, 권리를 보지하면서 우리의 주권을 행사하고 영구한 발전을 누려야 할 이 마당에서 자유가 없고, 평등이 없고, 권리가 없이 불의를 보고도 수수방관해서야 되겠습니까? 선거법에 있어서 그 종류는 여러 가지이나 어떤 선거이고 간에 그중 하나를 택하게끔 엄연하게 기본법이 존재하는 데도 불구하고 비밀투표와 공개투표가 동시 실시되는 모순이 현재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명하신 부모·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애타는 심정 억제할 수 없어 삼가 고개 숙여 존배하게 되는 오인은 이미 죽음을 각오한 10대 소년, 비천한 한 가내의 맏아들입니다. 너그러우신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부디 부디 몸 건강하십시오. 이만 총총.”

“자유당 간부에게 보내는 각서

요사마사한 인간 자유당 간부 여러분! 이렇게 서두부터 불손한 언사로 대하게 된 원한에 찬 이유를 알겠습니까? 이렇게 글월을 상서하게 되는 소인은 여러분들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나이로 학원에서 진리를 탐구하고, 불의를 타파하려는 정신의 소유자, 학생의 한 사람입니다.

오인은 호소합니다. 원한에 찬 호소입니다. 당신들 중에도 오인과 같은 아들, 딸을 둔 간부들도 계십니다. 양심이 있고 냉정한 이성으로써 자녀들을 교육시킨다면 가만히 두 손 가슴에 얹고 반성해 보십시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영원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당신네들의 조상이 남기고 간 업적에 피를 더럽혀 천추만대에 발힐 용기가 있다면 이 각서를 보는 즉시 찢어 버리고, 반대의 생각하시면 퇴장하여 계몽은 못할망정 가내 혁명이나 시키십시오. 오인은 죽음을 각오한 하느님의 계시를 받은 비천한 몸입니다.”

김무신은 각서를 둘에 싸서 하나씩 던졌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위치에 있긴 했지만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다른 길로 빠져 나왔다. 얼마 후 결과가 궁금해 현장에 다시 가보니 ‘국민에게 보내는 각서’는 산산조각이 나 길바닥에 널려 있고, 다른 한 장은 목적지에 도달하지도 않았다. 다시 주워 와서는 같은 내용의 각서를 세 개 더 썼다. 이번에는 투표소에서 2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경찰서장 관사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뒤 들어가서 장독대에서 둘에 싸 각서를 던졌다. 투표소 마루에 돌이 떨어지는 소리가 쿵쿵 났다. 성공! 호탕한 마음으로 돌아 나왔다. 12시쯤 다시 현장에 가 보았다. 사람들이 그걸 보았

는지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게 아침때의 분위기와는 달라 보였다. 그러나 좀 어색한 기분이 감돌아 세심히 살펴보니 역시 반응은 신통찮다. 실망한 그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며 새삼 각오를 다졌다.

이 무렵 김정세와 서기홍도 시내에 있었다. 가족 모두와 함께 시내 나들이를 나갔던 김정세는 1시 30분경 점심 식사를 마치고 불종거리를 지나가다가 민주당사에서 선거 포기를 알리는 스피커 소리를 들었다. 눈물이 핑 돈 그는 민주당사 앞에 운집해 있는 학생들을 보고 자기도 저쪽에 가겠다 하니 부친이 만류했다. 그래서 일단 집으로 갔다가 목욕탕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그 길로 바로 민주당사로 다시 나왔다. 오후 4시경이다. 대략 1~2천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가두시위를 하고 있었고, 경찰이 민주당원들을 연행해 가는 것을 보았다. 그 직후 서기홍이 이곳에 도착했다. 그는 이미 낮 1시쯤 신월동 집에서 나와 맞추어 둔 교복을 찾으러 구마산에 갔다가 주인장이 그의 친구와 하는 대화에서 민주당사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집에 돌아왔는데, 호기심을 못 이겨 시내로 다시 나왔던 것이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여 있고 어수선했던 분위기였다. 민주당 방송을 듣지는 못했지만 민주당원들이 데모하다 잡혀간 상황인 것 같았다. 군중은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가 개표시간이 가까워 오자 나중에 모두들 시청으로 가자는 말을 주고받으면서 일단 해산했다.

김무신은 신월동 투표장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 있었다. 위에는 푸른 셔츠, 아래는 교복을 차려 입고 현 군화를 신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친 뒤 구마산을 향해 갔다. 하오 5시 조금 지났을까 민주당 시당부 앞 노상에 도착했다. 시당부 2층에 설치된 스피커에서는 그가 평소 사숙해 온 정남규 도의원의 목소리가 부정 선거 강행, 모의 공작 등등 불의를 공개하는 피눈물이 나는 듯 목

멘 원한에 찬 절규를 토한다. 무신은 온몸에 찬물을 끼얹은 듯 소름이 끼치고 두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갑자기 그동안 쌓여 있던 분노가 폭발했다. “경비 경관! 넌 뭐냐?” 하며 집어던진 돌이 경관의 머리에 명중했다. 시민들이 “와~!” 하며 치고 밟고 박고 난장판을 만들었다. 혼란한 틈을 타서 빠져나와 컨티넨탈 다방(현 코아양과) 앞을 지나 건너편 25시 다방 앞 아스팔트 노상에서 들으니 컨티넨탈 건물 옥상의 자유당 스피커와 민주당 시당부 옥상의 민주당 스피커가 마치 대결을 벌이는 듯하다. 사람들은 모두 민주당 스피커에만 귀를 기울이는 듯했다.

김무신은 25시 다방 뒷골목에서 친구들을 조우했다. 김정운, 서기용(홍), 송원수(주) 등 친구 5명은 “오, 김 군!” 하며 뜨거운 악수를 청하는 무신의 씩씩 거리는 음성과 얼굴, 행동, 몸차림을 이상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이들은 작은 골목길로 이동했다. 무신은 오늘 일을 규탄하기 위해 오후 7시 시청 앞에 집결하자고 제안하고, 각자 이를 최대한 많은 친구들에게 알리고 또 주변에 전파해 달라고 부탁했다. 친구들 모두 전적으로 동의했다. 시간이 없으니 빨리 실행하자며 즉시 헤어졌다. 무신은 이런 용기와 기백을 가진 친구들이 고맙고 자랑스러웠다.



〈그림-62〉 대한반공청년단 마산시단부 결성식 후 시가 행진

이들은 3·15 부정 선거 행동 대원으로 앞장섰다. /『3·15 의거 사진집』 41쪽/



〈그림-63〉 자유당 완장부대

이들은 ‘자유당’이라는 완장을 두르고 길 가는 사람들에게 자유당 쪽으로의 투표를 강권하기도 하고, 투표장 앞에 대기하여 유권자들에게 위압적 행동을 하기도 했다. /3·15의거기념사업회/

김무신이 골목에서 나오는 순간, 길쭉한 셀럼 담배를 손가락에 낀 놈뎡이 한 놈이 “야, 학생 잠깐!” 하면서 다가선다. 형사 타입의 30대 인상과 아저씨가 팔을 잡아당기며 끌고 가려고 한다. 김무신은 욕설과 비난을 마구 퍼부으며 돌맹이를 쥐고 공세를 취한 뒤 뛰어서 도망쳤다. 100미터 정도 죽자고 달린 뒤 아무 반응이 느껴지지 않아 일단 멈춰서 뒤돌아보니 그놈은 없고 마산고 선생님들만 보인다. ‘아차’ 하면서 다시 달렸다. 시민극장 앞 주차장에 도착하니 마침 시내버스가 서 있어 바로 집어탔다. 버스 안에 있는 십여 명의 학생들 중 납득할 만한 학생들에게 귓속말로 전언하자 모두 재고의 여지없이 찬성한다. 그는 형이나 친구도 동반해 달라고 부탁했다. 일은 순조롭게 풀리는 것 같은데 그의 가슴은 조금 전 겪은 모험 탓인지 여전히 두근거리고 있었다.

김무신은 신마산 마산극장 앞에서 하차했다. 친구 포섭을 위해 다방들을 뛰면서 돌았고, 상급생이든 하급생이든 전화번호를 아는 친구들 모두에게 전화를 걸었다. 1시간 만에 200명 정도는 확실하게 포섭한 것 같았다. 다시 누님 집을 찾았다. 누님은 저녁 식사를 차려 주면서 유달리 좋은 반찬을 준비하셨다. 무신은 자신의 행동을 짐작하신 건 아닌가 생각했다. 그러나 저녁은 먹는 등 마는 등 했다. 화가 치밀어 들어갈 곳이 없었던 탓이다. 푸른색 셔츠를 흑색 셔츠로 바꿔 입고는 약속 시간에 맞추어 나갔다. 신월동과 장군동을 지나 가면서 계속 친구 포섭에 열중했다.

송정명도 저녁에 시청에 모여서 개표 못하게 하자는 소문을 들었다. 어둠이 깔리기 직전인 6시 무렵 저녁을 먹고 나온 많은 사람들이 시청 개표 현장으로 가고 있었다. 그는 이 무리에 합류했고, 무학초등학교 앞에서 시내로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전부 시청을 향해 몰려오고 있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구름같이 길을 짝 메웠고, 그 끝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마산 시

민이 전부 다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사람들은 구호를 외치거나 노래를 부르면서 부정 선거를 규탄하며 분노에 가득 차 있었다.



〈그림-64〉 유리창이 깨어지는 등 파손된 마산시청

3월 15일 선거의 개표 장소는 마산시청이었다. 이렇게 시청이 파손된 이유는 부정 선거 투표함이 보관되어 있고, 일부 공무원들이 부정 선거에 앞장섰기 때문이었다. /3·15의거기념사업회/

서기홍은 민주당사 근처에서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고 오후 6시 반쯤 약간 밝을 때 집을 나왔다. 시청 앞까지 못 가서 세무서 뒤에 있는 유정다방 인근에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일반인은 많지 않았다. 시내 민주당사 근처에 있던 김정세는 군중들이 저녁 7시 시청 앞에서 다시 모이기 위해 흩어진 후 도보로 시청을 향해 갔다.

오후 정각 7시, 시청 옥상에 걸린 스피커가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외친다. 시청 전방 약 100미터 지점에 6명의 학생을 동반하고 막 도착한 김무신은 “오냐 이놈 좋다!”면서 입을 굳게 다물었다. 시청 앞에 가니 친구 20~30명 정도가 모여 있었다. 서로 악수를 교환한다. 스피커가 “개표하겠습니다.”를 연달아 외친다. 경찰들이 총을 메고 방망이를 든 채 아스팔트 양편에 줄 늘어선다. 학생은 무조건 돌아가라 한다. “왜 돌아가라는 거요? 우리는 의무를 당당하게 치렀으니 그 대가로 권리가 엄연히 부여되어 있는데 왜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는 거요!” 경찰들이 “개새끼! 무슨 잔소리야.” 하면서 쫓아온다.

학생들은 법원 뒷골목으로 도망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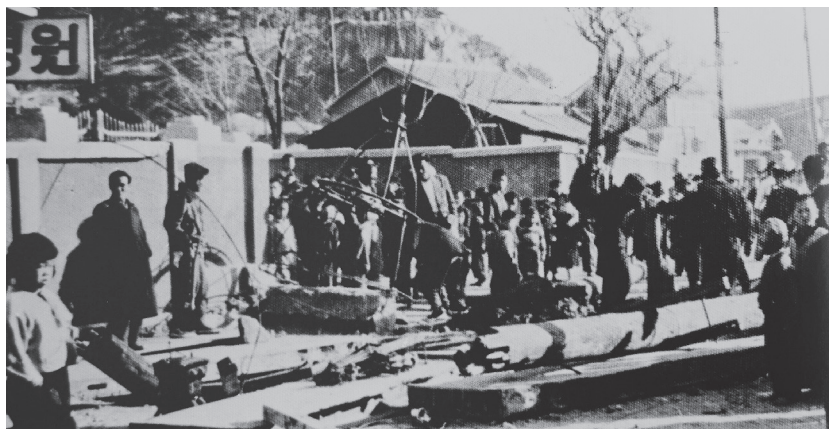
조금 있으니 구마산 군중이 “와~!” 하면서 의기양양하게 진군해 왔다. 구마산에서 만났던 김 군이 선두에서 지휘하고 있다. 모두 합성을 올리며 총집결하니 도합 500명은 충분하다. 김무신이 법원의 높은 뒷담에 뛰어올라 말했다. “... 이 거족적인 행사의 순수한 의의는 과거 12년 동안 묵었던 이승만 독재·부패 정치에 항거하고 박탈당한 우리의 주권 찾기와 불의를 배타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데 제1목적이며, 제2목적은 선조들의 유업을 손상시키지 않음이 우리들의 도덕적인 의무인 만큼 일치단결하여 질서정연한 학생 본위의 거사를 치르도록 간곡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그럼 행동 면에 있어서는 아스팔트로 나가 스크램을 하고, 구호는 ‘부정선거 다시하자!’, ‘민주주의 사수하자!’, ‘학원의 자유를 달라!’, ‘이승만 독재 물러나라!’이며, 이 중 아무것이나 좋습니다. ... 아무런 제지가 없을 때에는 우리의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시청까지 입청한다, 만일 심한 제지가 있을 때에는 우리도 과감히 대적한다, 이상입니다.”

모두들 “웁소!” 하면서 큰 길로 나섰다. 시청 전방 200미터 떨어진 동방건물 아스팔트 거리이다. 약속대로 건아들의 위풍을 과시하며 당당하게 구호를 외치며 전진 또 전진, 시청으로 쇄도해 갔다. 그러나 시청 앞에는 이미 경찰이 지프차, 소방차 등으로 바리케이드를 치고 막고 있었다. 지프차와 소방차의 헤드라이트가 그들의 눈을 비추었지만 시위 군중의 절규는 계속되었고, 점점 시청 쪽으로 접근해 간다. 한전 지점을 지나 도립마산병원 근처에서 행진이 막혔다. 드디어 경찰이 무차별 구타를 가하기 시작했고, 공포를 쏘아 대며 사이사이 최루탄도 발사했다. 시위 군중은 공포에 떨며 후퇴했지만, 이때부터는 시위 대도 돌과 나무를 무기로 삼아 대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조직적인 경찰 앞에는 불가항력이다. 최루탄 공세는 더욱 심해졌고, 학생 시위대는 전의를 상실했다. 김무신이 원했던 평화 시위는 이미 물 건너갔고, 사태는 악화일로다. 그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세무서 뒤쪽에 있던 서기홍은 소방차가 불을 켜고 군중을 비추고 물대포를 쏘고 해서 헤드라이트를 깨기 위해 돌을 주워 던졌다. 기홍은 무학초등학교 앞의 상황은 잘 몰랐지만, 장군천 시장에서 다시 모여 시청 진입을 시도했다. 이때는 아직 정전 사태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었다. 세무서 뒤에 모여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 소방차가 가로막아 물대포를 쏘았다. 이때 여학생들이 돌을 많이 주워다 주었고, 서기홍 등은 “경찰들 온다.” 하면 그쪽으로 가서 돌을 던지곤 했다.

송정명과 김정세도 무학초등학교와 몽고간장 앞에서 시청에 이르는 대로와 시위 군중 속에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일진일퇴를 반복했고, 송정명은 한 8시까지 그랬다고 생각한다. 이 무렵이었을 것이다. 소방차 한 대가 돌연 군중에게 헤드라이트를 비추고 물대포를 갈기며 질주해 오기 시작하자 시위대는 돌을 던지며 대항했다. 김정세도 가세했다. 소방차 운전자가 돌에 맞았는지 소방차는 갑자기 방향을 틀더니 무학초등학교 앞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전신주는 넘어지면서 세 동강이 났고, 폭음과 함께 마산 시내 전체가 정전이 되었다. 어둠 속에서 시위대는 곧장 시청으로 전진했다. 그런데 도림마산병원 근처에서 처음으로 총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실탄 사격이 시작된 것이다. 시위 군중이 후퇴하기 시작하자 경찰들이 밀고 나오기 시작했다. 총탄 소리에 송정명은 겁이 났다. 김정세는 이성을 잃은 채 북마산 쪽으로 도주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수도산 쪽으로 도망쳤다.



〈그림-65〉 쓰러진 전봇대

3월 15일 밤 마산소방서 소방차가 시위대를 진압하려다 무학초등학교 앞 전봇대를 들이받아 시내 일원에 정전 사태를 유발시켰다. /3·15의거기념사업회/

서기홍은 법원 쪽으로 이동했는데 여기도 경찰들이 총질을 해 댔다. 시청으로 좀 더 가까이 가는 순간 서기홍은 자기 바로 옆에서 친구 하나가 총을 맞는 것을 보았다. 같은 학교 동급생인 김용실이었다. 용실이 ‘윽’ 하며 쓰러지자 기홍은 머리카락이 짝 솟으며 순간 자신도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뒤 돌아서서 다시 법원 쪽으로 이동했다. 거기에도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위급한 상황이라 한두 명은 옆집 담을 넘어갔다. 서기홍도 담을 넘어가려는데 총알이 날아와 쓰러졌다. 땅에 얼굴을 처박고 엎드렸다. 경찰들이 달려와 그의 머리를 사정없이 쳤다. 피가 주르륵 흘렀다. 네댓 명이 같이 잡혔다. 경찰이 어깨, 팔꿈치, 무릎관절을 따다닥 때리니까 다들 꼼짝을 못 했다. 경찰이 쓰러진 사람을 일으키려 하자 엉겁결에 두 사람이 일어섰다. 경찰들이 그들을 몽둥이로 사정없이 때렸다. 이가 다 날아가고 머리와 얼굴에 피가 났다. 손을 머리에 올리라 해서 서기홍은 손이 안 올라가 머리를 숙여서 올렸다. 그들은 반공청년단이 2월

종대로 서 있는 사이로 시청으로 끌려갔다.

8시 30분쯤 되었을까. 총질과 투석의 격전은 계속되는데 시위대는 악전고투의 연속이다. 뿔뿔이 흩어지는 학생 데모대, 돌질하면서 뒷걸음치다 넘어지는 학생도 부지기수다. 김무신은 총탄에 맞아 ‘우익!’ 비명을 내지르며 쓰러지는 동생 또래의 한 청소년의 처절한 모습을 보았고, 날카로운 비명을 수없이 들었다. 경황없이 후퇴하면서도 뒤돌아서서 돌질을 했다. 남전 앞에서 전열을 가다듬고자 했다. 갑자기 장소가 밝아 불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전 이 사람들 뭘 하는 거요? 불을 끄시오! 불을 꺼!”라고 고함쳤다. 빨리 불이 꺼지지 않자 옆의 친구들이 돌을 던졌다. ‘쨍그랑’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그의 신경을 거스른다. 그때 구마산과 북마산 방향에서 온 데모 대원 5천여 명이 당도했고, 시위대의 힘은 배가되었다. 수십 명의 여학생이 스커트 앞자락에 돌맹이를 가득 담아 와서 데모 대원 앞에다 부리고 갔다. 김무신은 3·1독립의거 때 통치마를 입은 의신여학교 학생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 만세를 외치는 광경이 떠올랐고, 마산 여성의 대단함에 감격해 왈각 눈물을 쏟는다. 그러나 사태는 위기 상황으로 치닫는다. 증가하는 경찰의 공세가 더욱 맹렬해지자 데모대는 뿔뿔이 흩어진단다. 김무신도 친구들과 헤어져 버렸다. 경찰의 무차별 총질에 투석으로 대항하다니 바위에다 계란치기였다.

박광규는 신월동 하숙집(현 중앙고 근처)에서 내일 치를 학기말 고사를 위한 시험공부 중인데 친구 임문길이가 찾아와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갑자기 정전이 되어 무슨 일인가 싶어 촛불을 켜 놓고 친구와 함께 잠깐 밖으로 나왔다. 하숙집 앞 큰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너희는 거기서 뭐 하노? 시내는 큰일 났다. 데모하고 야단이다.”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아차 싶어 신마산에 있는 마산

극장까지 내려갔다. 거기서 마산시청으로 가려고 하니 도로는 이미 막혀 있었다. 할 수 없이 그 아래쪽에 있는 철길을 타고 시청 뒤쪽을 통해 자산동 입구에 있는 전도관 건너편까지 달려갔다.

거리는 수많은 군중의 함성, 최루탄 가스, 총소리 등으로 온통 아수라장이었다. 자산동에서 시청 앞에 이르는 대로에서 쌍방 간 격렬한 싸움이 전개되고 있었다. 경찰이 아래쪽을 겨누고 쏘는지 총알이 보도를 맞고는 위쪽으로 튀어 오르면서 ‘핑핑’ 소리를 냈다. 그들은 이 자리를 피하려고 기어서 전도관 쪽으로 건너가 데모대에 합류했다. 수백 수천의 학생이 한데 어울려 시청 쪽으로 쫓 갔다가 경찰이 총격을 가하면 뒤로 밀리고, 다시 전진했다가 후퇴하는 상황이 오랫동안 반복되었다. 많은 여학생들이 돌을 계속 주워 날랐다. 이미 총소리도 나고 치열한 공방전 중에 시위대에 합류했는데, 총알이 아스팔트 위로 불꽃을 튀기는데도 박광규는 이상하게도 총격에 대한 공포나 무서움 같은 게 전혀 들지 않았다. 아마 총의 위력을 몰랐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시위 군중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매우 흥분한 상태라 총소리조차 신경 쓸 겨를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때 누군가 여기서 이려고만 있으면 안 된다고 외치면서 어딘가를 향해 진로를 바꾸자고 했고, 박광규 등은 그 뒤를 따랐다. 이들은 변절자 허윤수 집인지도 모르면서 몰려가 돌을 마구 던졌다. 그 후 누군가가 또 장군동으로 가자고 고함친다. 모두들 그쪽으로 가면서 ‘시청을 점거해야 한다.’ ‘부정 선거 개표를 못하게 하자.’고 외쳤다. 장



〈그림-66〉 마산시청 부근 도로에 던져진 돌맹이

3월 15일 밤 마산시청 부근 도로에서 시민들은 돌맹이로 공포탄과 실탄을 쏘는 경찰과 대치하였다. /3·15의거기념사업회/

군동 다리에 도착했다. 이미 그곳에 있던 몇몇 사람들과 합류해 뜻을 모으고 있는데 갑자기 ‘포위되었다.’, ‘빨리 도망가자.’는 소리가 들려왔다. 박광규는 그때까지 동행하던 친구 임문길을 찾았다. 그가 보이지가 않아 할 수 없이 혼자 마산경찰서 방향으로 마구 달렸다. 뒤에서 누군가가 불렀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갑자기 뭔가가 그를 ‘퍽’ 하고 쳤고, 그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계속 두들겨 맞으면서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다고 느꼈다.

송정명이 속해 있던 시위 군중은 이쪽은 불리하다 싶어 시청으로 진출할 다른 방안을 모색했다. 그러나 길마다 사람들로 꽉 차 있고 경찰이 총을 계속 쏘니까 다들 주저하고 있었다. 결국 법원 뒷길로 해서 장군동 시장 앞으로 진출하기로 했다. 일부는 법원 골목으로 가고, 일부는 길도 넓고 사람도 제일 많은 장군천으로 진출했다. 송정명은 장군천 쪽으로 합세했다. 장군천에서 시위대는 한 다섯 번 진격했지만 방어막을 뚫지 못하고 밀렸다. 경찰은 장군천까지만 오고 그 이상은 추격하지 않았고, 50미터 사이를 두고 대치했다. 그러다가 구호가 커지면 경찰이 진격해 데모대가 밀리고 경찰이 물러나면 그 자리를 데모대가 차지했다. 송정명 역시 처음에는 총소리가 겁났지만 나중에는 겁조차 없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총은 무서웠고, 밤은 깊어가고 오래 동안 시위하다 보니 지치기도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생기면서 시위 세력은 서서히 세력도 약해져 갔다. 정의감과 울분에 모인 사람들이었지만 총칼 앞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대치 상태에서 갑자기 많은 총소리가 났다. 송정명은 총 맞은 줄도 몰랐다. 도망가려는데 저절로 쓰러졌다. 일어나려고 했지만 한쪽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다리에 피가 흐르고 있었고, 같이 싸우던 사람들은 다 숨거나 도망가 버리고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송정명은 덜컥 겁이 났다. “아, 사람이 이렇게 죽

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경찰이 밀어닥쳐 총 맞은 2~3명을 시청으로 끌고 갔다. 운신이 어려웠던 송정명은 붙들린 사람들의 등에 업혀 갔다. 송정명이 부상당해 끌려간 뒤에도 시위는 계속되었다. 추측컨대, 이들 중에는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뒤늦게 시위에 참가해 복부에 총을 맞았던 김영준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김무신은 친구들과 헤어진 후 남전 옆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갔다. 경찰의 군함발 소리가 어지럽게 들려오자 그는 엉겁결에 어느 기와집 지붕으로 올라갔다. 오가는 경찰 놈들의 머리통을 후려갈기기에 최고의 적지였다. 양쪽 바지에 잔뜩 들어 있는 돌맹이로 산타루(경찰을 지칭하는 은어) 머리통썸이야 능히 구멍을



〈그림-67〉 시위대 색출에 혈안이 된 경찰

김무신 등 마산고 의거 참여자들은 시위를 하다가도, 소방차량의 헤드라이트 비추기에 이어 총탄 발사가 뒤따르면 이런 경찰에 잡히지 않기 위해 목숨을 걸고 몸을 숨기고 도망가지 않을 수 없었다. /3·15의거기념사업회/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의 앞은 폭 10미터, 길이는 100미터 정도의 남전 앞 대로이다. 아직 도주하지 않은 데모 대원들이 20미터 전방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그가 숨어 있는 기와지붕 아래로 살쥔이마냥 산타루들이 허리를 굽히고 뽄뽄 기어간다. 행동 개시! 돌로 총공세를 퍼부었다. 경찰들이 뒤통수를 싸안고 퇴각하기 바쁘다. 그런데 또 다른 놈들이 “저기 한 놈 있다.”고 고함을 치더니 총을 쏘기 시작했다. 김무신은 좀처럼 체포하기 어려운 호지대에 있지만 실탄이 없다. 그렇다고 남의 집 기와장을 던질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러나 경찰의 맹공세로 포위될 처지다. 두리번거려 보니 장독들이 웅크리고 있다. 빈 장독 안에 숨었다. 생명의 은인, 장독에게 감사했다. 한참 웅크리고 있으니

전신이 마비될 듯이 저려 오고 친구들이 어찌 됐는지 알고 싶고 바깥 사정도 궁금해 미칠 것 같아 다시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웬걸? 나와 보니 앞에도 경찰 뒤에도 경찰, 호랑이 굴에 들어왔다. 최후의 순간을 맞았다고 생각한 그는 높이 10미터 정도 되는 남전 고층 건물로 공중 도피전을 감행한다. 뒤에서 돕는 자가 있어 뒤돌아보니 어떤 여학생이다. 평소 턱걸이 두 개도 제대로 못하는 자신이 그야말로 밀림의 타잔을 연상시킬 정도이니 스스로 자신의 초능력에 탄복했다.

이즈음 김정세는 북마산 쪽으로 도망가다가 중앙극장 어귀에서 또 다시 총소리를 들었고, 땅바닥에 섬광이 번쩍했다. 총소리와 함께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를 반복하면서 북마산파출소 부근에 있는 우리약국 앞에 이르렀다. 그 앞에 휘발유 드럼통 두 개가 있었다. 청년 몇 명이 드럼통의 물을 부어 버리고는 드럼통 뒤에 몸을 숨기고 드럼통을 굴리며 전진했다. 김정세도 아들과 합세했다. 이윽고 북마산파출소 안에 있던 경찰들은 당황해서인지 총마저 버리고 도망가 버렸다.

김무신은 남전 옥상에서 주변을 살펴보고 안전해 보이는 테니스장으로 살금살금 기어갔다. 담 너머에서 경찰들이 웅성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길이 5미터 정도의 휴무관 속으로 피신했다가 5~10분쯤 지나 관에서 나왔다. 도로로 나갈 수는 없어 자산동 전도관 쪽에 있는 남의 집 담을 무작정 넘었다. 그의 발아래로는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들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치를 떨며 서성댄다. 이때 북마산 쪽 밤하늘이 흰해졌다. 북마산파출소에 불이 난 것이다.⁹¹⁾

91) 북마산파출소 화재 원인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경찰이 조작했던 것처럼 방화가 아님은 확실하다. 파출소 안에 있던 난로가 원인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확실치 않다. 최근 데모대가 경찰을 공격하기 위해 던진 화염병이 원인이라는 증언이 나왔는데, 이 역시 추가 증언 등 확인이 필요한 상태이다.



〈그림-68〉 3월 15일 밤 불타 버린 북마산
파출소

북마산파출소가 불타 까닭은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애초 경찰은 박세현이라는, 22세의 자동차 기술자에게 방화범 혐의를 씌워 갖은 고문을 가한 뒤 거짓 진술을 얻어내었다. 그는 참으로 선량한 청년이었는데 길을 건다가 우연히 경찰에게 잡혀 곤욕

을 치렀던 것이다. 뒤에 그 사실이 만천하에 알려져 마산 시민들은 다시 한 번 경찰의 만행에 치를 떨었다. /3·15의거기념사업회/

9시 30분경이다. 좀 있으니 그가 서 있는 발밑으로 소방차가 쏙살같이 지나간다. 마침 지붕 위에 바람을 막기 위해 얹어 둔 무게가 3킬로그램 정도 나가는 돌들이 널려 있었다. 전력을 다해 돌을 던졌다. 돌 하나가 소방차의 엔진 카바 위에 명중했고, 연이어 ‘와장창’ 하며 유리창도 부서진다. 그는 통쾌감을 느끼며 공공물의 파괴자란 생각도 없이 계속 돌을 던졌다. 산타루가 맞으면 능히 즉사할 정도로 무거운 돌이다.

경찰들이 “야! 저기 한 놈 있다.”라고 외치면서 총을 쏘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위기일발이다. 그는 살기 위한 막다른 행동이라며 높이 5미터 정도의 옥상에서 뛰어내렸다. 엉덩이에 거름에 섞인 푸석한 흙더미가 느껴진다. 정원의 부드러운 흙과 나지막하게 자란 영산홍 위에 떨어진 것이다. 일어나서 걸음을 떼려는데 돌을 쥔 손에 무엇인가 미끈한 감촉이 온다. 피였다. 총알이 이마 위를 스쳤고, 그 피가 뺨과 어깨를 타고 내렸다. 극도의 긴장과 흥분 상태라 통증조차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그의 발 앞에는 경찰들이 깔렸다. 담 모서리에 몸을 숨기고 때가 오길 기다렸다. 얼마 후 경찰들이 모두 자동차를 타더니 구마산 쪽으로 이동해 갔다. 즉시 행동을 개시했다. 총상 치료를 위해 지창용이라는 평소 아는 후배의 집을 찾아갔다.

김정세가 속해 있던 북마산과출소 쪽 시위대는 다시 시청으로 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그는 이동 중 중앙극장쯤에서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다. 고무신이 찢어지고 발바닥에는 끈끈한 타액이 계속 흐르고 있어 겁이 덜컥 났다. 북마산과출소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중 다리에 총탄을 맞았던 줄도 몰랐던 것이다. 그는 시위대를 빠져나와 모친이 다니던 전산부인과에 가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 작대기에 의지해 귀가했다.

김무신은 지창용의 집에서 이마 위 총상을 간단히 응급 처치한 뒤 한숨을 돌렸다. 그는 헤드라이트를 비추던 자동차가 원망스러웠고, 발포 경관들의 잔악한 행위에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경찰 트럭과 소방차의 내왕을 저지할 수단을 찾느라 고심했다. 무연화약을 만들 요량으로 집에 전화를 걸어 동생에게 화학약품 ‘ KNO_3Cl (염소산칼륨)’, ‘ P_4O_4 (적인)’, ‘ Mg (마그네슘)’ 등을 가져오라고 했다. 그런데 누님이 이를 아시고는 “질서정연한 데모를 한다더니 총소리까지 들리니 이게 웬일이냐?” 하시며 노발대발이다. 빨리 집으로 돌아오라고 애원조로 명령하지만 이 판국에 그런 명령이 통할 수 있을까?



〈그림-69〉 무학초등학교 총탄 담장

3월 15일 밤에 경찰은 시위대를 향하여 수없이 많은 실탄 사격을 하였다. 무학초등학교 담장 뒤로 피신하는 시위대를 향해 실탄 사격을 하였다는 숨길 수 없는 증거가 이 총탄 담장이다.

/3·15의거기념사업회/

김무신은 이제 ‘모로토브-카테일(화염병)’을 만들 생각을 굳혔다. 가까운 친구 집을 찾아가서 다짜고짜 집에 휘발유 있느냐고 물어본다. 친구는 없다며 머리를 도리질한다. 할 수 없이 석유로 화염병을 만들어 대로로 나갔다. 자산동 향원다방 앞 노상에서 데모 대원 약 50~60명이 악전고투를 하고 있었다. 발 화선에 불을 붙여 경찰 쪽으로 던졌다. 아니나 다를까, 그제 병에 든 석유가 무슨 폭발력이 있을까. 병이 깨지면서 기름만 연소해 버렸다. 경찰들이 가하는 충격에 또 다시 후퇴했다.

김무신은 서성동 빈민촌으로 내달았다. 경전선 철뚝굴을 지나 으스스한 골목으로 피신했다. 거기서 카빈총을 손에 쥔 코트 차림의 어떤 아저씨와 자기 또래의 친구 한 명을 만났다. 세 명은 서성동 빈민굴로 이동해 긴급 비밀 모의를 했다. 김무신은 총을 가진 아저씨가 누구 편인지 정체를 확인한 뒤 총이 어디서 났느냐고 물으니 북마산파출소에서 주웠다 한다. 총알이 한 발 들었다고 해서 원한의 대상인 헤드라이트를 부수기로 합의했다. 아스팔트로 나가 아저씨가 과녁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실패했다.

그래서 김무신이 화염병을 만들자고 제안하자 모두 반색했다. 2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주차장(시외버스 주차장)에 가서 휘발유를 구하기로 했다. 주차장은 굳게 닫혀 있고, 주유소는 조용하다. 문을 두들기자 40대 아저씨가 나왔다. 반민주 행위자를 쳐부수는 데 휘발유가 필요하니 한 말만 달라고 간청했다. 무조건 “없다.”는 대답에 아저씨가 그의 앞가슴에 총을 갖다 대며 협박했다. 김무신이 아저씨를 만류한 뒤 차근차근 설득했지만 주인이 자물쇠로 잠가 두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김무신 일행은 다시 화물차가 있던 곳으로 갔다. 거친 아저씨가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운전수를 깨워서 “빨리 휘발유 한 말만 내놔.” 하면서 총으로 협박했다. 놀란 운전수가 고무호스로 급히

휘발유를 뽑기 시작했다. 김무신은 화염병 제작에 필요한 다른 물품을 준비한다. 사이다병 20여 개와 정중, 탁주라고 쓰인 무명베를 찢어서 도화선을 만든다. 즉시 휘발유를 반병씩 채워 놓고 베 안쪽에 돌을 넣고 단단히 싸맨 뒤 베에다 휘발유를 흡입시켰다.

이제 죽음을 각오한 비장한 대결을 위해 출발한다. 김무신 일행 세 명은 자산동 입구 도로에서 조금 떨어진 철물상 뒤편의 진주선 철로 독에 있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아스팔트 쪽으로 달려갔다. 경찰들은 자산동 앞에서 스리쿼터, 지프차, 트럭들을 집결시켜 놓고 마치 게릴라전을 하듯이 골목 구석구석에 숨어 있다. 경찰들과 약 100미터 정도의 거리를 두고 대치했다. 이윽고 모든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이들이 가세한 데모대에 집중된다. 김무신이 맨 앞장을 섰다. 두 손에는 화염병을 들고, 위 포켓에 넣어둔 성냥을 의식했다. 캄캄한 골목길을 내달리는데 갑자기 ‘뽕!’ 하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무신은 의식을 잃었다. 경찰이 칼빈 소총 개머리판으로 그의 정수리를 찍었던 것이다.

5. 고문과의 투쟁

이제 우리의 주인공들은 모두 거리 투쟁의 무대를 내려갔다. 누구는 죽었고, 누구는 중상을 입고 체포되었고, 또 누구는 상대적으로 경상을 입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특히, 체포된 자들에겐 또 다른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청에 끌려간 서기홍은 완전히 정신이 나간 상태였다. 나중에 정신을 차려 보니 밤 10시 반쯤이었다. 시청에서 조서를 꾸몄다. 경찰들은 조사 중 노다지

로 오만 욕설을 다했다. 여자들한테도 집에 있지 않고 뭐 하러 나왔느냐며 갖은 욕을 퍼부었다. “누구한테 사주 받았노?”, “돌 얼마나 던졌노?” 하면,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매에는 당할 자가 없다. 경찰들은 마산경찰서 소속이 아니라 타지에서 온 것 같았고, 정말 많이 때렸다. 다들 나이도 어린데, 손가락 사이에 연필을 끼워 가지고 뺨 돌리면 껍데기가 벗겨질 정도인데, 그렇게 누르면서 “돌 몇 개 던졌노? 다섯 개 던졌나?” 하면 그냥 “예, 예.” 하게 된다. 시키는 대로 조서를 받고 난 사람은 다들 녹초가 되었다. 조서를 다 꾸민 사람은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지만, 다들 얼마나 맞았는지 전신이 아파 누워 있지를 못했다. 그러는 사이에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잡혀 들어온다. 한 번은 마치 지나가는 버스를 세워 승객들을 잡아온 것 같았다. 암흑천지 속에서 시청 안까지 총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렸다.



〈그림-70〉 마산시청에 붙잡혀 있는 시위 학생·시민들

3월 15일 밤에 경찰은 시위를 하다 붙잡힌 학생·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마산시청에 붙잡아 두었다가 경찰서로 연행해 갔다. 그리고는 배후를 불러라고 올려대며 갖은 악명 높은 고문을 가하였다.
/3·15의거기념사업회/

송정명도 시청으로 끌려왔다. 시청 안에는 총 맞고 잡혀온 사람들과 시청 직원으로 가득했다. 개표는 어디서 하고 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누군지 기억이 나지 않는 동기생 한 명과 같이 있었다. 시청에 있는 경찰들은 악에 받쳐서인지는 몰라도 잡혀 온 사람들을 큰 범죄자 취급하는 분위기였다. 이마에 총을 맞아 현장에서 즉사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들어왔다. 그동안 다

친 사람들만 보다가 죽은 시체를 처음 본 송정명은 “아, 이거 보통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경찰은 이 사람이 죽었다고 판단하고 어디론가 들고 갔다. 시청에서 경찰은 치료도 안 해 주었다. 치료해 줄 사람조차 없는 것 같았다. 새벽 2시쯤에서야 비로소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옷을 찢고 보니 총알이 관통한 곳에 피가 아이스크림 같이 굳어 있다. 그는 이 와중에도 다행히 뼈가 안 다쳐 빨리 나올 것 같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잡혀 온 사람들이 서로 수군거리면 지나가던 경찰이 조용히 하라고 고함을 질렀다. 사람들은 얘기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자정 가까운 시간이었을 것이다. 박광규가 깨어 보니 마산경찰서 유치장이었다. 화장실 옆 바닥에 내동댕이쳐져 있다. 조금 정신이 들어 눈을 떠 보니 많은 학생과 시민이 잡혀 와 있고 분위기가 대단히 험악했다. 여학생도 더러 있었다. 경찰들은 여학생도 때리고 구둑발로 짓밟고 하는데 정말 잔인하기 짝이 없었다. 그는 상고 3명, 마산고 2명, 공고 1명 등 여섯 명의 학생과 같은 감방에 가두어져 있었다.



〈그림-71〉

시위자들은 3월 15일 밤 경찰에 체포되어 마산시청으로 끌려갔다. 경찰봉에 맞고 발길에 차여 많은 부상을 당했다. 맨 앞 머리에 붕대를 감은 사람은 마산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무신 군. / 『3·15의거 사진집』, 55쪽/

그 무렵 마산시청 지하실에서 김무신이 깨어났다. 왁자지껄 하는 소리에 눈을 뜨려고 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눈이 떠지지 않는다. 손을 들어 올리려 했으나 팔이 말을 듣지 않는다. 아픔은 없는데 일어날 수도 없다. 꿈속 같지만 틀림없는 현실이다. 차츰 정신이 들었다. 팔과 다리는 무지막지한 타격을 받았고, 관절이 아파 움직일 수 없음을 알아챘다. 몸뚱이는 피와 땀에 젖어 온몸이 축축하다. 겨우 한쪽 팔을 움직여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린 피가 달걀 흰자위 같이 응고한 핏덩이를 옷으로 고이 닦았다. 이제 눈이 뜨이고 간신히 일어날 수 있었다. 사방을 둘러보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오른쪽 옆에는 친구 김용실의 시체가, 왼쪽에는 누군지 모르는 자기 또래의 시체가 있지 않은가. 천지가 공포할 참사에 기겁한 그가 밖으로 기어나갔다. 경찰이 “한 놈이 살아 나온다.” 하면서 날카롭게 부러진 끝 날을 가진 참나무 몽둥이로 마구 치며 가슴을 찌른다. 무신은 사지는 붓고 신경은 마비되어 아픔을 느끼지는 못했지만 다시 쓰러졌다. 경찰이 머리를 숙이고 꿇어앉으라 했다. 머리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

3월 16일(화)을 알리는 밤 12시 사이렌이 울린다. 김무신은 끌려온 지 두 시간 정도 지난 것으로 짐작했다. 둘러보니 끌려온 시민이 150여 명은 되어 보였다. 살기와 공포가 감도는 시청 내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긴장된 분위기 속에 잔인무도한 살인 경관들의 만행이 그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인간 도살장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지가 떨리기 시작하며 눈꺼풀이 저절로 감겨진다. 정신을 차리려고 애를 쓴다.

시청 지하실에서 정각 1시에 취조와 조사 작성이 시작되었다. 경찰은 일단 부녀자와 18세 미만 아동은 모두 석방했다. 제외된 김무신은 이루지 못한 소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체적 고통을 감수하며 소원을 위한 사자가 되기로 결

심한다. 최대한 많은 시간을 벌고자 제일 뒤에 섰다. 취조는 먼저 성명, 본적, 현주소 따위를 물은 뒤 데모 참가 동기로 이어진다. 모두들 책상 앞에 서자마자 경찰의 강한 주먹세례를 받는다. 알고 보니 거짓 진술을 했기 때문이다. 김무신은 사람들이 싸울 때는 당당히 싸워 놓고 이제 와서는 자기 본위주의로 돌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다.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에 못 이겨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어떤 형사는 바른 말 하라며 권총을 무릎 앞에 탁 풀어 놓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래도 송정명은 경찰이 용공으로 몰려고 하는 데는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정했다. 김무신의 차례가 왔다. 경찰이 “왜 데모했나? 아니 왜 폭동을 일으켰나? 말해 봐!” 제 단엔 잘난 채 빠기면서 묻는다. 무신은 “학생의 입장에서 본의를 망각하지 않는 이상 사실만을 말하겠으니 몸에는 손대지 마십시오.”라고 정중히 말하며, 폭정의 모순을 지적했다. “몇몇 관료배들에 의해 좌우된 현 시국의 모순성과 이에 동조한 부정 선거의 강행, 주권 박탈을 기도하려는 불의에 항거하여 세계만방에 이를 공고하여 유구찬란한 선조들의 찬업에 더러운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 소위 당신네들이 말하는 폭동의 발로였다고 봅니다.” 경찰이 “소위 그것이 학생의 본분이나?”면서 발길로 찼다. 그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취조 형사는 김무신을 학생 주모자라고 생각했는지 진술을 바꾸었다. 갖은 아양도 떨고 환심을 사려고 유도하는 말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나도 말이야, 자네 같은 아들을 두고 있는 몸이고 해서 상통하는 점이 많겠다. 그런데 누가 뒤에서 조종을 하고 데모를 하자고 꺾이더냐?” 하며 묻는다. 그러면서 셸럼 담배를 하나 끄집어내서는 담배 피울 줄 아나 하면서 권한다. 김무신은 속으로 가소롭게 생각하면서 “내 자의의 행동입니다.”라고 답한다. 형사는 “좋아!” 하면서 같은 질문을 무려 다섯 차례나 반복했다.

새벽 3시경이다. 노도처럼 웅성대던 마산시청은 쥐죽은 듯 고요하다. 시청 내부는 거의 정돈되었다. 총 관통상을 입은 자와 생명이 위독한 자는 병원으로 옮겨지고 있었다. 이어서 이동식 침대 행렬이 들어온다. 김무신은 혹시 하며 눈을 부릅뜨고 살폈다. 아니나 다를까. 조금 전 자기 옆에 있던 김용실과 또 다른 두 구의 시체, 모두 세 구의 시체가 실려 나간다. 무신은 친구인 용실의 죽음을 다시 확인하면서 괴로움에 어쩔 줄 몰랐다. 차라리 같이 죽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는 울화통이 치밀어 더 이상 말이 안 나왔다.

송정명은 도립마산병원으로 실려 갔다. 그러나 치료는 커녕 방치되다시피 했다. 경찰은 외부인과 접촉도 못하게 하고 취조만 했다. 이런 상태가 한 3일간 계속되었다. 나중에 소식을 듣고 온 가족이 울고불고 했다. 의사는 총알이 허벅지를 관통했지만 운이 좋아 신경만 끊어졌다고 하며 조금만 옆으로 갔어도 동맥이 끊어져 위험할 뻔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소아마비 환자처럼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신경이 끊어지면서 근육이 다 죽어버려 평생 다리를 절게 된 것이다.

시간은 무심했다. 마산의 도심 전역에 걸쳐 벌어진 피비린내 나는 치열한 전투의 밤이자 마산시청과 마산경찰서로 잡혀간 시위자들의 처절한 고난의 하룻밤이 지났다. 3월 16일 오전부터 마산고 교정에는 지난 밤 2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퍼졌다. 마산고 학생들은 슬픔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교실마다 또는 운동장 구석구석에서 울분을 토하거나 거리로 나가 시위하자는 의견 등으로 분분했다. 학도호국단 운영위원장 박문달은 이 난관을 돌파하고 수습해야 할 막대한 책무를 느꼈다. 그래서 전체 학생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 회의를 수차례 개최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다. 그러나 학교 선생들의 감시가 더욱 엄중해지고, 경찰마저 학교를 들락거리면서 학생들의 동태를 살폈다. 그리고 마산 시내에는 경찰들이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잡아가는 검거 선봉이 불고, 용공으로 몰아 구속하고 있었다. 이처럼 학내의 엄중한 감시와 시내의 살벌한 분위기가 계속되자 마산고 학생들의 움직임도 점차 잠잠해져 갔다.⁹²⁾



〈그림-72〉

대한변호사협회 조사단이 감방을 방문, 구속 학생들의 증언을 듣고 있다(민주신보, 1960.04.16.).
/『3·15의거 사진집』, 246쪽/

김무신의 일기는 말한다. “생을 찬미하는 찬연한 햇빛은 온 지상 만상에 복된 장을 마련하고 있건만 내가 있는 이곳 시청 안은 살기와 인간 도살기가 떠도는 생지옥이다. 자유가 없고 구타와 신음이 충천하는 생지옥 그 자체다. 어제 저녁도 오늘 아침도 제대로 먹지 못해 기운이 없는 것은 고사하고 하물며 생리 현상인 노폐물도 자유롭게 버릴 수가 없으니 그야말로 어떤 인간이 이런 참상을 짐작할 수 있으랴. 차마 생각하면 할수록 온 몸에 전율이 흐른다. 차라

92) 이날 오전 구속 학생 석방을 요구하는 학생 시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 이 역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리 죽었으면 하는 절망감이 엄습한다. 문득 일제하 애국지사들이 이런 참상을 당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침이 되자 마산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던 사람들의 개인별 취조가 시작되었다. 박광규는 당시 배우 최남현 씨를 닮은 담당 형사의 얼굴을 지금까지도 기억한다. 형사는 처음부터 “누구의 지령을 받아 데모를 했느냐?”며 용공 분자로 몰았다. 그런 일 없다고 하면 거짓말 한다며 연필을 손가락 사이에 끼워 눌러는 등 갖은 고문을 가했다. 그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린다. “바른 말 해라. 그래야 니가 산다.”며 협박도 했다. 광규가 “바른 말 할 것이 없다.”고 하자 뒤에서 누군가 그의 목덜미를 잡고 땅바닥에 궤대기를 쳤다. 또 흠씬 두들겨 맞고 기절했다. 형사들은 한결같이 “간첩 지령으로 데모했다.”는 자백을 강요했고, “너희들 부모도 담임선생도 빨갱이다. 도장 찍어라.”며 협박하고 으박질렀다.

이날 오후 4시, 서기홍과 김무신 등 마산시청에 잡혀 있던 20여 명은 마산경찰서로 이송되었다. 김무신은 조그만 진동에도 통증이 느껴지는 머리를 질질 끌며 스리쿼터 위로 끌려 올라갔다. 사방에 늘어선 사람들, 어젯밤에 아들 딸, 형제를 잃은 부모형제들의 아우성이 어렴풋이 들린다. 마산경찰서에 도착하니 유치장도 숙직실도 아닌 겨우 세로 3미터, 가로 5미터 정도 되는 콘크리트 방 안에 무려 50여 명을 집어넣는다.

시간이 흘러 밤 7시가 되었다. 겨우 주먹만 한 밥 한 덩이를 나눠 준다. 김무신도 밥덩이를 받아 들었지만 심한 갈증과 현기증에 조금도 목으로 넘길 수가 없다. 잇몸이 부어 더욱 그러했다. 결국 탄 애에게 줘 버렸다. 모두들 맛있게 먹는다. 무신은 생각한다. “갈증 때문에 목이 타도 물 한 모금이 없고, 소변 대변도 합동으로 치워야 하니 어찌 불평이 없고 반항이 없겠는가? 이 비겁한 놈

들, 조국을 매도하려는 모리배들! 간관 좋고 허울 좋은 국산품 애용이란 선전에는 몰두하면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 잇속을 챙기는 사람들아, 이래 놓고 나라에는 충성이요, 국민의 지팡이라고 자랑하느냐 말이다!”

이날 밤 잠도 못 자도록 해 놓고는 날이 새도록 무려 수십 차례나 취조와 고문을 반복한다. 김무신은 심한 출혈에 빈혈을 일으키고 쓰러져 있는 제수종(마중 3년)을 발견하고, 자신이 있는 장소로 옮겨 창문에서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끔 무릎 위에 눕혀 놓고 생각한다. “하늘이 공노할 일이지 왜 이런 어린 것을 잡아 가둬 놓고 죽이려고 하는가? 잔인무도한 경찰 놈들아! 동족 간 상쟁이라면 너희들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나?” 그러면서 밖에 있을 때 자신을 많이 따라 동생처럼 사랑하던 수종이가 왜차하기를 하느님께 빌고 또 빌었다.



〈그림-73〉 송정명의 증언

1960년 3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 회원들이 도립마산병원을 방문하여 시위대에 참가, 부상 입원 중인 마산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송정명 군으로부터 증언을 청취하고 있다. /『3·15의거 사진집』, 245쪽/

3월 17일(수). 날이 새며 창밖이 밝아온다. 오늘도 맑은 날이다. 김무신은 제수종을 간호하느라 잠 한 숨 제대로 자지 못해 몸이 휘청거린다. 그러나 수종의 몸이 많이 회복된 것을 보고 천만다행이라 생각했다. 오늘 하루 내내 누구는 경찰관 동생, 누구는 형사 동생, 조카, 삼촌, 오촌, 육촌, 칠촌, 팔촌 … 마구 풀려 나갔다.

아침에 서기홍은 경찰들이 강경술 등 민주당 사람들을 유치장에 분산 수용하는 것을 보았다. 서기홍은 옆방에 들어온 사람이 정남규 님의 아들인 정현 팔(15회) 선배라고 생각했다. 강경술 님이 학생들이 잡혀온 걸 알고 어디서 구했는지 알사탕을 하나씩 나눠주었다. 조서는 다 꾸몄으니 고문은 더 이상 당하지 않았다.

해가 서산에 숨바꼭질할 때다. 마산경찰서에 이용범이 나타났다. 학생들 앞에 두둑한 뺑장을 내밀고 서서는 “학생들, 쓸데없이 그놈의 뺑갱이 민주당 놈들한테 꼬여서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니, 학생들이 무슨 죄가 있겠느냐?” 하면서 비서에게 만오천 원을 내주면서 소고기국밥, 건빵을 사다 주라고 했다. 김무신은 인간적, 도덕적 관념으로는 고마운 일이나 어린 몸에도 그 이면에는 뭔가 음흉한 모의가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 뇌리를 스친다. “이 뺑장 두터운 놈! 이 중대한 문제를 뺑으로 해결하려는 이 무뢰한 같은 놈! 이번 사건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단 말이다.” 박광규도 이용범이 면회 와서 국밥을 시켜 주면서 “어쩌려고 그런 일을 했느냐? 각자가 걱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그런 일 하지 마라.”는 등 이런저런 말을 들었다. 그런데 서기홍은 이용범이 넣어 주었다는 국밥을 보지도 못했다. 잡혀 온 다른 학생들이 일곱 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자신이 아는 사람은 신마산 서 씨 선배 한 사람과 마산고 동기생 김무신밖에 없었다.

김무신은 조금 후 어떤 여자 한 사람이 중국 찰빵을 한 아름 싸들고 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아유, 학생들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배고픈데 이것 얼른 먹어요.”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오늘 어쩔 일이야. 복이 터진다.”라며 환호성을 질렀다. 그러나 김무신은 말이 없다. 가슴속에 웅크린 또 다른 적개심 때문이다. 빵을 들고 들어선 그 여인은 바로 이용범의 처였던 것이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밤 10시가 되었다. 경찰이 마산고 학생 3명, 상고 학생 3

명, 마중 학생 1명, 일반인 8명 등 모두 15명의 명단을 부르면서 밖으로 나오라고 했다. 어쩐지 김무신은 언짢은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동생뻘인 제 군이 “형님, 집에 가시면 내 소식 좀 전해주시시오.”라고 부탁하는 말을 듣자 일단 “오냐!” 하고 대답했다. 자기가 없는 후 수종의 일을 상상하니 마음이 쓰렸다. 짐작대로 석방이 아니었다. 되레 유치장에 감금되었다. 다른 친구들의 얼굴은 아예 창백해졌고, 김무신의 마음도 두근거렸다. “생전 처음 들어가 보는 곳일 뿐만 아니라 죄인만 가둬 두는 이런 곳에 애국자⁹³⁾들이 들어가서 고생을 해야 하니 이것만 봐도 오늘날의 정치적 모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어쩐지 침묵만이 감도는 이곳은 허전과 고독감뿐이다.” 무신은 “취침!” 하는 경관의 목소리에 치를 떨었다.



〈그림-74〉이용범이 유치 소년을 위무했다는 보도
마산일보 (경남신문의 전신) 1960년 3월 19일 자 2면
에는, 17일 하오에 이용범이 경찰서를 방문하여 유치
중인 소년들을 위무했고, 동행한 부인도 같은 일을 했
음을 보도한 바 있다. /마산문화원/

3월 18일(목)이다. 날씨는 여전히 맑았다.

“기상!” 소리와 함께 모두들 일어났다. 김무신의 자리는 옆에 변소가 있어 냄새가 코를 찌른다. 감방에는 모든 것이 먼저 들어온 사람이 우선이다. 아침 밥도 제일 뒤에 들어온 사람이 날라야 한다. 식사 시간이다. 할머니 한 분이 커다란 그릇에 밥을 이고 왔다. 겨우 300그램 정도이다. 게다가 순 콩보리밥에

93) 김무신은 자신을 두고 한 말은 아니라고 했지만, 그가 애국자가 아니면 누가 애국자이겠는가.

찬이라곤 모자반(해초)밖에 없다. 그래도 모두들 맛있게 먹어 치운다. 박광규는 나라 경제 전체가 안 좋은데 경찰이 변변한 음식을 제공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오후다. 흰 수염이 나신 할아버지 한 분이 끙끙 앓으며 들어오신다. 김무신은 우선 몸을 보호해서 겨우 바르게 누우시도록 돕는다. “할아버지는 어찌다 들어오셨습니까?” 하고 물으니 “15일 저녁에 북마산에서 내려오는 데모대를 선동했다고 오늘 붙잡혔단다. 경찰에서 바른말 하라면서 마구 몽둥이질을 하기에 우선 내 몸이나 성하고 보자 싶어 한 짓도 했다 안 한 짓도 했다고 마구 뇌까렸지.” 하신다. 연세 많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김무신은 다시 울분이 터진다. 할아버지 연세를 묻자 “내 나이 육십 둘인데 오십 넷이라고 했네.” 왜 그러셨냐고 물으니, “아니, 그놈들이 안 한 짓도 했다고 꾸며 죽이려고 하니 어찌 하늘이 통탄할 노릇 아니겠는가! 그래서 마치 거짓 죽임을 당한다는 뜻에서 오사(誤死)⁹⁴⁾라고 했네.” 태연자약하게 말씀하신다. 김무신은 머리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생각한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라와 조국을 위하여 더군다나 우리 세대를 위하여 몸소 노신을 아끼지 않고 이런 거사를 치러서 지금은 이런 장소에서 손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저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니 너무나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오후부터 취조와 고문이 시작되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대 최악의 인상 고약한 악질분자는 다 모인 모양이다. 비명 소리,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늙은 할아버지를 앓혀 놓고 “이 개자식, 바른말 못 해!” 하며 몽둥이로 후려친다. 이 참상에 김무신은 이빨이 갈릴 정도의 분함과 증오심이 폭발할 것 같았다.

94) 형벌이나 재난을 당하여 비명에 죽음.

해질 무렵이 되자, 하늘도 슬픈 것인가. 음산한 하늘에서 가는 빗줄기가 내리기 시작한다. 다음은 김무신 차례다. 주모자를 찾아내기 위한 무자비한 고문이 시작되었다. 내가 주모자라고 해도 거짓말이라며 고문한다. 김무신은 이렇게 계속 심하게 맞으면 죽을 것만 같아 3학년생이 시켰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때부터 학적부를 가져오고 마산고 선생님들이 닥치는 대로 불러왔다. 새빨간 거짓말이니 여러 선생님들만 고생했다. 날이 저물었다. 김무신은 ‘오늘은 고문의 날’이라고 규정했다



〈그림-75〉 마산경찰서 앞에서 구속된 자식의 안부를 알기 위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구속자 가족들 /3·15의거기념사업회/

마산경찰서에서 일방적으로 용공분자로 몰아가는 취조가 여러 날 계속되자 박광규는 지치기도 하고 정신이 흐려졌는지 어떤 게 옳은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어린 마음이지만 마음속으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빨갱이로 몰려서는 안 된다. 정말 이진 아니다. 차라리 나 혼자 죽는 게 낫다. 나 혼자 죽겠다.”라는 각오를 단단히 했다. 며칠 후인가 정남규 비서라는 사람이 부상한 상태로 들어왔다. 그 사람이 “이러면 너희들 다 죽는다. 일단 경찰이 시키는 대로 응해 주어라. 우선 살아남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재판 중에 변호사를 통해

고문을 견딜 수 없어 시키는 대로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그래서 박광규는 고민 끝에 “그래 나만 죽자. 나만 죽으면 되는 것이다.”라는 결심을 굳히고, 경찰이 시키는 대로 도장을 찍어 주고 말았다. 박광규는 일이 너무나 억울하고 참혹해 정말 생각조차 하기 싫고, 자신의 삶에서 지워 버리고 싶었다.

3월 19일 금요일이다. 어제 저녁부터 내리던 비가 오늘도 쉬지 않고 내린다.

김무신은 오늘도 고문과 취조가 계속될까 봐 두려운 마음에 조바심을 친다. 그의 감방에 몸이 여윈 젊은 사람이 사지가 부러진 모양인지 허리를 굽힌 채 겨우 안으로 들어온다. 형용할 수 없는 고문의 참상이다. 그는 몸을 눕히지를 못했다. 무신은 충격을 덜어 주기 위해 무릎을 받쳐 베개로 삼게 하고, 두 팔로 그의 어깨를 주물렀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얼굴에 핏기가 돌아오자 무신의 마음도 기뻐다.

몇몇 애연가들은 담배를 피울 수 없어 발광을 했다. 밥을 가지고 들어오는 할머니에게 몰래 담배 부탁을 한다고 왈자지껄하다. 그래도 모두들 돈은 좀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다. “할머니 담배 하나 사다 주십시오.” “아유, 들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게 아니고 500환 가져가서 한 갑만 사다 주세요.” 나머지는 가지라는 뜻이다. 마음이 좋은 간수도 있었지만 피할 수 없이 날카로운 눈초리를 가진 간수도 있다. 곰보에다 괴뢰군 인상을 한 간수 한 명은 얼굴값을 했다. 천 환쯤 받고는 담배 한두 갑 사다 주면 끝이다. 자신도 그런 짓을 하면서 다른 순경이 하는 짓은 치를 떨며 못 보아 넘기니 기괴한 인간이 아닐 수 없다. 그뿐 아니다. 나이 많은 할아버지라 해도 조금만 눈에 거슬리면 “이놈의 새끼, 개새끼!”를 마구 퍼붓는다. 김무신은 결국 분노를 터뜨렸다. “아저씨 보십시오. 여기 계시는 할아버지는 아저씨 아버지와 같이 도덕적으로 대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비록 불의를 타도하려다 마수의 손아귀에 걸려들어 지금은 여기 있을망정 인간 내면에 실존하는 인간으로서의 마음가짐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인상 더러운 이 간수는 자기 판에 화가 바짝 난 모양인지 마구 욕설을 퍼부으며 얼굴이 붉으락푸르락 한다. 무신은 통쾌했다.

민주당 조재천 의원이 와서 “나는 국회의원 조재천이다. 참 잘했다. 나는 변호사 자격이 있다.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켜 주마. 명예를 걸고 석방하는 데 노력해 주마. 지금부터는 몸 건강해라. 많이 먹고 편히 쉬거라. 뒤에는 내가 책임지고 보장하겠다.”며 몇 번이나 격려하고 사식까지 넣어 주었다. 박광규는 조 의원의 말에 정말 많은 위안을 느꼈다. 그 뒤 석방될 것이라는 말이 나돌기 시작했다. 특히, 간수들이 “너희들은 석방될 거다. 하지만 완전 석방은 아니다. 필요할 때 다시 부른다. 행동에 따라 달라진다.”고 얘기했다.

밤 10시쯤 “취침!” 소리에 맞춰 모두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학생들은 모두 일어나!” 하며 잠을 깨운다. 김무신은 무슨 일일까 두렵기도 하고 반가운 기분도 들었다. 학생들이 밖으로 나갔다. 간수가 특별히 학생들은 석방시키라는 이기봉 선생의 특명이 있어서 내일 석방시킨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기뻐다. 다시 유치장으로 들어와 밤을 새웠다. 이날 밤 김무신은 자기 옆자리에 언제 들어왔는지 이상한 사람이 앉아 있음을 알아챘다. 그는 언뜻 교련 시간에 배운 프락치 전술을 상기하고 일행 모두에게 말조심하라고 일러주었다.

3월 20일 토요일이다. 비가 계속 내렸다. 아침 일찍 “기상!” 소리에 모두들 잠을 깼다.

오늘은 마산에 파견된 국회조사단이 온다고들 했다. 오전 11시경, 임문석 의원과 법관 몇 분이 왔다. “나는 변호사이고 이분은 민의원 임문석이니 무서워하지 마시고 서명과 날인을 하고 기탄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김무신은 매우

품의 있고 위엄에 찬 말씀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학생 개개인을 면담했다. 서기홍은 이들이 경찰이 네 호주머니에서 무슨 쪽지가 나왔다고 말을 지어내더라고 전하자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대들기까지 했다.



〈그림-76〉 국회조사단의
증언 듣기

여야 합동 국회조사단이 마산에 파견되어 활동에 들어간 것은 두 차례이다. 제1차 의거가 있고 난 뒤인 3월 24일~27일에 첫 번째 활동이 있었고, 제2차 의거가 일어난 뒤인 4월 15일~18일에 두 번째 활동이 있었다. 현장을 목격한 한 시민이 국회조사단 앞에서 증언하고 있다. /3·15의거기념사업회/

박광규는 집에서 걱정할까 봐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 초저녁에 석방되는 순간 모든 생각, 말, 행동이 중단되었다. 그래서 특별한 기분이 들지 않았다. 담임인 양재인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셨다. 자신을 인수할 보호자가 없어 대신 오셨다. 담임 선생님은 광규를 보자마자 “잘 있었나? 어떻게 지냈나? 건강하지?” 하시면서 위로해 주셨다. 경찰서 건물 밖으로 나오자 “어디 갈래? 이모 집 갈래?” 하신다. 광규는 “아니오, 하숙집으로 가겠습니다.” 하니, 선생님은 “하숙집에 누가 있나? 우리 집에 가자.” 하셨다. 자산동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물수건으로 몸을 닦고 파스 등으로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하룻밤 재워 주셨다. 이튿날 아침 선생님은 “오늘 중으로 집으로 가거라. 거기서 꼼짝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당부하시며 보내주셨다.

저녁 10시, 김무신 등이 고대하던 석방 시간이다. 그러나 무신의 마음은 어

쩨지 개운치 않았다. 그의 표정이 얼마나 묘했으면 수사계뿐만 아니라 고문 형사들까지 고까운 표정을 지었을까. “이놈, 한 번 더 들어가 봐야 알겠냐!” 으박 지르면서 저놈의 주둥이는 수궁할 줄을 모른다고 뇌까렸다.

6. 제2차 의거, 또 다시 거리로

제1차 의거가 일단 마무리되었지만 실종된 김주열을 찾아 마산 시내를 헤매고 다니는 주열 모친의 피맺힌 행동은 그치지 않았다. 마산 시내의 분위기는 착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밑에는 용암이 부글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4월 11일 월요일, 오전 11시 경 마산 중앙부두 앞바다에 오른쪽 눈에 최루탄이 박힌 시체 한 구가 떠올랐다. 이 소식은 곧 온 마산 시내에 알려졌다. 참혹한 시체가 행방불명되었던 김주열 학생으로 밝혀지면서 시민, 마산의 8개 고교는 물론 유일한 대학인 해인대(경남대학교의 전신)의 학생들도 분노했다. 오후부터 시체가 안치된 도립마산병원으로 몰려와 시체를 본 시민과 학생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시위로 돌입했고,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그림-77〉 해인대학 학생들의 시위

김주열의 참혹한 시신이 발견되자 4월 11일~13일에 대규모 2차 의거가 일어났다. 해인대학(경남대학교 전신) 학생들이 ‘피로써 찾은 자유 총칼로써 뺏을쏘냐’가 적힌 피켓 등을 들고 시위에 동참했다. 1960년 봄혁명에서 대학생 시위는 이것이 최초였다. /3·15의거기념사업회/

서기홍은 4월에 2학년으로 진급했다. 3월 15일 1차시위에서 겪었던 일을 잊기 위해 카메라를 하나 사서 집 인근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었다. 4월 11일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어 가 보니 “김주열 시체가 떠올랐다.”, “도립마산병원에 안치되어 있다.”고들 했다. 그래서 그는 친구들과 같이 가서 얼굴에 최루탄이 박힌 김주열의 모습을 직접 보았다.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부정 선거 다시 하자!”고 적힌 플래카드 하나가 눈에 띄었다. 이 플래카드를 나무에 묶으려니 노끈이 부족했다. 그래서 한쪽에는 혁대를 풀어서 묶었다.

제2차 의거가 시작되었다. 서기홍 무리는 저녁때부터 신마산 쪽으로만 밤새 도록 돌아다녔다. 시청 주위를 돌았고, 우체국 광장에서는 사람들이 마산경찰서장 지프차를 끌어내 불을 지르는 것도 보았다. 군중은 함성을 지르며 열광했다. 다른 시위대가 시청에 난입하는 것을 보긴 했지만 서기홍 등은 시청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학교에서 이 소식을 들은 김무신은 즉시 도립병원으로 달려갔다. 기자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동분서주하고 있었다. 흥분한 시민들이 노도와 같이 구마산 쪽으로 내달리고 있었다. 문득 3월 15일 밤 마산시청 지하실에서 깨어난 자신과 옆에 있던 시신들이 생각났다. 그래서 동아일보 기사를 찾아가 기자 한 사람에게 경찰서에서 자신이 겪었던 일을 얘기했다. 김용실 시체와 다른 시체 한 구를 보았으며, 그날 밤 새벽에는 세 구의 시체가 실려 나가는 걸 보았는데, 그 중에 김주열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 데모대의 구호도 바뀌었다. “협잡 선거 다시 하자!”에서 “살인 선거 다시 하라!” 심지어는 “이승만 정권 물러가라!”로 말이다. 그리고 새로운 구호도 등장했다. 아주머니들은 “김주열을 살려 내라!”고 양갈진 목소리로 외쳤고, “고문 경관 처단하라!”고 고함들을 질렀다. 거리가 사람들로 가득 차 신·구마산 교통은 완전히 마비되었다.

일부 데모 대원들이 불 켜진 건물마다 투석을 하는 바람에 마산 시가지는 암흑천지로 변했다. 분노의 대열은 마산경찰서를 향했다. 가는 길에 누군가 ‘가련다 떠나련다’로 시작하는 유정천리 가사에 돌아가신 민주당 지도자들 이름을 넣어 개사한 곡을 선창하자 모두들 따라 불렀다. 이들 속에 있던 김무신은 자신도 모르게 콧잔등이 시큰해지며 눈물까지 쏟아졌다. 이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들을 잃은 허망한 마음과 향후 나라의 운명 걱정애 목이 맨 것이다.

경찰서 앞에 도착한 군중은 “경찰은 사과하라!”, “마산 사건 희생자를 살려내라!” 하는 구호를 외치는 함성이 하늘을 찌를 듯했고, 열기가 천지를 후끈 달아오르게 했다. 인파의 규모와 그 호응의 열기는 3월 15일 밤 1차의거를 훨씬 압도할 정도였다. 일부 데모대가 경찰서 정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경찰서를 보니 여기서 당했던 일들이 저절로 떠올랐던 김무신과 시청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서기홍 등도 이들과 합류했다. 경찰들은 데모대의 기세에 완전히 겁을 먹은 듯 모두 경찰서를 버리고 도망쳤다. 악에 반친 감정이 머리끝까지 차올라 행동은 두려움이 없었고 거침이 없었다.

김무신은 경찰서로 들어가자마자 발에 채인 막대기를 집어들었다. 유리창을 닥치는 대로 파괴했다. ‘쨍그랑’ 소리가 묘한 쾌감과 흥분을 돋운다. 서기홍은 사무실의 서류 뭉치들을 끄집어내어 훌쩍리고 짓밟았다. 김무신은 마치 이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겪었던 수모와 곤욕에 대해 보복하는 기분이었다. 고문 경찰을 박살내는 것처럼 분풀이를 했다. 부록송이처럼 한바탕 소란을 피우고 나니 쌓이고 쌓인 울분이 싹 가시는 것 같았다. 한결 마음이 후련해지자 경찰서 마당으로 나왔다. 트럭 세 대가 보였다. 무신이 큰 돌을 주워 있는 힘을 다해 차량에 던지자 다른 청년 학생들도 가세했다.

오후 8시 30분경이다. 한 건장한 청년이 “나를 따르라! 허윤수 집을 박살내

자!”고 외친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무신은 그를 뒤따라갔다. 가는 도중에 마산시장 관사가 있었다. 시위대가 몰려가서 “박영두 시장은 물러가라!”고 외쳤다. 일부 과격파는 집안으로 쳐들어가 살림 세간, 장롱 등을 박살내고 내부 시설 일부를 파손했다. 그러고는 허운수의 집을 향해 다시 내달렸다.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허운수 집을 때려 부수기 시작했다. 와르르 담을 허물어뜨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장독, 가재도구 등을 깡그리 파괴했다.

김무신이 외쳤다. “시민 여러분, 저는 마고 학생입니다. 허운수의 옆집은 저희 학교 이순섭 선생님 댁입니다.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됩니다.” 애타게 부르짖자 어떤 시민이 “학생 알았네, 걱정 말게.” 하며 무신의 손을 덥석 잡았다. 분위기가 일순 조용해지면서 질서를 지키는 성숙한 모습이 나타났다. 무신은 자기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허운수의 집은 마치 폭격 맞은 것처럼 초토화되었다.

시위대 일부는 구마산으로 나아갔지만 다른 일부는 다시 경찰서로 되돌아갔다. 김무신은 경찰서로 가는 대열에 합류했다. 경찰서 앞에는 시민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그러나 경찰은 입구에 이미 바리케이드를 치고 방



〈그림-78〉 폭격당한 듯 허물어진 변절자 허운수의 집
/3·15의거기념사업회/

어진을 구축하고 있었다. 담벽을 은폐물로 삼고 카빈총으로 무장한 경관들이 데모대를 노려보고 있었다. 시위대 중 일부가 투석을 시작하자 김무신도 같이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경찰에 대한 적개심이 일기 시작했다. 저주스런 경찰을

맞추고 싶었지만 번번이 빗나갔다. 그때 경찰의 몸에 맞았는지 ‘퍽’하는 소리가 났다. 통쾌감을 느끼기도 전에 무술 경관인지 몇몇 경찰들이 튀어나오더니 학생들을 낚아챘다. 소방차도 물대포를 쏘아대기 시작했다. 격렬한 공방전이 이어졌다.

그러는 사이에 “무신아, 무신아!” 하며 애절하게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바로 누님의 목소리였다. 얼마 전 데모로 곤욕을 치른 것을 너무나 잘 아는 누님 이기에 보자마자 “이놈아, 니가 미쳤나! 데모하지 말라고 그렇게도 사정했는데 미친놈이 아니면 와 이런 짓을 하노?” 하시며 속사포처럼 쏘아댄다. 그러면서 무신의 몸을 와락 끌어안고 펄펄 우신다. “누님! 잘못했습니다.” 무신은 군중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4월 12일 화요일. 이날 마산고의 분위기는 전교생이 분노와 정의감에 들끓어 올라 도저히 수업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바로 시위로 돌입해 경찰의 만행에 항거하고 독재 정권 타도에 앞장서자는 의견이 절정을 이루었고, 일부 학생은 빨리 행동하지 않는다고 학도호국단 운영위원장 박문달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박문달은 사태가 만만치 않은데다 김주열의 처참한 주검을 그냥 보고 넘길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첫 시간 수업이 끝나는 10시에 전체 대의원회의를 소집했다.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부정 선거를 규탄하고 김주열 군의 억울한 주검에 항의하기 위해 시위를 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곧 1,300명에 이르는 전교생이 운동장에 집결했다. 그 사이에 학교 측은 학생들의 태도가 예사롭지 않음을 감지하고, 퇴학시킨다고 공갈 협박하고 일부 간부 학생들은 감금까지 하면서 시위 저지를 시도했지만, 민주·자유·정의에 불타는 학생들의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림-79〉 마산고 학생들의 시위

김주열 군의 시체가 발견되자 마산고 학생 대부분이 교문을 박차고 나와 각종 구호를 외치며 마산 경찰서로 향해 가고 있다. /3·15의거기념사업회/

오후에 접어들자 학교 측의 만류를 무릅쓰고 간부 학생들이 주동해 앞장서고 거의 모든 학생이 당당히 교문을 박차고 거리로 뛰쳐나갔다. 태극기를 높이 들고, “학원의 자유를 보장하라!”, “살인 경관 잡아내자!”, “부정 선거 다시 하자!”, “김주열 군을 죽인 경찰을 처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해 나아갔다. 마산고의 일부 교사는 질서 있는 데모를 유지할 목적이긴 했겠지만 마치 대열의 선두에서 학생들과 함께 시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이들의 외침은 천지를 진동시키는 듯했다. 시내 중심가를 거쳐, 마산시청을 지나 마산경찰서 앞에 총집결한 뒤 연좌데모에 돌입했다.

몇 시간이 지난 후 박문달이 전체 학생을 대표하여 선언문을 낭독했다. 그 주요 내용은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싸운다는 각오를 표명하고

국민을 도탄에 빠뜨린 자유당 정권이 물러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었다. 마산고 학생 시위대는 정정당당하고 평화롭게 시위를 벌인 후 자진 해산했다. 김무신, 서기홍, 박광규 등이 이 단체 시위에 끝까지 함께했음은 당연한 일이다.



〈그림-80〉 마산고 학생회장
박문달의 선언문 낭독

마산경찰서에 도착한 학생들은
경찰서 앞에 연좌농성에 들어갔
고, 박문달 학생회장은 마산경찰
서 담장에 올라가 선언문을 낭독
했다. /3·15의거기념사업회/

그리고 이들이 지난 4월 14일 목요일, 두 명의 경찰이 박문달의 집을 찾아왔다. 이들은 신문 기사를 사칭해 그를 불러낸 후 바로 지프차에 태워 마산경찰서로 연행했다. 경찰은 박문달을 지하실에 감금한 뒤 24시간 밤낮으로 취조했다. 시위한 이유가 뭐냐, 사주자는 누구냐, 불은 뼈라 내놔라, 바른 말 하지 않으면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 유치장에 바로 처넣어 세상 구경 못하게 하겠다는 등 강압적인 취조를 계속했다. 박문달은 굴하지 않고 “부정 불의에 맞서 그리고 국민들의 총의에 따라 데모를 선도했다. 나 개인이 주도한 것이 아니다. 우리 총 학생들의 뜻이었다. 처벌을 하면 달게 받겠다.”며 당당히 맞섰다.

마침 국제신문 기자 한 사람이 우연히 박문달의 고통스러운 취조 광경을 보았다. 4월 15일자 국제신문 사회면 톱으로 박문달의 구속 기사가 실렸다. 이 소식을 들은 전교생이 분개해 다시 거리로 뛰쳐나오려는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했다. 당황한 학교 당국은 경찰 관계자와 숙의한 후 데모 재발 방지를 확약하

고 박문달의 석방 결정을 받아 냈다.

4월 18일 월요일. 김무신은 마산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3·15마산의거 국회진상조사단 제35회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질문의 목적은 동아일보에 보도된 자신의 말이 확실한 것인지를 재확인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무신이 4월 11일 동아일보 마산지사를 찾아가 했던 얘기가 자신이 시청 지하실에서 김주열의 시체를 봤다는 식으로 잘못 보도된 데 기인한 것이다. 이 보도로 인해 그동안 김무신은 수많은 기자들이 학교에까지 찾아오는 등 괴로움을 참을 수 없어 이번 증언으로 확실히 매듭을 짓기 위해 증언을 수락했다. 증언에서 다시 한 번 자신이 본 대로 얘기하고 혹시 김주열이 아니었을까 짐작만 했을 뿐 자신은 김주열을 생전에 본 적도 없는 사이이며 시청에서 눈에 최루탄이 박힌 시체를 본 기억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밝혔다.

김주열의 참혹한 시신과 이로 인해 발생한 마산 제2차 의거의 불길은 전국으로 번져나갔다. 결국 서울에서 4·18 고대생 데모에 이어 ‘피의 화요일’ 4·19혁명이 일어났고, 4월 25일 전국 교수단 시위까지 일어났다. 국내외로부터, 특히 미국 측으로부터 하야 압박을 받고 있던 이승만 대통령은 결국 4월 26일 오전 10시 30분 하야 성명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 민권 투쟁은 결국 승리했다. 이틀 후 이기붕 일가는 권총으로 집단 자



〈그림-81〉 김무신의 증언

1960년 4월 18일 마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3·15마산의거 국회진상조사단 제35회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고 있는 김무신. /3·15의거기념사업회/

살을 했고, 사저 이화장에서 침거하던 이승만 대통령 내외는 5월 29일 하와이로 망명을 떠났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4월 26일 민권 승리의 기쁨을 채 만끽하기도 전에 마산 시민은 때 아닌 불청객을 맞아 전전긍긍했다. 이날 하오 3시경 이른바 ‘부산 원정대’라 불리는 부산 시민 데모 대원 2,000명이 차량 50여 대를 타고 들이닥쳤기 때문이다. 이들은 “우리 세상이 왔다!”며 공공기관들을 사정없이 부수고 다녔다. 서기흥을 비롯한 마산고 학생들도 이들을 제지하기 위해 나섰다. “너저들 마산 와 가지고 마산 살림 손 못 댄다. 하지 마라!”고 말했고, 직

접 작대기들을 들고 공공기관을 지키기도 했다. 부산 원정대는 하룻밤을 지낸 후 민주당 간부 이양수의 설득 등으로 부산으로 되돌아갔다.



〈그림-82〉 무기고 약탈에 대비하는 마산 시내 고교생들

1960년 4월 26일 부산 원정대 중 일부가 지나친 행동으로 마산 치안을 어지럽혔다. 마산 경찰서 무기고를 약탈할 위험에 대비해 마산 시내 고교생들이 직접 무기고 사수에 나섰다. 마산고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눈에 많이 띈다. /3·15의거기념사업회/

7. 투사들의 후일담

김용실·김영준 열사 가족의 후일담은 앞서 다루었기에 여기에서는 그 외의 투사들의 후일담을 정리하기로 한다.

김무신은 잡혀 들어간 지 만 5일이 지나 석방되었다. 나오니 신문 기자들이 땀공세를 퍼붓는다. 그는 마치 영웅이나 된 것처럼 사진 찍히는 것이 싫었다. 경찰서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석방된 학생 7명을 차로 곧장 구마산 자유당 시당부인 무진회사 2층(지금의 국민은행)으로 데려갔다. 그곳엔 학교 담임 선생님, 교감 선생님을 비롯해 허윤수 외 자유당 간부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학생들을 앉혀 놓고 다과연을 베풀다. 허윤수 의원이 학생들의 잘못이 크다며 앞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강조하며 말했다. 김무신은 외치고 싶었다. “새 시대의 대세에 공리적 타산으로 자신의 이익과 권세를 위하여 배은망덕한 13만의 원수, 아니 2천만의 원수! 과연 배우는 우리에게 무슨 염치로 저런 말을 할까?” 울분이 다시 치밀어 올랐다. 그러나 선생님들과 자신의 보호자인 재종형님이 무섭게 쏘아본다. 더욱이 재종형님은 자유당 경남 조직부장이다. 무신은 그가 “피투성이가 된 내 모습에 얼마나 놀랐을까.”를 생각하고, 고향에서는 부모님과 자형 댁에서는 누님과 자형이 너무나 많이 걱정하고 또 그야말로 나 하나 때문에 집안 식구 모두가 사색이 되어 조바심의 날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12시 10분경 자형 댁에 도착했다. 오늘 밤에도 누님은 근심과 조바심으로 여태까지 잠을 못 이루고 있었다. 어쨌든 옥중의 몸으로 출옥이라는 영광에 이르기까지 무려 5일 만에 걱정과 근심을 덜게 되니 이때의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2014년 김무신 평전을 출간한 홍중조 선생은 그를 “갖은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어떤 악조건에 맞닥뜨려도 굴하지 않았던 성격의 소유자 … 자유당 독재에 … 한 몸 불살라 뜨거운 불꽃이 되어 항거 … 말의 연금술사 … 특유의 선동가”라고 평했다. 일기로 추정컨대, 그는 조국과 선열에 대한 존경심과 정의감이 투철한 학생이었다. 그는 3·15의거 제1차 의거의 주역의 한 사람

으로 손색이 없으며, 3·15의거를 소재로 하는 미시사적 탐구를 위한 훌륭한 소재가 될 수 있음에 틀림없다. 졸업 후 어려운 가정 형편에 독학으로 연세대에 진학했지만 졸업은 하지 못했고, 나중에 언론사 기자가 되어 김천과 울산에서 근무했다. 1980년대 초 전두환의 언론 통폐합과 기자 강제 해직 때 기자 생



〈그림-83〉 김무신(맨 오른쪽) 동문 가족
/「김무신, 그 불꽃 같은 삶」 5쪽/

활을 그만두고 인쇄업을 운영해 경제적으로 성공했고, 집안과 종종을 돌보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에 매진하다 과중한 업무로 병을 얻어 1997년에 사망했다.

서기홍은 어떤 연유로 석방되었는지는 몰랐다. 어쨌든 유치장에서 나오니 학교 선생님 두 분이 기다리고 계셨다가 “야, 이놈들 고생했다.”며 안아 주고 등을 두드려 주고 가셨다. 그도 김무신 등과 함께 자유당사로 갔다. 서기홍은 허윤수 의원이 오란다 빵을 하나씩 주며 “고생 많았다. 학생은 본분을 지켜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기억했다.

서기홍은 적십자 명단에 올리고 할아버지하고 잘 아는 집 밑에 있는 김완길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다리에 금이 갔다고 깁스를 하고 앞니를 치료하고 3일간 누워 있다가 퇴원했다. 집 말고 다른 데서 자면 불안감을 느껴 집에서 통원 치료하기로 한 것이다. 그는 퇴학당한 것으로 짐작했지만 아니란 걸 알고 다시 등교했다. 자신이 겪었던 일을 아는 학생도 있었지만 모르는 학생도 적지 않아 좀 놀랐다.

서기홍은 졸업 후 서울로 올라갔다. 대학 입학시험에 한 번 실패하고, 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마산고 학생 대표로 건국포장을 받게 되었다. 그는 객지

에서 생활하느라 그런 상이 있는 줄도 몰랐다. 그래서 모친이 대신 상을 수령했다. 나중에 모친에게 들었는데, 자신이 잡혀가고 난 뒤 모친이 담임선생을 찾아가 어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자 선생님은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시오. 그놈 생각하는 세상하고 나는 사상이 틀리오.” 하며 야박하게 굴었다는 것이다. 20년이 지난 후 서기홍이 담임선생을 만나 그런 얘기를 하니, 선생님은 기억이 안 난다고 둘러대었고, 대신 술 한잔 사주면서 위로를 해 주었다.

박문달은 “이승만 하야 후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앞장서서 거리 질서 유지, 수업 정상화 등 사태 수습에 들어가자 저도 학생 간부와 함께 술선수범하여 신명을 바쳐 질서 회복에 앞장섰다. 그리고 43년이 지난 지금 회상하면 마산고등학교 대표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적박했던 이 땅의 자유·민주·정의를 지키는 데 조그마한 손톱자국이나마 남길 수 있었다는 데 가슴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송정명은 서울 중앙메디칼센터에서 신경을 이어주는 수술을 받았지만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 애초 감각이 없던 발바닥에 감각이 10분지 1 정도 돌아오는 데 15년이 걸렸다. 평생 정상으로 돌아오기는 어렵게 되었다. 여기서 2달 입원한 뒤 동래에 있는 재활원에 가서 한 3개월 정도 물리치료를 받았다. 당시에는 재활의학이 발달하지 않아 이 재활원이 한국에서 유일했는데, 시설도 열악하고 인력도 부족했다. 송정명은 그 다음해에야 복학을 할 수 있었다. 그는 말했다. “충 맞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걸로 후회하지는 않았다. 나만 의분을 가진 게 아니고 전 국민 다 그랬을 것이다. 부상을 무릅쓰고 같이 나서서 4·19혁명의 원인을 제공하고, 자유당 종말을 고하는 데 앞서 싸웠다는 게 자랑스럽고, 후손들에게 몇몇이 말해 주고 싶다.”



〈그림-84〉 마산고 출신 3·15의거 국가
유공자 명단

3·15의거 김영준·김용실 추모 동산 뒤쪽
에는 이전에 세워진 '김용실·김영준 군 민
주의거 추념비'가 있고, 그 아래 화강석으
로 된 바닥 돌에는 유공자 열두 분의 이름
과 입학 기수가 새겨져 있다.

김정세 부친은 3월 16일 새벽 4시경 아는 택시 기사를 수배해 어젯밤 부상당한 아들 정세와 딸 정희를 데리고 진해 통합병원을 향해 출발했다. 정희는 목욕 간다고 해 놓고 돌아오지 않는 오빠를 찾아오라는 부모님 심부름을 나왔다가 시위 군중에 휩쓸려 충을 맞았었다. 진해로 가고자 한 것은 마산에는 모든 병원에 수배령이 내려져 있어 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진해로 가려면 두 곳의 검문소를 통과해야 하는데, 정희가 계속 피를 흘리고 있어 잘못하면 치료는커녕 빨갱이로 몰릴 위험이 컸다. 부친은 이불로 정희를 감싸고는 아이가 추위를 타서 그런다고 둘러댔다. 경찰들은 의심하지 않고 통과시켜 주었다. 운이 좋았다. 김정세 남매는 진해 통합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은 후 거기서 소개해 준 김덕호 외과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원장이 순수 야당 사람이어서인지 이들의 의로운 행동을 장하게 생각했고, 자식이 없어서인지 이들을 자식처럼 자상하게 대해 주었다. 그렇게 치료 받던 중에 정권이 교체되었다. 야당 정치인들이 직접 이들을 방문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아들딸이라며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 김정세는 증언 당시까지도 괴로워했다. 여동생은 두부 관통상으로 정신을 잃어 보름 후에 깨어났고, 한동안 사람을 식별하지 못하고 기억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 후 부친도 지병이 나서 일찍 작고했

다. 김정세는 이 모든 게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보상받고자 한 일이 아니어서 국가 유공자 신청도 안 했고 보상도 안 받으려고 했고, 양친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김덕호 원장께서 국가 보훈 관계를 인지하고 대신 신청해서 이루어졌다.”고 증언을 마무리했다.

박광규는 석방된 날 밤을 담임 선생님 집에서 지내고 다음날 바로 하숙집으로 갔다. 한없이 울었다. 너무 서럽고 억울한 생각이 들어 계속 울었다. 감방에 같이 있던 사람들은 고문을 많이 받지 않았는지 모두 자기보다 건강했다. 자신은 아프고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그들은 음식도 잘 먹고 이야기도 잘 하고 대체로 괜찮았다. 그래서 그는 “참, 나는 촌에서 자랐고 또 부모님이 찾아오시지 않은데다가 경찰서 등에 손을 쓸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내가 더 고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석방되던 날 저녁에 비가 온 것 같은데 담임 선생님이 우산을 가지고 오셔서 너무나 반갑고 고마웠다. 여태껏 선생님을 따듯이 한 번 모시지 못해 너무나 은혜를 모르고 살아온 것 같아 송구스럽기만 하다고 했다.

박광규는 석방 후 고통과 후유증, 자중하라는 엄중한 경고에 대해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두려움도 공포도 없었고, 오로지 분한 마음밖에 없었다. 억울하고 참담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고, 응어리진 마음을 어딘가 호소하고 부르짖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몸과 마음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던 차에 이모님이 본가에 연락해 모친이 하숙집으로 찾아오셨다. 모친과 같이 바로 촌으로 내려갔다. 모친은 도착하자마자 개를 잡아 고아 먹이고 동네의 간호사를 수소문해 주사 맞는 등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온갖 정성을 다하셨다. 그럭저럭 어느 정도 치유된 후 개학에 맞추어 마산으로 돌아왔다.

박광규는 경찰이 다시 불러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라는 공포감에 항상

것어 있었고, 정권이 바뀔 거라는 기대도 별로 하지 않았다. 그런데 고대생 데모로 시작된 일련의 사태로 상황이 점점 발전하면서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는 순간 “아! 이제 살았구나.” 하는 안도감이 저절로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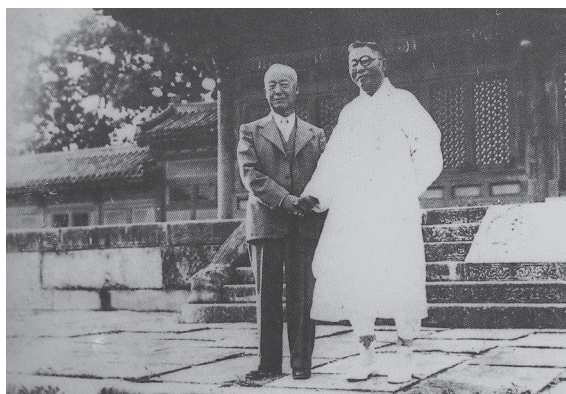
박광규는 고문 후유증으로 밤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계속 악몽에 시달리니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결국 바라던 대학에도 못 들어갔다. 군 복무 중에도 머리가 계속 아프다고 호소해도 군의관은 이상 없다는 진단만 내렸다. 그는 증언 당시까지도 술잔을 들면 손이 떨렸다. 두통과 잔병 등 때문에 진통제와 기타 약들을 달고 살았다. 집사람이 자기 같은 사람한테 시집와서 마음고생이 많아 미안할 따름이라 했다. “이게 내 운명인가, 내가 겪어야 하는 시련인가?” 하면서 후회하기보다는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살아왔다.

사실 이 사건으로 그의 인생길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 고문 후유증으로 공부에 열중하지 못하니 만사가 뜻대로 되지 않았다. 결국 동아대 농학과를 졸업한 뒤 한일합섬에서 근무하다 그만두었다. 그해 국가고시가 처음 생겼는데 경북사대에 응시해 실패하고 재수했다. 심리적 불안정으로 기대에 못 미쳤던 것이다. 1969년 5월부터 교사 생활을 시작했고, 1970년 강수자(52) 씨를 만나 결혼했고, 슬하에 2남 1녀를 두고 내서에서 살고 있다. 증언 당시 내서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다.⁹⁵⁾

박광규는 말한다. “3·15의거는 이 땅에 민주주의의 꽃을 피운 씨앗이며, 4·19혁명의 도화선이자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민중 항쟁의 시초라고 본다. 매년 3월 15일이면 수업 중에 어린 학생들에게 3·15의거가 왜 발생했는지, 역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마산 시민의 위대한

95) 이 증언은 1999년에 이루어진 것이다.

의거 정신을 들려주면서 너희들이 꼭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5·16 쿠데타로 3·15의거와 4·19혁명이 역사적으로 희석되었다. 늦었지만 이제 그 정신을 되찾고 계승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근래 3·15성역공원이 조성되고 3·15의거탑 주변이 테마 공원화되면서 그 위상을 드높이는 작업이 진행 중인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 벽돌 한 장 쌓는 마음으로 우리 시민이 참여해야 한다. 부정과 불의를 보고 지나치지 않은 정신이야말로 마산의 정신이고, 시민 모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39년 전 우리가 목숨 걸고 쟁취했던 그 자유와 민주의 정신을 현재 일부 정치 지도자들이 매도하고 있는 듯해서 유감스럽다. 위정자들은 신뢰받는 정치를 해서 국민을 편안하게 해 주어야 한다. 국민도 선거 시에 먼 장래를 생각하고 투표해야 하고, 바르고 정직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 이 나라의 민주 정치 토대를 더욱 굳건히 다져나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그림-85〉 두 민족 지도자의 악수

전 국민은 ‘임정’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왼쪽)와 ‘임정’ 김구 주석이 손을 잡고 통일 정부를 세워 줄 것을 염원했다. 그러나 결과는 그리지 못하여 우리 현대사의 큰 아픔으로 남게 되었다.

/서문당/

8. 마무리 글

무엇보다 먼저 서두에서 밝힌 바처럼, 이 글에서는 모든 이름에서 존칭을 생

략했음을 다시 밝혀 둔다. 존경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글쓰기의 편의에 따른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이 글에서 우리가 지어낸 스토리는 전혀 없다. 단지, 여러 증언과 글들을 취합해서 중복된 것을 추리고, 나름의 순서대로 재조합했을 뿐이다. 따옴표로 인용된 글뿐만 아니라 모든 글이 원 자료에 있는 그대로다. 글을 좀 순화하거나 요즘 말로 바꾸거나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것은 고쳤음을 밝혀 둔다. 그래서 일일이 출처와 인용된 곳을 표시할 수 없었다. 글 전체가 인용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글은 비록 부족하지만, 당시 마산고 학생 신분으로 3·15의거에 참여해 많은 적든 흔적을 남긴 투사 분들의 행적을 추적하고자 했다. 그들의 숭고한 희생과 열정이 좀 더 명료하게 드러났다면 우리로서는 만족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다루지 못한 많은 학생들이 3·15의거에 참여했을 것임에 틀림없지만, 증언 등 관련 기록의 부재로 이 글에 포함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향후 이미 알려진 참여자는 물론 전혀 알려지지 않은 참여자들의 활동에 관한 새로운 증언이나 자료가 더 발굴되고, 또 각 열사와 투사를 개별적으로 추적하는 미시사적 연구도 이어짐으로써 더 많은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좀 더 생생하면서도 좀 더 풍부한 스토리를 가진 열사 및 투사 열전이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러한 개별 학교 수준의 노력들이 모여, 일종의 정사라 할 수 있는 3·15의거기념사업회 발행 『3·15의거사』의 역사적 리얼리티를 더욱 풍부하게 만듦으로써 개정증보판의 준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와 동시에 이러한 미시사적 연구와 추적이라는 방식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 부재로 공로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상의 공로자들의 억울함도 풀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마산고등학교, 1960년 3월 15일
김용실·김영준 열사를 재발견하다

맺음말

제6장



김용실·김영준 열사를 재발견하다

제6장

맺음말

이 책은 ‘1960년 3월 15일’이라는 시간과 한국 마산의 ‘마산고등학교’라는 공간에 한정하여, 그날 그 학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일어났던 엄청난 역사적 사건 - 3·15의거 - 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획된 것이다.

제2장에서는 왜 한국, 마산에서 3·15의거가 일어났으며, 마산의 많은 고등학교 가운데서 유독 마산고등학교에서 그렇게 많은 희생자가 나왔는지를 사회·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3·15의거 당시 꽃 중의 장미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김용실 열사(21회)의 불꽃같은 삶을 정리했고, 제4장에서는 역시 마산고 출신의 김영준 열사(19회)의 의로운 행적을 정리하였다. 두 열사의 일대기를 살피기 위해 우리는 기존의 자료는 최대한 활용하되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여섯 차례에 걸친 증언 듣기를 통해 새롭게 ‘발굴’한 자료를 중요 사료(史料)로 활용하는 방법을 택했다. 김용실 열사의 행적이 훨씬 더 풍부해졌고, 그동안 거의 알려진 바가 없던 김영준 열사와 관련되는 사실을 적잖게 발굴해 낸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 제5장은 두 열사 외에 3·15의거 현장에서 자유와 민주를 외치다 심각한 부상을 당

하거나 붙잡혀 모진 고문에 시달린, 마산고 출신의 일곱 투사들의 활동을 그리는 데 할애하였다.

이번 일을 함께하면서 우리 편찬위원들은 마산고등학교가 ‘명문’이면서도 그 기저에는 ‘의로움’이라는 정신이 개교 이래 면면하게 이어져 왔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정신을 제대로 이어왔는가 하는 자기반성도 하게 되었다. 한 지역사회의 중심 고교라고 자부하는 학교의 출신이라면, 그 지역사회의 현안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될 것이다. 문제를 3·15의거에만 한정시켜 보자. 그때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학교가 마산고등학교라 한다면, 그 정신을 이어가는 일에도 마산고 동문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설어야 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는 뼈아픈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부터라도’를 다짐해 보는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고나 할까.

이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제안을 하면서 이 책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그것은 ‘3·15’와 관련하여 혼란스럽기 그지없는 용어를 역사의 흐름에 걸맞은 이름으로 정립해야 한다는 것과 관련된다.

예로부터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세상 만물, 세상만사에 합당한 바른 이름[正名]을 짓는 것이 정치의 요체라 했다. ‘3·15’를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 부르는가, 정치인들 혹은 교과서는 어떻게 불렀는가, 이를 살펴보면 현기증이 날 정도로 어지럽고 혼란스럽다. 한 마디로, 하나의 사건에 대한 이름을 너무나 자주 바꾸어 불렀고, 그것은 영락없이 우리 현대사의 굴곡을 그대로 드러낸 결과였다고 요약할 수 있다. 그 이름은 ‘4·19’와 ‘5·16’에 대한 이름 짓기의 변화와 하나의 세트를 이루기에 더욱 더 그러하다.

1960년 혁명의 성공 당시 ‘4월혁명’의 핵심적 부분으로서 ‘마산 3·15의거’가 범국민적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5·16 이후 군사정부에서 오랜 시절 3·15

는 ‘3·15 부정 선거’로만 교과서에 신는 참담한 흑역사도 있었다. 1993년 김영삼 문민정부 등장 이후 5·16을 ‘5·16 군사정변’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4·19는 ‘4·19혁명’으로 ‘승격’하였다. 이와 함께 ‘마산 3·15의거’가 부활되었고, 마침내 3월 15일은 4월 19일과 함께(이후 대구 2·28, 대전 3·8과 함께) 자랑스럽게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어두운 역사의 유산은 아직도 남아서 계속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다. 하나는 3·15와 4·19의 위계적 규정 문제다. 요컨대, 왜 4·19는 ‘혁명’이고, 3·15는 ‘의거’냐 하는 것이고, 2월 말부터 4월 말까지의 대사건 전개에서 3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 두 달에 걸친 마산의 항거가 ‘몸통’이니까 ‘3·15도 혁명’이라는 것이다. 내용상으로도 3월의 1차의거는 부정 선거 규탄이 중심이었지만, 4월 11~13일의 2차의거에서는 이미 이승만 정권 자체를 규탄하는 정치 혁명으로 발전하였으며, 4월 18~26일의 ‘서울 4·19’는 그 연장선에 있는 사건이다. 한때 4·19도 “의로운 거사”라는 뜻의 ‘의거(義擧)’로 불렸거니와 4·19가 의거이면 3·15도 같은 의거이고, 4·19가 “국가 기초, 사회 제도, 경제 제도, 조직 따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이라는 뜻의 ‘혁명(革命)’이면, 3·15도 혁명 그 자체의 중추적 한 부분인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4·19와 3·15의 시·공간적 범위와 포함 관계 여부이다. 제도·법률적 용어로서의 ‘4·19혁명’은 마산 ‘3·15의거’, 대전 ‘3·8민주의거’, 대구 ‘2·28민주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규정한다. 그러나 이런 제도·법률적 규정과는 달리 ‘4·19혁명’은 “4월 19일 서울에서 일어난 항거”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것은 두 달간에 걸친 전국의 정의로운 민주 혁명을 서울의 4월 19일 하루가 대표하는 격이고, 다른 지역, 다른 시기 거사의 독자성을 부정하는 일이어서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서울 중심적인 역사·문화적, 제도적 폭력은 오랜 동안 3·15의거 기

념사업도 못하게 하였다. 지금도 김용실·김영준·김주열 등 12명의 3·15의거 희생자와 술한 부상자, 유공자들은 보훈청에서 공식적으로 4·19혁명 희생자, 부상자, 유공자로 불리고, 조직적으로도 해당자들은 서울 중심 조직의 지역 지부 소속으로만 존속하도록 만들었다.

두 달간에 걸쳐 전국 도처에서 전개된 대사건을 두고 그 실체에 맞게 이름 지으려면 현행의 4·19혁명이 아니라, 1960년 당시 이후 흔히 쓰인 ‘4월혁명’이 분명히 더 합당하다. 그러나 ‘4월혁명’조차도 ‘서울 4·19’를 낳은 ‘마산 3·15’는 담지 못하고, 대전 3·8, 대구 2·28, 그리고 부산·광주 등의 민주 의거를 배제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4월’이라는 시간적 제한을 풀어야 2월·3월의 대구·대전·마산이 인정되고, 부산·광주 등 타 지역도 인정된다. 이를 모두 담은 자연스러운 표현은 ‘봄’, ‘60년 봄’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1960년 봄, 의로운 민주혁명’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혁명은 이 나라 역사상 최초로 민중의 힘으로 포악한 국가 권력을 교체한 사건이요, 공산 독재도, 반공 독재도 목숨 걸고 거부한 정치 혁명이다. 1957년 헝가리 반공 의거를 비장하게 노래한 마산 3·15 시인 김춘수의 ‘부다페스트에서의 소녀의 죽음’에서 큰 영감과 용기를 얻은 의거다. 한국의 부패한 독재 현실을 두고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는가?” 하고 비웃던 서양에, 60년대 미국의 민권 운동, 유럽의 68혁명, 동유럽의 반공민주변혁운동에도 직·간접으로 크나큰 영감을 되돌려 준 동아시아의 민중 민주 운동이다.

우리는 마산고등학교가, 마산이, 아니 경남·한국이 낳은 김용실·김영준 두 열사의 삶과 죽음을 되새기며 이렇게 마산의 3·15의거가 갖는 세계사적 의미까지 새기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패배와 좌절의 시기에는 땅 밑의 복마전처럼, 때로는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으로 성난 파도처럼 솟

구쳤던 1960년 봄 민주혁명의 정신을 더 굳건하게, 더 성숙하게 가다듬어서
우리나라를 나라답게, 세계를 화평하게 하는 'K-민주주의'로 승화시키는 데
일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 강만길, 『고쳐 쓴 한국 현대사』, 창작과비평사, 1999.
-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편, 『창원의 역사와 문화』, 도서출판 바오, 2015.
- 김무신, “내 옆에 김용실 군 시체가”, 1960년 3월 20일 작성된 일기, 3·15의거기념사업회, 『3·15의거 증언록』에 재수록.
- 김양부·안명희, “마산 남녀 8개교 시위 참가 사전 모의”, 녹취 1997년 2월 21일, 3·15의거 기념사업회, 『3·15의거 증언록』에 재수록.
- 김옥주·김영필 부부, “서로 동생 잃은 슬픔 달래다 사랑 싹터”, 녹취 1996년 4월 30일, 3·15의거기념사업회, 『3·15의거 증언록』에 재수록.
- 김정세·김정희 남매, “북마산파출소 앞서 함께 총 맞아”, 녹취 1998년 9월 14일, 3·15의거 기념사업회, 『3·15의거 증언록』에 재수록.
- 김정대, “마산 3·15의거에 ‘마산 사람’이 없다?”, 『3·15의거』 23호, 3·15의거기념사업회.
- 김주완, 『토호 세력의 뿌리: 마산 현대사를 통해서 본 지역사회의 지배 구조』, 불휘, 2005.
- 김준형, 『과거의 우물』, 좋은땅, 2011.
- 남부희, “3·15의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 『三·一五義舉』 1호, 3·15의거기념사업회, 1995.
- 마산·창원지역사연구회, 『마산·창원 역사 읽기』, 불휘, 2003.
- 마산고등학교 총동창회, 『마산고등학교 80년사(1936~2016)』, 2016.
- 마산고등학교총동창회, ‘마산고등학교, 1960년 3월 15일’ 편찬위원회 증언 녹음 기록, 2021~2022.
- 마산시사편찬위원회, 『馬山市史』, 1997.
- 마산시사편찬위원회, 『馬山市史 1권: 환경과 역사』, 2011.

마산시사편찬위원회, 『馬山市史 3권: 정치와 행정』, 2011.

박광규, “누구의 지령을 받아 데모했느냐”, 3·15의거기념사업회, 『3·15의거 증언록』에 재수록.

박문달, “경찰 연행에도 그 뜻 굽히지 않아”, 3·15의거기념사업회, 『3·15의거 증언록』에 재수록.

박식원 편저, 『되찾자! 잃어버린 3·15: 3·15의거 30주년 기념 자료집』, 시원출판사, 1990.

박정석, “시체에 불온 뼈라 투입 강요 거부”, 3·15의거기념사업회, 『3·15의거 증언록』에 재수록.

서기용(서기홍), “무신을 그리는 마음”, 홍중조 편저, 『김무신, 그 불꽃같은 삶』, 불휘미디어, 2014.

서기홍, “조사받을 때 노다지 욕이었지”, 3·15의거기념사업회, 『3·15의거 증언록』에 재수록.

서익진, “3·15의거 고교별 투쟁사: 마산고등학교편”, 『3·15의거』 23호, 3·15의거기념사업회.

서중석, 『한국현대사』, 웅진하우스, 2005.

송정명, “시청 진입 중 경찰 증원군에 포위 총상”, 3·15의거기념사업회, 『3·15의거 증언록』에 재수록.

안순이·정현팔, “남편과 아들을 비밀 당원으로 몰아”, 3·15의거기념사업회, 『3·15의거 증언록』에 재수록.

이명선(김용실 모친), “도립마산병원서 아들 시체 찾아 장례 지내”, 1960년 3·15의거 국회진상조사 증인 속기록, 1960년 3월 27일, 3·15의거기념사업회, 『3·15의거 증언록』에 재수록.

정성기, “제3장 노동”, 마산시사편찬위원회, 『馬山市史 4권: 경제와 사회』, 2011.

조영건, “3·15의거의 역사적 의의”, 『三·一五義舉』 1호, 3·15의거기념사업회, 1995.

홍중조 엮음, 『三·一五義舉』, 3·15의거상이자회, 4·19의거부상자회경남지부, 1992.

홍중조 편저, 『김무신, 그 불꽃 같은 삶』, 불휘미디어, 2014.

홍중조, “왜 마산이었는가?”, 『三·一五義舉』 1호, 3·15의거기념사업회, 1995.

중·고교 국사 교과서의 3·15, 4·19 관련 서술의 변화⁹⁶⁾

1. 1966년 중학교 국사(검인증, 법준사)

*소단원: 4·19의거

*내용: “이와 같이 공공연한 부정 선거는 그렇지 않아도 자유당의 독재 정치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국민들을 봉기(蜂起)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마침내 4월 19일을 전후하여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학생을 필두로 전 국민이 쫓기하니 이승만은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자유당의 독재 정권은 무너지고 말았다. 이제 우리나라는 4·19의거에 의하여 자유 민주주의로 일보 전진하게 된 것이다.”

*비고: 국정이 아닌 검인증 교과서의 하나. 마산 3·15 관련 내용 없음. 그러나 1966년에 발간된 『중학 사회』 2학년 교과서 153쪽에는 다음과 같이 ‘마산의거’라는 표현으로 두 차례의 시위를 상세하게 기술해

96) 1997년까지의 교과서(1997년도에 간행된 국정 국사 교과서 내용은 그 이전에 이미 공개되어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치고 있던 상태였음.) 내용은 3·15의거기념사업회가 발간한 『3·15의거』 2집(1996)에 수록된 「중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기술된 3·15 마산의거 변천사」, 그리고 역시 이 기념사업회에서 편찬한 『3·15의거사』 600쪽의 내용을 인용·참고한 것이고, 나머지는 직접 확인한 것이다.

놓았고, 그것이 4월 19일 서울을 비롯한 적국 각 도시의 부정 선거 규탄 데모로 이어졌다고 정확하게 기술해 놓아 눈길을 끈다.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선거가 온갖 부정과 협잡 아래 실시되니 이날 마산에서는 분노에 찬 시민들이 부정 선거를 규탄하는 데모를 하다 경찰과 충돌하여 많은 사상자를 내었다.

이때 행방불명된 한 학생의 시체가 4월 11일 머리에 최루탄의 파편이 박힌 채 해상에 떠오르자, 그 처참한 모습에 격분한 마산 시민들이 다시 들고일어나 데모를 벌였다. 이 마산의거를 신호로 4월 19일에도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도시에 부정 선거를 규탄하는 데모가 성난 파도처럼 일어났다.”

2. 1968년 개정판 고교 국사(검인정, 동아출판사)

*소단원: 민주주의의 시련⁹⁷⁾

*내용: ‘3·15 부정 선거’, ‘4·19의거’ 표현

*비고: 마산 3·15 관련 내용 없음.

3. 1970년 고교 국사(검인정, 양문사)

*소단원: 4·19의거

*내용: “독재 정치로 말미암아 생긴 사회적 불안은 1960년 3월 15일의 정 부통령 선거 때에 이르러 극에 달하였다. 당시의 자유당 정부는 이 선거에서 경찰과 공무원을 동원하여 갖은 불법을 다하였다. 이러한 지나친 불법 행동에 대한 반항은 선거 전인 2월 28일 대구 학생

97) ‘4·19의거’를 ‘민주주의의 시련’으로 변경.

데모에서 발단되었다. 선거 당일인 3월 15일에는 마산 학생들의 부정 선거에 대한 항거 데모가 일어났는데, 경찰은 이에 발포하여 약 100명의 사상자를 내었다. 그 후 4월 11일에는 또 다시 마산 학생과 시민들의 데모가 있었다. 이 데모는 드디어 서울로 파급되었다. …… 4·19의거는 맨주먹으로 일어난 민중이 강압적 독재 정권을 타도하는 데 성공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의거였다.”

*비고: 마산의 1, 2차 데모 서술.

4. 1976년 고교 국사(국정)

*소단원: 4월 학생 의거

*내용: 마산 3·15 관련 서술 없음.

*비고: 유신 체제 이후 국사 교과서 검인증 제도가 국정으로 바뀐 후, ‘4·19 의거’를 ‘4월 학생 의거’로 바꾸고, 서술 내용을 줄여서 마산 3·15 관련 내용은 없음. 1978년, 1979년 고교 국사(국정)에서는 소단원 제목을 ‘4월 의거’로 바꾸고, 내용은 유사. 역시 마산 3·15 관련 내용 없음.

5. 1982년 중학교 국사(국정)

*소단원: 4월 의거

*내용: “그리하여 우리나라 민주 정치는 흔들리게 되었다. 특정 지도자의 종신 대통령제를 꾀하던 일부 부패 정치가들은 부정 선거를 자행하였다(1960. 3. 15.). …… 그리하여 마산에서 부정 선거를 규탄하는 학생과 시민의 시위가 일어났고, 이어 서울에서도 부정 선거와 독재 정치를 규탄하는 학생들과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비고: 전두환 정권 초기의 교과서다. 소단원 제목이 '4월 학생 의거'에서 '4월 의거'로 변화되었다. 본문에서 마산의 시위에 대한 기술은 있으나 '3·15의거'라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마산 3·15의거 기념탑'이라는 제목의 사진은 수록되어 있다.

6. 1988년 중학교 국사(국정)

*소단원: 4월 의거

*내용: “특정 지도자의 종신 대통령제를 꺾하던 일부 부패한 정치가들은 부정 선거를 자행하였다(1960. 3. 15.). …… 그리하여 마산에서는 부정 선거를 규탄하는 학생과 시민의 시위가 일어났고, 이어 서울에서도 부정 선거와 독재 정치를 규탄하는 학생들과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학생과 시민의 시위는 곧 다른 지방에까지 확대되었는데, 이를 4월 의거라 한다(1960. 4. 19).” 사진과 함께 ‘마산 3·15의거 기념탑’ 설명이 있음.

*비고: 군사정부가 끝나고 1987년의 직선제 개헌 이후 첫 교과서에서 소단원 제목은 그대로 '4월 의거'로 표현하고, 마산 3·15 관련 내용을 유신 체제 이후 처음으로 되살리면서 사진과 함께 마산 3·15를 '4월 의거'의 한 부분으로, '마산 3·15의거'로 표현함.

7. 1997년 고교 국사(국정)

*소단원: 4·19혁명

*내용: “4·19혁명은 3·15 선거 당일에 부정 선거를 규탄하는 학생과 시민들의 마산의거에서 발단되었다. 이때 시위 군중에 경찰이 발포함으로써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자유당 정권은 오히려 이 시위의 배

후에 공산주의 세력이 개입되어 있다고 발표하여 시민들의 반감을 사게 되었다.”

*비고: 김영삼 문민정부 등장 이후 ‘5·16혁명’은 ‘5·16군사정변’으로 격하하는 동시에 기존의 4월 의거, 혹은 4·19의거는 처음으로 ‘4·19혁명’으로 표현하고, 아울러 ‘마산의거’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본문에 서술되었다.(4·19혁명이라는 표현은 교과서의 경우, 1996년 교과서에서 처음 나왔다.)

8. 2007년 고교 국사(국정, 2002년 초판)

*소단원: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

*내용: “1960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은 집권 연장을 위하여 노골적인 부정 선거를 자행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학생과 시민의 시위를 폭력으로 진압하였다. 마침내 국민의 분노가 전국적으로 터지면서 4·19혁명이 일어났다.”

*비고: 김대중 정부에 의해서 소단원 제목은 ‘4·19혁명’에서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으로 바뀌었고, 내용에서 ‘마산의거’나 ‘3·15의거’는 삭제되었다.

9. 2015년 고교 국사(검인정, 지학사, 현행 교과서)

*소단원: 제목 없음.

*내용: “3월 15일부터 마산, 광주, 서울 등 각지에서 부정 선거에 저항하는 국민의 시위가 전개되었다. 특히 마산에서는 경찰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1차 마산시위). 이후 시위 과정에서 실종되었던 고등학생 김주열이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시

신으로 떠오르자 이에 격분한 마산 시민들이 항의 시위를 격렬하게 전개하였다(2차 마산시위).”

*비고: 고교 국사 교과서가 거의 50년 만에 국정에서 검인증으로 바뀌면서 출판사마다 내용이 대체로 비슷한 가운데 표현이 다소 다르다. 지학사 출판 교과서의 경우, 3·15 관련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며 ‘마산의 거’ 혹은 ‘3·15의거’라는 표현 대신에 ‘마산시위’라는 표현을 쓰면서 1차, 2차 시위를 나누어 자세히 서술했다. ‘3·15 마산의거’라는 표현을 쓴 경우도 있다(씨마스 출판사).



두 분 열사님의 행적 제대로 알리는 계기 됐으면

이 책자 집필에 관여한 뒤로 늘 머리를 떠나지 않았던 화두는 ‘객관적 역사’와 ‘주관적 역사’ 사이의 관계 내지 차이였다. 1960년 3월 15일의 선거, 그 선거의 부정·불법성, 마산 시민·학생들의 거센 항거, 경찰의 발포, 많은 사상자 발생 등등은 명백히 객관적 사실이다. 그러나 마산의 3·15를 평가하면서 의거다, 항쟁이다, 혁명이다, 뭐다로 부르는 것은 그 사건을 인식하는 사람의 신념에 의한 주관적인 것이다.

3·15의거 희생자에 대한 인식 내지 이해만 해도 그렇다. 엄연히 산화한 열두 열사가 존재하지만(객관적 역사), 실제로 기억되는 건 오직 한 사람 김주열 열사밖에 없다고들 하니, 이 역시 결과적으로는 주관적 역사의 범주에 드는 문제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는 그동안 나머지 열사에 대해 손 놓고 있었던 나의 뼈아픈 자책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김용실·김영준 열사만큼은 객관적 역사에 머무르게 하지 말고 주관적 역사 속으로 끌어들이려 했던 것이다.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감사할 뿐이다.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위의 많은 도움으로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었음을 고맙게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큰 고마움은 박원철 총동창회장께로 돌려야겠다. 모교에 추모 동산을 만들고 추모 책자를 펴내는 데 박 회장의 물심양면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이루어졌다 해

도 훨씬 더 많은 세월을 기다려야 했을 것이다. 김용실 열사님과 동기이신 21회 선배님들의 헌신적인 도움에도 고개 숙여 고마움을 표한다. 제갈선광·박종근 두 분 선배님은 용실 선배님과 동기인 동시에 인척 관계라서, 자칫 묻혀 버리고 말았을 중요한 사실을 재구해 내는 데 결정적 힘이 되었다. 김영준 선배님과 관련해서 소중한 증언을 해 주신 김형철 선배님, 그 많은 사건들을 엮어 편찬위원들한테 들려주시고 격려해 주신 배종길 선배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조남규·김준형 선배님이 들려주신 많은 얘기도 큰 도움이 되었고, 언제나 편찬위원들을 격려해 주신 박필근 선배님께도 고마움을 표한다.

불편한 몸으로 두 차례나 증언을 해 주신, 김영준 열사님과 동기이신 19회 홍중조 선배님께 진 빚도 적지 않다. 16회 김만식 선배님과 당시 도립마산병원 간호사였던 정성자 님의 증언, 18회 박식원 선배님의 격려도 잊을 수 없다. 울산에 사시는 김용실 선배님의 큰누님(김옥주 님)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큰 행운이었다. 소중한 가족사진을 내주시면서 60여 년 전 사연을 털어놓는 심정이 어떠했을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빌어마지 않는다. 전 3·15의거기념사업회 회장 김장희(32회) 동문의 직·간접 도움에도 감사함을 표하고, 마산고 임채환(39회) 교장께도 고맙다는 마음을 전한다. 임 교장이 모교 출신 교장이 아니었다면, 그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일을 어떻게 처리해 내었을까를 생각하면 아찔하기까지 하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위원장과 함께 1년 이상을 호흡을 맞추느라 고생한 편찬위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서익진·정성기 두 위원은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문가이기에 참으로 마음이 든든했음을 여기에 적어 둔다. 묵묵히 자기 몫을 다한 안형호 위원은 모교의 전 교장 출신이기도 해서 이래저래 많은 도움을 받았다. 온갖 잡다한 일 처리하면서 한 마디 불평도 없이 수행

해 준 막내 최영찬 간사께도 마음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고마움을 전한다.

— 김정대(편찬위원장/31회, 경남대학교 명예교수)

마산고 학생들의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공로, 정당한 평가 받는 기회 되길

김용실, 김영준 두 분 열사를 비롯한 마산고의 3·15의거 투사들의 삶과 투쟁의 과정을 나름대로 복원하는 작업은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E. H. 카 교수의 명언을 되새기게 했다. 나아가 이 대화는 과거인들의 기록과 현재인들의 기억을 통해 이루어지며, 과거의 진실을 찾는 것이 얼마나 지난한 과업인지, 그리고 역사의 기술은 과거의 진실 찾기보다는 현재의 필요 충족에 더 많이 봉사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이 마산고 학생들의 이 나라의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정당한 평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3·15의거 정사의 편찬에 반영됨으로써 3·15혁명의 역사적인 리얼리티의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책의 저술에 참여한 것은 유신독재에 대한 저항으로 투옥의 경험이 있는 나에게는 특별한 보람으로 다가오기도 했다.

이 책의 편찬위원님들 모두 수고를 아끼지 않았지만 그래도 김정대 위원장님의 열정과 노고 그리고 추진력을 유독 높이 사지 않을 수 없다는 솔직한 마음을 표해 두고 싶다.

마산고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이 중차대한 사업이 뒤늦게나마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현 마산고등학교총동창회 박원철 회장님과 최영찬 사무총장님

그리고 마산고등학교 임채환 교장선생님 덕분이었음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마산고 출신이자 필진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분들의 관심과 헌신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하고자 한다.

- 서익진(편찬위원/32회, 전 경남대 교수)

두 열사 선배님께 바치는 헌사(獻辭)로서의 책자

글을 쓰는 지금 마음이 몹시 조심스럽다. 3·15의거가 있었던 그날, 의연히 나섰던 선배님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청사에 길이 빛날 선배님들에 비하면 너무 안이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다.

이번 작업을 하면서 느낀 점이 한둘이 아니지만, 두 가지 사실을 특히 잊을 수 없다. 하나는 모교의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을 때, 교정의 한 편에 들어서 있는 두 열사 선배님의 추념비를 둘러보면서 느낀 점이 새삼스레 떠올랐다는 것이다. 우리가 재학하던 때 있었던 비 모양과 위치는 모두 달라졌지만, 그 내용은 그대로 살아남아 나를 늘 경건하게 만들었던 기억 말이다.

다른 하나는 이 책자 발간을 위해 많은 증언을 들으면서 새삼 두 열사 선배님의 의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 가졌으면서도 살아 숨 쉰다는 말은 정녕 두 분 선배님을 두고 하는 말 같았다. 말이 쉬워 민주의 제단에 목숨을 바쳤다고 하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이래저래 두 분 선배님은 내 마음속에 살면서 나태해져 가는 나를 다잡는 것만 같다.

김용실·김영준 열사를 비롯한 모든 열사가 3·15의거의 주역으로 기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 김주열 열사의 그늘에 가려 진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은 우리 역사에서 불행한 일이다. 이 책자는 제1차 3·15의거에서 가장 두드러진 역할을 한 두 열사님에 대한 일종의 헌사(獻辭)다. 그동안 전혀 알려지지 않은 적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었다는 자부심과 함께, 더 많은 진실을 찾아 내지 못한 아쉬움이 이 순간까지 교차한다.

책을 펴내는 데 증언해 주신 모든 분들, 동창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그리고 이 책자 발간에 마음을 함께 모은 편찬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안형호(편찬위원/32회. 전 마산고 교장)

3·15의거와 부마항쟁 정신은 내 삶의 화두

가끔 우리 모교 교가를 흥얼거립니다. 다들 그러시겠지만, 그때마나 가슴이 뭉클합니다. “태백의 정기 서려 마재에 맺고, 남해의 푸른 물결 함포에 치니 …… 청년의 큰 뜻 이 가슴에 ……” 유신독재 시대였던 고교 시절, 모교 교정을 오가며 두 분 선배님을 뵈고, 북한의 공산화 위협 속에 목총 들고 군사훈련 받으면서도 ‘두발 자유화’ 교내 데모도 했더랬습니다. 대학 들어가서는 교과서 밖 세상을 알아가며 유신 말기 독재와 ‘죽어 가는 3·15 마산정신’을 마주하며 몸부림쳤습니다. 3·15의거 정신을 되살리고 계승하는 부마항쟁의 큰 물결에 휩싸인 이후 평생 3·15의거와 부마항쟁의 정신이 삶의 화두였습니다.

우리 지역과 나라와 세상은 늘 우파·좌파 사이에서, 심지어 민주화 세력 내부에서도 우파·좌파의 갈라지기 속에서 요동쳤지요. 그런 가운데 나름대로 중심을 잡아 가면서도 명료하지 않은 게 남아 있던 차에 두 분 선배님 추모 책자 발간에 참여하였습니다. 두 분과 가족들의 삶과 죽음, 그리고 파란만장했던 그 시대를 다시 보게 된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좁게는 마산고와 마산, 더 넓게는 한국, 세계 속 마산의 시대정신, 그 실체에 조금 더 다가간 것 같습니다.

포퓰러 나이, 십대 후반에 불의 앞에 목숨을 걸고 싸운다, 이걸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살아남은 젊은 영웅들이 잠시 영웅 심리에 휩싸이고 값비싼 대가를 치른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되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제자의 죽음을 보고 2차 의거 때는 교사들도 제자들 앞에 나선 모습 또한 마음을 숙연하게 합니다. 덕분에 이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지는 않아도 되는 세상인가 싶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너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일이 많은 세상이 아닌가 돌아보기도 합니다. 모교의 명예를 드높인 일도 많지만, ‘명문 마산고’ 이름값을 못하고, 오히려 명예를 추락하게 한 일도 많았음을 아르게 돌아보게 됩니다.

작지만 큰 이번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은 드물게 영광스럽고 보람찬 일입니다. 만시지탄이라 할 수도 있지만, 크게 다행스럽게 여기며 우리 모교의 좋은 역사적 유전자를 새롭게 꽃피우는 소중한 계기가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뜻 모아 애쓰신 분들 모두 모두께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정성기(편찬위원/36회, 경남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두 분 열사님의 의로운 정신, 무한한 자부심의 원천

“명문이어라, 의로움이어라! 그대, 자랑스러운 마고인이여라!”

총동창회가 모교 재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 세운, 교문 앞 계시대 맨 위에 쓰인 문구를 떠올리면, 우리의 영원한 모교 마산고등학교가 ‘명문’인 동시에 ‘의로운 역사’를 지닌 학교임에 가슴속 깊이 뭉클함을 느낍니다.

올해, 우리 마산고는 개교 86주년, 총동창회 창립 56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모교와 총동창회에서는, 3·15의거 62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김주열 열사의 그늘에 가려 활약상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김영준·김용실 선배님의 희생정신을 재조명하는 뜻깊은 행사를 가졌습니다. 참된 민주주의를 열망한 두 분의 신념을 후대에 알리고자, 여러 동문님들의 소중한 협찬과 열정으로 두 열사 선배님과 유공 동문님들을 기리는 추모 동산을 만든 것입니다. 기존의 추모비를 그곳으로 옮기면서 새로운 추모의 글을 따로 새기고, 두 분의 흉상을 세우는 한편 생애를 압축적으로 표현한 안내판도 세우고 나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두 분 열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널리 알리고자 김정대(31회) 편찬위원장님을 비롯한 편찬위원님들의 1여년 동안의 각고의 노력으로 두 분 열사님과 유공 동문들을 추모하는 책자가 세상에 나오게 됨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러한 추모 사업들이, 3만4천여 동문들과 재학생들에게, 자랑스러운 마산고의 자긍심을 심어 주는 또 한 번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 최영찬(간사/44회, 총동창회 사무총장)



이 책자를 펴내는 가장 큰 목적은 1960년 3월 15일에 산화한 김용실(21회) 열사와 김영준(19회) 열사를 재조명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재조명’이라는 용어를 쓰는 데는 까닭이 있다. 3·15의거라고 하면 사람들이 김주열 열사만을 떠올리는 바람에, 실제로 부정 선거에 온 몸으로 맞섰던 김용실·김영준 열사가 묻혀 버렸기 때문이다. 특히, 김용실 열사의 활약상을 보면, 그는 3·15의거 때 산화한 꽃 중에서도 장미꽃이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책자 편찬의 두 번째 목적은, 3월 15일 제1차 의거에서 부정 선거를 규탄했을 뿐만 아니라, 4월 11일~13일의 제2차 의거에서는 독재 정권 타도라는 혁명적 항거에 가담한 많은 마산고등학교 투사들의 면면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김주열 열사의 그늘에 가려 다른 사망 희생자들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마당에, 부상자나 부상 당하지 않았던 하더라도 의거에 깊이 관여한 공로자들의 활약상이 어떻게 알려질 수 있었겠는가.

사망자이든 부상자이든 다른 모든 희생자들도 김주열 열사만큼 널리, 그리고 제대로 알려져야 한다는 신념으로 우리가 이 책자를 준비했다는 점을 강조해 두고 싶다.

— ‘머리말’에서



비매품